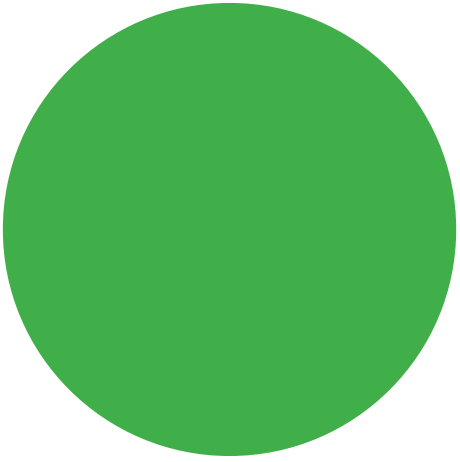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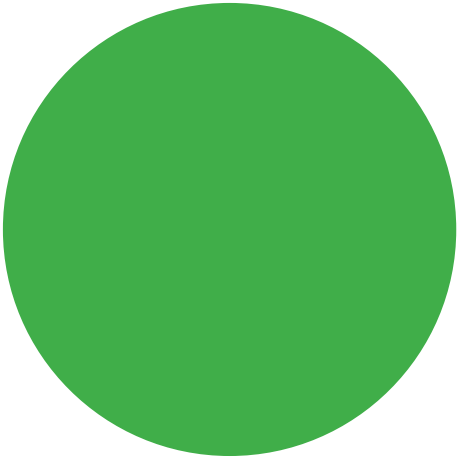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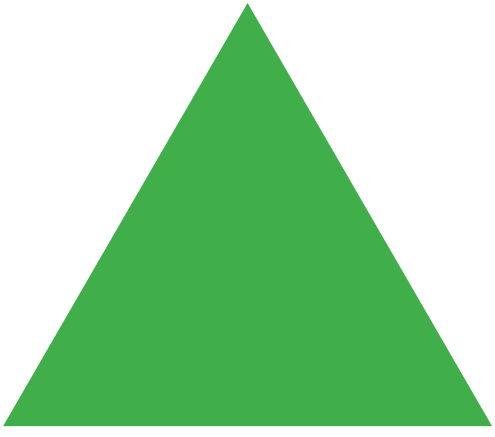
2012 공공미술 연례 보고서

공공미술 고찰 I 건축물 미술작품
ARKO 추진 공공미술 사업
국내 공공미술 사례조사·분석









www.arko.or.kr

공공미술프로젝트
publicart.or.kr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이 책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전환바코드(보이스아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귀하
본 보고서를 2012 공공미술연례보고서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3년 8월 15일

2012 공공미술연례보고서

2013년 8월 인쇄
2013년 8월 발행

발행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편집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미술관 공공미술TF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52-050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26-1번지
전화 02-760-4500,600
팩스 02-760-4780
홈페이지 www.arko.or.kr
이메일 arko@arko.or.kr

본 보고서는 무단전제를 금하며,
내용의 일부를 가공하거나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전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주관기관
기분좋은 QX(주)

연구책임자
황상훈
기분좋은 QX 대표

연구원
이혜경
기분좋은 QX R&C팀
팀장

보조연구원
최보현
기분좋은 QX R&C팀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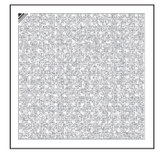
이진의
기분좋은 QX R&C팀
연구원

이슬기
기분좋은 QX 출판홍보팀
연구원

자문위원
양현미
상명대학교 문화예술
경영학과 교수

윤태건
동덕여자대학교
큐레이터학과 겸임교수,
THE TON대표

최은희
평택국제중앙시장
특성화시장육성사업단장,
(주)피쉬아이대표



7 I. 들어가는 말

11 II. 공공미술 고찰
1. 공공미술의 개념과 역사
2. 공공미술 정책 및 제도
3. 공공미술의 분류
4. 공공미술의 변화와 확장

43 III. 건축물미술작품 (2010~2012)
1. 건축물미술작품
2. 건축물미술작품 설치현황 및 경향 분석 (2010~2012)
3. 건축물미술작품 기금출현 현황 분석 (2011~2012)
4. 기금출연 사유 및 요구분석

57 IV.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추진 공공미술사업 (2012)
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추진 공공미술사업 조사분석·개요
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추진 공공미술사업 사례조사·분석 결과
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추진 공공미술사업 사례조사·분석의 종합

81 V. 국내 공공미술사업 사례조사·분석 (2012)
1. 국내 공공미술사업 사례조사·분석 개요
2. 국내 공공미술사업 사례조사·분석 결과
3. 국내 공공미술사업 사례조사·분석의 종합

149 VI. 맺음말

153 VII. 참고문헌

2012 공공미술 연례 보고서

1장
들어가는 말

본 보고서는 2012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진행한 공공미술사업을 소개하고 전국에서 진행한 공공미술사업의 사례를 광범위하게 다룬다. 현재 공공미술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2012년에 전국에서 얼마나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었는지 종합적으로 파악하고자 작성하였다.

현재 공공미술은 건축물미술작품제도와 공공미술사업으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본 보고서는 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또한, 커뮤니티 아트 등 유관한 성격을 지닌 다양한 사례들도 함께 조사하고 정리하였다.

2012 공공미술연례보고서는 크게 다섯 부분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우선, '공공미술의 고찰'에서는 공공미술의 개념과 역사, 정책 및 제도의 흐름을 살펴보고, 확장된 공공미술로서 현재의 의미와 가치를 설명하였다.

'건축물미술작품'은 건축물미술작품제도를 통한 작품설치 현황 및 경향분석, 선택적 기금제를 통한 기금출연 현황과 사유 및 요구분석의 내용으로 구성하여 서술되었다. 본 보고서는 2012년 공공미술연례보고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건축물미술작품제도를 통한 작품설치 현황자료가 체계적으로 정리되기 시작한 시점이 2010년도부터이며, 이 시기부터의 내용을 종합 정리하여 설명하는 보고서가 발간되지 않은바, 2010~2012년 3년간의 기록을 정리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선택적 기금제를 통한 기금출연 현황 및 사유, 요구분석에 있어서는 선행연구[1]의 자료를 재구성 하여 게재하였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추진 공공미술 사업'은 2012년 1년 동안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추진한 공공미술 사업의 내용을 정리하여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 사업들은 2013년에도 꾸준히 진행되는 사업으로 2012년에는 계획수립 및 공모 단계의 과정이 진행된 바, 사업의 추진목적 및 방향, 프로젝트별 주제 및 계획, 내용 위주로 서술하고 정리하였다.

'국내 공공미술사업 사례조사·분석'에서는 2012년 1년 동안 전국에서 실행된 공공미술 사업의 현황과 내용을 소개하여 정리하였다. 또한, 최근에는 공공미술의 가치를 인식하여 다양한 주체와 장소, 사업 등에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공공미술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사례들도 공공미술의 현재적 가치에 있어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만큼 공공미술사업과 기타 관련사업으로 구분하여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였다.

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2, 건축물미술작품제도 개선현황 및 출연기금 분배방안 연구



오늘날 공공미술이 추진주체에 따라 다양한 목적으로 실행되고 있어 현재의 공공미술이 가진 의미와 주소를 명확하게 진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이후의 발전과 새로운 시도, 개선을 위해서는 주체별, 지역별 공공미술 현황과 사업 실행의 경향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공공미술의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고, 그 실행 목적과 장소, 실행유형 및 특징 등에 있어 개괄적으로 경향 및 추세를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또한, 본 보고서는 정부부처,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수행단체 등에서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하여 심층적인 평가라기보다 공공미술의 다양한 활동과 시도를 정리하여 설명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양한 기관 및 주체에서 공공미술 사업이 진행되는 만큼 각각의 접근방식과 실행방법 등을 본 보고서를 통해 공유하여 현재의 공공미술을 점검하고 더 나은 방향 모색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

2012 공공미술 연례 보고서

2장
공공미술 고찰

1. 공공미술의 개념과 역사

경제발전과 생활수준향상은 쾌적하고 심미적인 환경에 대한 욕구와 물리적인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불러왔다. 이는 주로 도시계획, 건축계획, 조경계획 등 전문가를 통해 이루어졌고, 현재는 물리적 환경개선에서 나아가 지역의 성격과 기능, 지역민의 생활과 문화를 반영하는 다양한 내용적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 주민의 생활공간에서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전개되며,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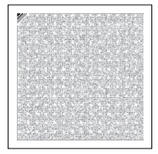
공공의 공간에서 주민과 다양한 교감을 통해 문화경관을 조성하는 활동의 방법과 형태는 주로 '공공미술'이라는 용어로 표현된다. 이 용어는 오랜 역사에 따른 개념과 의미의 변화과정을 거쳐 현재 다양한 의미로 해석·활용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공미술의 다양한 형태와 유형을 제시함으로서 현재의 경향을 파악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보고서에서 다룰 공공미술의 의미적, 표현적 범위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어, 공공미술의 다양한 사례들을 제시함에 앞서 문헌조사를 통해 공공미술에 대한 다양한 의미와 해석, 개념과 역사적 변화, 확장의 양상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공공미술의 현재적 개념을 정리하고자 한다.

(1) 공공미술의 다양한 의미와 해석

공공미술의 의미에 대한 해석은 이미 선행연구에서 많이 다루어져 왔다. 이러한 이유로 먼저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다양한 연구와 문화담론을 통해 제시된 공공미술의 다양한 의미를 파악하고 정리하였다.

공공미술(公共美術, public art)은 대중들을 위한 미술을 뜻하는 미술용어로서 도시의 공원에 있는 환경조각이나 벽화 등이 이에 해당된다. 공공미술은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장소에 설치·전시되는 작품을 지칭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지정된 장소의 설치미술이나 장소 자체를 위한 디자인들을 포함한다. 장소에 결합하는 예술이라는 의미를 갖기도 하지만, 몇몇 작품은 여러 개가 제작되어 여러 장소에 설치된 경우도 있다. 공공미술이 설치되는 장소는 대부분 도시이며, 조각·벽화·스트리트퍼니쳐(street furniture)·포장작업(paving)·디자인 등 다양한 장르를 포괄한다. 근래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기념 조형물의 형태를 뒤집어놓거나 날카로운 비판의식으로 공공영역에 개입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전통적 공공미술이 공공의 개념을 장소와 관련시켜 작품을 만들고 소통하는데 반해, 새로운 공공미술은 장소를 물리적



1. 두산백과 www.doopedia.co.kr
2. 월간미술, 1999, 세계미술용어사전

3. 영국의 미술행정가로서 아트디렉터와 화상·큐레이터·평론가·수집가 등 소수 전문가들의 예술적 향유가 일반대중의 미감을 대변하는 것처럼 만들어 소수의 행위를 정당화시킨다는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일반인들의 정서에 개입하는 미술개념으로서의 공공미술을 고안하였다.

4. 문화관광부, 2006, 공공미술이 도시를 바꾼다

5. 입법정보연구관, 정치학박사 권세기, 2002, 공공미술제도:현황과 과제: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 건축물 미술장식, 국회 도서관 입법전자정보실

장소로 보지 않고 사회적·문화적·정치적 소통의 공간으로 간주하며, 그런 의미에 맞는 작품으로 지역공동체와 관람객의 참여, 일시적 작업 등을 제안 한다.[1] 또 다른 매체에서는 공공미술이 단순히 지역사회를 위해 제작되고 지역사회가 소유하는 미술이라고 제시하고 있다.[2]

이러한 공공미술의 개념이 처음 공식화된 것은 일반적으로 영국의 미술 행정가인 존 월렛(John Willett)[3]이 정부에 공공미술 자문위원을 임명할 것을 제안한 1967년으로 본다. 존 월렛은 도시 속의 미술(ART in a City)라는 책을 통해 '소수만이 미술을 즐기려는 혐의를 지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공공미술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문화관광부(2006)의 연구를 통해 공공미술은 공공적 성격, 즉 공공성(公共性)을 띈 미술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 공공성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 그 의미는 달라진다고 제시했다. 여기서의 공공성은 장소와 연결되는 공공공간, 공공적인 목표나 이슈를 의미하는 공공적 관심, 재원의 출처를 가리키는 공공자금을 가리키는 등 다양한 용어로 접근이 가능하다. 이에, 공공미술을 미술과 공공성의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경험과 창조적 가능성을 가리키는 열린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하였다.[4]

입법정보연구관 권세기(2002)의 연구에서는 '공공미술(public art: art in public space/places)'은 넓은 의미에서 단순히 공동체를 위해 제작되고 소유되는 미술품을 의미하며, 이는 시대에 따라 그 의미와 형태가 다르게 나타난다. 현재 공공미술이라고 부르는 것은 20세기 후반에 등장한 현상으로 도시중심부나 정부와 단체의 건물, 광장, 공원, 학교, 병원, 역사, 주택 외벽 등에 현대미술이 빈번하게 설치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현대의 공공미술은 일반적으로 대중에게 공개된 장소에 설치, 전시되는 작품을 일컫는다. 공공미술은 이렇듯 어떤 장소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한 장소를 요하는 작품(site specific work)'(Robert Smithson)으로 정의되기도 하지만 동일한 작품이 여러 곳에 설치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장소일반 미술(site-general art)'이라고 할 수도 있다고 설명하였다.[5]

양현미 외(1999)의 연구에서는 공공미술이 미술관이나 화랑 같은 제한된 공간에 놓여있던 미술을 일상생활 공간으로 들여오기 위한 노력에서 비롯된 것으로 제도적으로는 공공건물을 지을 때 건축비의 일부를 할애하여 미술작품을 구입하거나 의뢰하였던 관례에서 유래한 것으로 설명하였다. 오늘날 공공미술은 우리나라에서 건축물미술장식법 또는 1%법이라고 부르는 '미술을 위한 퍼센트법(Percent for Art Ordinance)'에 의해서 제작된

미술작품 뿐만 아니라 이러한 법에 의존하지 않고 미술가나 미술단체, 기업, 지역주민, 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조성된 미술작품들도 포괄하는 것으로서 매체 상으로나 양식적으로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언급하였다.[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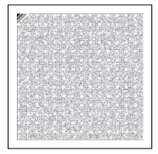
강태희 외(1997)의 연구에서는 오늘날 공공미술을 '건축물 부설장식'이나 '공공장소 속의 미술'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오히려 '시각예술을 통한 인간적인 도시 만들기 작업'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하였으며, 공공미술은 도시를 인간적으로 만들기 위하여 도시의 공공공간을 활성화 하는데 시각예술의 수단을 동원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7]

이 밖에도 관련연구에서 공공미술의 다양한 의미와 해석을 살펴보면 공공미술은 장소, 기능, 내용적인 측면에서 공공의 대중을 위해 제작하고 소유하는 미술품[8]이고, 일반대중(public)을 위한, 그들을 향한 예술[9]이며, 대중들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 설치되는 미술,[10] 생활주변의 환경을 쾌적하게 만들고 자연과 인간의 연결매체의 기능을 가진 회화, 조소, 그 밖의 입체작품 등 옥내 외에 설치된 모든 조형물[11] 등의 개념들을 제시하였다.

공공미술은 공공성과 미술의 만남에서 '공공성'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라는 의문에서 개념적 고찰을 시작한다. 공공성의 다양한 의미 해석을 바탕으로 문헌에서 제시한 공공미술의 의미를 종합해보면 공공미술은 대중을 위하고, 대중을 향하며, 대중의 참여를 통해 제작된다. 또한 작품은 대중과의 연결매체 기능을 수행하며, 대중이 소유한다. 또한 그 대중은 관람객, 공동체, 지역주민 등 다양한 형태의 구성원이 될 수 있으며, 미술작품의 제작 및 설치도 관에 의한 주도, 법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미술가나 미술단체, 기업, 지역주민 등에 의해 자발적으로 조성될 수 있다.

작품의 설치장소는 대중에게 공개된 장소로 우리생활 주변의 모든 공공장소이다. 공공미술은 특정장소 설치를 전제하는 작품인 경우가 많으나, 장소일반미술의 형태일수도 있다. 공공미술작품을 설치한 공간은 단순히 물리적 공간이 아닌 사회·문화·정치적 소통을 위한 공간의 기능을 하게 된다.

공공미술작품의 제작과 설치 등을 위한 작업은 주변의 환경을 쾌적하게 만들고 지역공동체, 관람객 등의 참여를 통해 다양한 경험과 창조적 가능성을 시도하기도 한다. 미술작품이라는 하드웨어적 형태와 시민 참여라는 소프트웨어적 성격 모두를 지니기 때문에 '시각예술을 통한 인간적인 도시 만들기 작업'이라고 일컬어지기도 한다. 또한



6. 양현미 외, 1999, 공공근로사업과 연계한 공공미술 프로그램 연구, 한국문화정책개발원
7. 강태희 외, 1997, 건축물 미술장식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문화정책개발원
8. 멜컴마일스, 박삼철, 2000, 미술, 공간, 도시: 공공미술과 도시의 미래, 학고재
9. 김혜진, 2010, 2000년대 이후 한국의 공공미술사업 유형,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0 Vol.10 No.8
10. 김주연, 이미림, 권양숙, 2010, 도시공간에서의 인간과 공공미술의 유기적 관계연구-시카고 공공미술 작품 사례중심으로,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제5권 3호 통권 13호
11. 김향미, 2007, 미술교육에서의 공공미술 활용방안 연구, 미술교육 논총 제21권 1호

[표 1] 공공미술의 다양한 의미와 해석

저자명(년도)	공공미술의 다양한 의미와 해석
두산백과	**사전적 의미** 대중들을 위한 미술 대중에게 공개된 장소에 설치·전시되는 작품 (기타) 공공미술 장소: 사회적·문화적·정치적 소통의 공간 공공미술 작업: 지역공동체와 관람객의 참여, 일시적 작업 등을 제안
월간미술	**사전적 의미** 지역사회를 위해 제작하고 지역사회가 소유하는 미술 미술과 공공성(公共性)의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경험과 창조적 가능성을 가리키는 열린 개념
문화관광부 (2006)	(기타) 공공성의 의미: 공공공간, 공공적 관심, 공공자금 등
입법정보연구관 권세기 (2002)	공동체를 위해 제작되고 소유되는 미술품 대중에게 공개된 장소에 설치, 전시되는 작품 특정한 장소를 요하는 작품 / 장소일반 미술 모두를 포함함
양현미 외 (1999)	미술관이나 화랑 같은 제한된 공간에 놓여있던 미술을 일상생활 공간으로 들여오기 위한 노력에서 비롯된 것 건축비의 일부를 할애하여 미술작품을 구입하거나 의뢰하였던 관례에서 유래한 것 관에 의해 제작된 미술작품 뿐 아니라 법에 의존하지 않고 미술가나 미술단체, 기업, 지역주민, 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조성된 미술작품을 포괄하는 의미
강태희 외 (1997)	시각예술을 통한 인간적인 도시 만들기 작업 도시의 공공공간을 활성화하기 위한 수단
멜컴마일스 외 (2000)	장소, 기능, 내용적인 측면에서 공공의 대중을 위해 제작되고 소유되는 미술품
김혜진 (2010)	일반 대중을 위한, 그들을 향한 예술
김주연 외 (2010)	대중들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 설치되는 미술
김향미 (2007)	생활주변의 환경을 쾌적하게 만들고, 자연과 인간의 연결매체로서의 기능을 가진 옥내 외에 설치된 모든 조형물

다양한 장르의 결합, 공공적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 기존에 없던 새로운 작품 활동의 형식을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창조,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제작하고 설치한 기존의 작품은 대부분 영구적이거나 반영구적인 형태가 가장 많았으나, 현재에는 일시적으로 작업하고 철거하는 이벤트성 작업인 경우도 많다.

[표 2] 공공미술의 개념 정리

항목	내용
공공미술의 의미	'공공성과 미술의 만남'
공공미술의 대상	'대중'(시민, 군중, 관람객, 수혜자 등) 대중을 위하고 대중을 향하며, 대중의 참여를 통해 제작 대중과의 연결매체로서의 작품 대중이 작품을 소유 정부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미술가, 미술단체, 기업, 지역주민 등에 의한 자발적 조성
공공미술 설치장소	대중에게 공개된 장소 일상 및 생활주변 모든 공공장소 공공미술이 설치된 공간은 사회·문화·정치적 소통을 위한 공간으로 기능
공공미술 작업 및 형태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작업 지역공동체, 관람객 등의 참여를 통한 다양한 경험과 창조적 가능성 시도 다양한 장르의 결합과 공공적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시도 영구적/반영구적/일시적 작업(이벤트성 작업) 등 다양한 형태

(2) 공공미술의 변화와 확장

공공미술과 관련된 다양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공공미술을 사전적 의미로 단순하게 정의하는 것이 아닌 장소, 기능, 내용 등을 바탕으로 의미적 접근을 통해 다양한 언어로 표현한다. 또한 오랜 역사를 거치면서 시대에 따라 의미와 형태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공공미술의 개념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것은 외국의 다양한 공공미술 관련 정책 및 제도의 변화와 맥락적으로 연결되며, 그에 따른 변화 과정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공공미술의 변천과정은 크게 5단계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 단계는 '미술가를 위한 공공사업' 추진의 형태이다. 실직미술가들을 위한 일자리창출의 방안으로 경제공황기인 1930년대 미국에서 시작되었다.

두 번째 단계는 '건축 속의 미술'이다. 1963년 미국 연방정부 공공시설청(CSA)은 연방건물 건축비의 일부를 공공미술에 할당하도록 하는 '건축 속의 미술' 프로그램을 제도화하여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고, 프랑스 또한 1951년 미술을 위한 퍼센트법(Percent for Art Scheme)을 제정하였으며, 국립건물의 신축 및 증축 시 건축비의 일부를 미술품 주문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세 번째 단계는 '공공장소 속의 미술'이다.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의 공공미술사업 채택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에 근거를 두고 있다. 1967년 미국국립예술진흥기금(NEA)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환경 개선에 공공미술을 채택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공공장소 속의 미술'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자치단체나 민간 공공미술사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였다. 이 단계에서 공공미술의 설치장소가 공공건물에서 공공장소로 확대되었다. 또한 지역사회의 공동체성 회복에 있어 공공장소의 활성화가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시민공원이나 광장 같은 곳에 벽화나 조각을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공공미술개념 변화의 네 번째 단계는 '도시재생을 위한 미술'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도시 재개발이나 도시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공공미술을 도시계획 과정에 결합하기 시작한 단계이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기금제(Pooling System)를 도입하여 공공건설 비용의 일부를 기금에 납부하도록 의무화하여 재원을 마련하였다. 또한, 1984년 미국 시애틀시가 이전단계의 공공미술이 도시를 야외조각상을 통하여 조각공원화 하는데 머물러 있다고 비판하면서, 공공미술이 도시전체 차원에서 고려된 공공장소들의 네트워크로 조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였다. 이를 계기로 미술가가 도시디자인 팀의 일원으로 활동하는 관행이 정착하게 되었다.

다섯 번째 단계는 1980년대 후반에 등장한 '뉴장르 공공미술'이다. 미술과 대중사이의 커뮤니케이션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의 공공미술과 차이가 있다. 이는 '전통적 또는 비전통적 매체를 사용하여 보다 광범위하고 다양한 관객과 함께 그들의 삶과 직접 관련된 이슈들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상호작용하는 시각예술'이라고 정의되며 주제, 매체, 제작방식이 기존의 공공미술과 차이를 갖는다. 주제는 대개 미술가와 주민이 공동으로 결정하며, 미술가의 예술적 관심이나 도시 미관상의 관심보다는 지역사회가 당면한 이슈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매체는 옥외조각이나 벽화 같은 전통적인 매체뿐만 아니라 퍼포먼스나 미디어아트 같은 실험적이고 비전통적인 매체도 자주 사용된다. 제작방식은 미술가와 주민이 기획, 제작, 설치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공동으로 작업하며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이 보장된다는 특성을 갖는다.

문화관광부(2006)는 위에 제시한 5단계에 걸친 공공미술의 개념적 변화 분석을 바탕으로 '문화의 민주화'에서 '문화 민주주의'로 제도의 이념적 지향점이 변화하고 있음을 지적하였고, 이러한 변화를 캐시 할브라이시(Cathy Halbreich)[12]는 다음과 같이 명쾌하게 요약하여 이야기한 바 있다.

12. 뉴욕 현대미술관(MoMA)의 부관장으로 2008년 2월 MoMA와 P.S.1의 현대미술 전시기획 전략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새롭게 임명되었다. 그녀는 현대미술 분야에 역점을 둔 큐레이터 그룹을 구성해 이끌고 있으며, 관장인 글렌 로리(Glenn Lowry)와 함께 Fund for the 21st Century 활동을 통해 미술관의 동시대 작품 소장에 앞장서고 있다. 뉴욕현대미술관(MoMA)에 합류하기 이전에 그녀는 미네아폴리스의 워크아트센터(Walker Art Center)에서 16년간 관장으로 재직하며 미술관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그 기간 동안 워크아트센터는 현대미술 분야에서 국제적인 입지를 확보하며 다양한 관람 층을 확보하였다. 아울러 새롭게 떠오르는 장르인 비주얼 아트, 퍼포먼스, 미디어 아트 분야의 기반을 확충하고 요셉 보이스(Joseph Beuys), 척 클로스(Chuck Close), 브루스 나우만(Bruce Nauman), 키키 스미스(Kiki Smith), 카라 워커(Kara Walker) 등 세계 정상급 현대 미술가들의 전시를 기획하였다. 또한 앤디워홀 재단의 위원회 멤버이자, 광주비엔날레 및 카네기 인터내셔널 등의 전시에 큐레이터로 활동한 바 있다.

"우리는 20년 사이에 강조점이 (옥외광장의 규모에 맞도록)
기념비적으로 만들어진 스튜디오 작품으로부터 문화적
유물들을 담을 수 있는 시설물들로, 일군의 예술가들에게
도시의 새로운 탄생을 기념하는 조각품을 의뢰하는 데에서
시애틀과 필라델피아 같은 도시들이 - 상호학문적인 디자인팀의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 공공장소가 보다 친근하고 사회적인
장소로 기능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는 예술가들에게 자금을
제공하는 것으로, 그리고 기념비적인 놋쇠덩어리로부터
점심시간에 왕래하는 사람들을 위한 거리의 퍼포먼스들과
행사들로 이동하는 것을 보았다."

위의 내용처럼 공공미술의 세계적 흐름이 미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외국의 다양한 정책과 제도의 변화와 함께 성장하고 확장했다면, 국내공공미술의 흐름은 해방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크게 4단계로 구분 지어 서술할 수 있다.

해방이후 1960~70년대는 기념조각의 시대이다. 역사 및 기록을 위한 기념조각이나 기념동상, 상징조형물의 형태가 주류를 이루었다. 1970년대 처음으로 공공미술 관련 제도가 법제화되었으나, 실제 법적 효력을 가지지는 못하였다. 1980년대에 들어서야 '기념조각'에서 도시환경에의 영향을 주는 '환경조형'으로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 시대에 '건축물미술장식제도'(현 건축물미술작품제도)가 의무화되었고,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을 준비하면서 비로소 도시 환경 미화 차원의 모더니즘 조각이 대거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이르러 1995년 '건축물미술장식제도'가 권장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전환되면서 공공미술이 폭발적 양적성장을 이루게 되었다. 공공미술 작품의 대거 등장은 공공미술이 미술시장의 영역으로 급속히 이동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또한 도시환경과 공공미술에 대한 고민이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장소 특정적(site-specific) 공공미술과 시민과의 소통을 중시한 작품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표 3] 공공미술의 변천과정

단계	공공미술의 변천	특징
1단계	미술가를 위한 공공사업 (Public Works for Artists) [1930~1950년대]	(목적) 실직미술가를 위한 일자리 창출 (내용) 공공건물 장식을 위한 벽화와 조각제작 미술교육, 취업을 위한 디자인 교육 포스터, 공예품 제작 사진, 영화제작 미국 전통 디자인 조사와 기록보존, 역사적인 건축물 조사 지역 미술센터(Community Art Center) 설립, 운영
2단계	건축 속의 미술 (Art in Arhitecture) [1950~1960년대]	(목적) 미술작품을 통한 정부건물의 미적 가치제고 (내용) 프랑스 1%법(1951년), 미국 연방정부 공공시설청(SCA), '건축 속의 미술 프로그램'(1963년) 작품경향: 순수미술 위주
3단계	공공장소 속의 미술 (Art in Public Places) [1960~1970년대]	(목적) 공원, 광장 같은 지역의 공공공간 활성화 (내용) NEA '공공장소 속의 미술프로그램'(1967년), 자치단체의 미술을 위한 퍼센트법 순수미술 위주였다가 공공미술의 독특한 정체성이 형성됨 초기에는 스튜디오 작품을 크기만 키워 공공장소에 설치하여 플롭아트(Plop art)라는 비난을 받음 점차 공공장소의 컨텍스트에 적합한 미술로 변화 공공미술이 미술과 삶의 결합을 지향하는 미술로서 진화괘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작업
4단계	도시계획 속의 미술 (Art in Urban Design) 도시재생을 위한 미술 (Art as Urban Revitalization) [1970~1980년대]	(목적) 공공미술을 통한 도시 공공공간의 인간화와 네트워크화 (내용) 도시디자인팀에 미술가 참여가 제도화됨 도시계획의 일환으로 공공미술종합계획 수립, 기금제가 도입됨 라데팡스, 바로셀로나, 필라델피아, 댈러스, 로스엔젤레스 등에서 시행하여 문화적인 도시 환경 조성에 큰 성과를 거둠 미술품 이외에 미술가가 디자인한 가로시설물, 공원, 문화시설, 문화 프로그램 등으로 공공미술 영역이 확장됨
5단계	새로운 장르의 공공미술 (New Genre Public Art) [1980~1990년대]	(목적) 미술을 통한 시민간의 커뮤니케이션 확대와 시민문화 공동체 형성 (내용)수잔 레이시는 '전통적 또는 비전통적 매체를 사용하여 보다 광범위하고 다양한 관객과 함께 그들의 삶과 직접 관련된 이슈들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상호작용하는 시각예술'로 정의 1970년대 미국 주민벽화운동과 1980년대 시카고 공공미술 프로그램에서 시작 결과보다는 과정 중시, 특히 주민 참여가 필수적인 요소 시민에 대한 문화 교육적 효과를 겨냥한 비디오 제작, 퍼포먼스, 미술공방 운영, 정원 가꾸기 등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변화, 장르도 시각예술의 영역을 넘어서 영화, 비디오, 공연 등으로까지 확장

2000년대는 미술계에서 공공미술이 화두로 떠오른 시대로, 재료 및 표현형태의 다양화 등을 통해 공공미술이 매우 활성화된 시기이다. 이전의 플롭아트(Plop art)에서 장소 특정적 공공미술로, 작가의 일반적 자기표현에서 관객과의 소통을 중시한 공공미술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변화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전통적 오브제 형태의 공공미술에 한계를 느낀 젊은 기획자(집단)들이 자생적으로 공공미술의 다양한 가능성을 실험하였다. 이후, 정부와 지자체 또한 공공미술에 대한 관심과 사업을 확대해 나감으로 건축, 조경, 디자인 장르를 넘나들며 공공미술이 도시디자인으로 확장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13]

우리나라 공공미술의 변화와 흐름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으며 정책 및 제도의 구체적 변화와 현 주소는 다음 장에서 다루도록 한다.

1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1, 도시계획과 연계한 공공미술 추진방안 연구

[표 4] 국내 공공미술의 변천과정

단계	공공미술의 변천	특징
1단계	기념조각의 시대 [해방이후~1970년대]	· (내용) - 공공미술의 개념이 본격화되기 이전의 시대 - 역사 및 기록, 상징의 기능을 가진 기념조각, 기념동상, 상징조형물 제작 · (정책 및 제도) - 1972년 문화예술진흥법(일종의 퍼센트법)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조항 신설
2단계	모더니즘 조각의 시대 [1980년대]	· (내용) - '기념조각'에서 도시환경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서의 '환경조형'으로 변화한 시기 - 1980년대 전반 : 기념조각과 유명 조각가의 작품 혼재 - 1980년대 중후반 : 도시미화 차원의 모더니즘 조각 대거 등장 (86아시안게임/ 88올림픽 영향) · (정책 및 제도) - 1984년 건축물미술장식제도(현 건축물미술작품제도)의 서울시 의무화(1993년 다시 권장사항으로 변경)
3단계	성장의 시대 - 양적성장과 성장통 [1990년대]	· (내용) - 공공미술작품의 대거등장 - 창작의 기회 및 문화향수권의 증진 - 장소특정적 공공미술과 시민과의 소통을 중시한 작품들의 본격적 등장 · (정책 및 제도) - 1995년 건축물미술장식제도(현 건축물미술작품제도)가 권장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전환
4단계	공공미술의 확장과 도시적 기획 시도 [2000년대]	· (내용) - 미술계에서 공공미술이 화두로 떠오른 시대 - 공공미술의 다양화 및 활성화 - 이전 플롭아트(Plop art)에서 장소 특정적 공공미술로, 작가의 일방적 자기표현에서 관객과의 소통을 중시한 공공미술로의 변화 - 재료 및 표현방식의 다양화 - 건축, 조경, 디자인 등 장르의 확장과 협업을 통한 공공미술의 확장 - 젊은 공공미술 기획자집단(공공미술 프리즘, 플라잉시티, 공화국리라, 야투, 반지하, 믹스라이스 등)의 자생적 공공미술의 가능성 실험 · (정책 및 제도) - 정부와 지자체의 공공미술에 대한 관심확대를 통한 다양한 사업('Art in City', '마을미술프로젝트'등)의 대규모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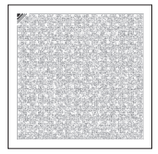
(3) 공공미술 유사용어

오랜 역사 속에서 시대적 변화를 겪으며 공공미술의 의미와 영역이 확장되고, 최근 들어 공공미술의 다양한 가능성에 대한 실험과 시도가 더욱 활발해짐에 따라 공공미술의 영역과 활동의 범위가 더욱 방대해지고 있다. 앞에서 공공미술의 개념에 대해 정리하고, 공공미술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파악하고 제시하였다. 전국 각지에서 공공미술이라는 표현 외에 커뮤니티아트, 커뮤니티디자인, 참여미술, 공공디자인, 문화디자인 등 다양한 용어로 표현된 공공미술과 유사한 작품 및 커뮤니티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공공미술의 영역 및 활동범위의 확장과 맞물리며 그 개념과 의미상의 혼돈을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관련사업 및 용어의 종류와 의미, 개념을 파악하고자 한다.

위에 제시한 관련 사업을 통한 작품 및 커뮤니티 활동은 주로 정부기관 및 지자체의 사업명 혹은 사업의 목표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 사업들 또한 지역주민과의 다양한 교감을 통해 주변의 환경과 문화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만큼 공공미술과 유사한 목적 및 방향성을 가지고 시도되는 것임에 틀림없다. 그렇다면 각각의 용어들의 명확한 정의는 무엇이며, 공공미술과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문헌을 통해 수집하고 간단하게 정리하였다.

커뮤니티아트(Community art, 공동체 예술)는 오랜 옛날부터 인간이 집단적인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발전한 다양한 사회적 예술[14]로 공동체의 이해에서 출발하여 다양한 공동체의 이해(청소년 교육문제, 여성차별문제, 인종차별문제, 노동자·실직자·은퇴자의 이해, 지역발전 문제 등)를 중심으로 대중이 예술창작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의 활동을 일컫는다. 이는 1968년 사회변혁운동 이후 서구에서 활발하게 전개된 문화예술 운동의 일환이다. 기존의 문화엘리트주의에 기초한 예술인식을 거부하고 문화민주주의에 바탕을 둔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며 보다 많은 대중이 예술창작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운동이라 할 수 있다.

커뮤니티아트는 다양한 종류의 공동체 활동을 내포하며 전문예술가, 지역주민의 욕구를 비롯해 지역의 아트센터, 학교, 미술관 등 다양한 곳에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 그 활동은 연극, 영화, 음악, 공예, 사진, 인형극, 그림그리기, 예술교육, 문학, 애니메이션 등 광범위한 예술영역을 포함한다. 커뮤니티아티스트는 제작과정과 워크숍 등을 통해 참여자들에게 예술적 기술을 전수해 주거나 그들의 창조활동이 발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을 포함한다. 또한 예술과 공동체와의 관계 및 공동체에 미칠 영향에



14. 문화관광부, 2006, 공공미술이 도시를 바꾼다

주된 관심을 두고 참가자들의 창조적 역량을 인식시키며, 창조과정을 통해 지역공동체에 대한 경험과 이해의 폭을 넓히고, 지역공동체의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여 지역공동체 구성원의 삶의 질을 고양시킨다.[15]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시각예술 위주의 커뮤니티아트를 뉴장르공공미술의 일부로 포함하여 '공공미술2.0'사업을 통해 커뮤니티아트에 정책지원활동을 벌이고 있다.

15.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7, 커뮤니티아트 진흥방안 연구

[표 5] 커뮤니티아트의 개념

커뮤니티아트(Community art)

· 커뮤니티아트의 개념
- 공동체의 이해(청소년 교육문제, 여성 차별문제, 인종차별 문제, 노동자·실직자·은퇴자의 이해, 지역발전문제 등)를 중심으로 대중이 예술창작에 직접 참여하는 활동
-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전문예술가, 지역주민의 욕구, 지역의 아트센터, 학교, 미술관 등) 생겨날 수 있는 활동

· 커뮤니티아트의 목표
- 보다 많은 대중의 예술참여를 통한 예술의 접근성 확대
- 기존 예술이 지향하던 소수의 사회구성원을 위한 제한된 예술, 창조과정에서 직접적 참여가 배제된 수동적인 예술을 배척
- 보다 많은 다수를 위한 예술, 다수가 참여하여 만드는 예술, 공동체의 관심을 반영하는 예술을 지향

· 커뮤니티 아티스트
- 대중의 예술 창작 참여를 유도하는 매개자
- 참여자의 창조적 아이디어를 발전시켜주는 촉매자
- 커뮤니티아트에게 창조적 역량을 인식시키고, 창조과정을 통해 지역공동체에 대한 경험과 이해의 폭을 넓혀주며, 지역공동체의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여 지역공동체 구성원의 삶의 질을 고양시키고자 노력하는 사람

· 커뮤니티아트 참여자
-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공동체의 이해를 공유하는 사람이나 단체(청소년, 노동자, 소수인종, 성소수자, 장애우, 은퇴자, 세입자협회 등)

· 커뮤니티아트 활동내용
- 연극, 영화, 음악, 공예, 사진, 인형극, 그림그리기, 예술교육, 문학, 애니메이션 등 광범위한 예술 활동 영역을 포함
- 구성원 참여의 폭이 넓거나 지역공동체 전체가 연관되어 있을 때 축제와 같은 대규모의 활동이 가능함

커뮤니티 디자인(Community Design)이라는 용어는 현재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에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 사업의 내용은 대부분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 마을을 가꾸고 관리해 나가는 것이다. Till(2010)의 '커뮤니티디자인은 전 세계적으로 예외적 실천이 아닌 일반적인 실천이 되어가고 있다'는 진단을 참고한다면 이러한 현상이 일시적인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현재 커뮤니티디자인은 개념 및 지향 가치에 대한 체계적 논의 없이 현장 중심적으로 용어가 사용되고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성호(2011)는 커뮤니티 디자인을 건축, 도시계획, 조경 같이 특정 학문적 분야가 아닌 '커뮤니티'라는 가치를 그 중심에 두는 용어이며, 다분야 간에 걸쳐 있고, 해석의 범위가 넓어 그 개념에 대해 오해와 편견, 많은 논쟁을 낳을 수 있다고 진단한 바 있다.

김연금 외(2012)는 2가지 측면으로 커뮤니티디자인의 개념을 서술하였다. 이는 지리적 접근성을 공통점으로 가진 개인이 밀집하여 거주하는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커뮤니티디자인과 1960년대 미국에서 사회운동으로 시작되어 커뮤니티의 참여, 민주적 의사결정, 소통, 협력 등을 중시하는 운동으로서의 커뮤니티디자인으로 구분된다. 또한, 커뮤니티디자인은 물리적 환경과 지역사회 여러 제반문제와의 관계를 중시하고, 참여를 커뮤니티디자인의 핵심으로 본다. 이를 위해 소통방식과 소통증진을 위한 다양한 참여기법이 개발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커뮤니티 디자이너의 미적인 관심과 커뮤니티의 요구가 반영되어 이 관계를 서로 길항관계로 보는 경우가 있고, 디자이너의 역할이 촉진자로 연결되는 등의 현재 논의 되고 있는 커뮤니티 디자이너의 특징과 현황을 제시하였다.

커뮤니티디자인(Community design)

· 커뮤니티디자인의 용어사용
- 현재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지역의 자원을 활용해 마을을 가꾸고 관리해 나가는 사업들)에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음
- 커뮤니티디자인의 개념 및 지향가치에 대한 체계적 논의 없이 현장 중심적으로 용어 사용, 확산

· 커뮤니티디자인의 관련 논의들
- 지리적 접근성이라는 공통점을 가진 개인이 밀집하여 거주하는 지역에 대한 디자인
- 1960년대 미국에서 사회운동으로 시작되어 커뮤니티 참여, 민주적 의사결정, 소통, 협력 등을 중시하는 운동
- 물리적 환경과 지역사회 여러 제반문제와의 관계를 중시
- 커뮤니티디자인의 핵심은 커뮤니티의 참여
- 커뮤니티와의 소통방식 / 커뮤니티와의 소통증진을 위한 다양한 참여기법의 개발
- 미적인 질을 중시하는 디자이너의 태도와 커뮤니티 요구반영 간 길항관계
- 커뮤니티디자인의 촉진자로서의 디자이너의 역할 등

[표 6] 커뮤니티디자인의 현 주소

16. '옵티컬 아트(optical art)'의 약칭으로서 기하학적 형태나 색채의 장력을 이용하여 시각적 착각을 다룬 추상미술, 박연선, 2007, 색채용어사전, 도서출판예림
17. 움직이는 예술, 어떠한 수단이나 방법에 의하여 움직임을 나타내는 작품의 총칭, 한국사전연구사, 1998, 미술대사전(용어편)
18. 기술공학적인 조각 또는 관람자의 접근이나 소음 등 외부의 자극에 반응하는 예술작품, 두산백과
19. 195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에 행해진 비연극적이고 탈영역적인 연극형식, 한국사전연구사, 1998, 미술대사전(용어편)
20. 낙서, 벽화 등 거리에서 하는 미술을 포괄함, 위키백과
21. 월간미술, 1999, 세계미술용어사전

22. 유사용어로 미국에서는 공공사업(public work), 영국에서는 도시디자인(urban design) 또는 환경디자인(environmental design)으로 사용한다.

23. 공공디자인은 법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제작·설치·운영·관리하는 것으로 국민이 사용하거나, 국가 및 지자체가 직접 사용하는 공간, 시설, 용품, 정보 등의 심미적, 상징적, 기능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창조적 행위로 정의되고 있다(공공디자인 법률안 제1장 총칙 제2조(06.11.08 발의) 정의).
24.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1, 창조적 지역발전전략
25. 강현주, 2006, 공공디자인의 의미와 디자이너의 역할, 한국공공디자인학회

참여미술(participatory art, 參與美術)은 1945년 이후 등장한 용어로 전위미술가들이 관객들을 작업에 참여시키기 위해 오브제를 창조하고, 구성된 상황을 만들어내면서 등장하였다. 이러한 참여적 경향은 전통적인 유화보다는 시각과 활발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옵아트(op art)[16], 관객의 움직임을 이용하는 키네틱아트(kinetic art)[17], 관객의 소리에 응답하는 사이버네틱 아트(cybernetic art)[18], 관중이 때로는 필수적인 존재가 되는 해프닝(happening)[19]과 거리미술[20] 등에서 찾을 수 있다.[21]

이렇듯 참여미술은 장소나 지역 등과는 상관없이 관객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 작품을 표현하는 방법적 시도라 할 수 있다. 이는 작품을 만드는 과정 뿐 아니라 작품을 다양한 방식으로 관람하는 관객참여도 포함된다. 관객참여를 통해 다양한 미술적 시도 안에서 시각예술은 거리미술 등 일부에만 해당된다. 그러므로 공공미술사업은 표현방법 및 대상에 따라 공공공간에서 진행되는 참여미술의 한 형태라 지칭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근본적으로 공공미술은 작품이 설치될 장소의 실제적 주인인 대중을 위한 예술이다. 대중은 참여를 통해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하게 되고, 변화를 이끌어낸다. 그러므로 작가의 의도를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관객을 참여시키는 참여미술과는 근본적으로 목적과 의미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공공디자인(Public Design)이라는 용어는 최근 한국에서 등장한 신조어로 위키피디아에서도 그 정의를 찾아보기 어려운 한국적 용어이다.[22] 디자인계에서는 공공(환경) 디자인을 '도시, 인간 디자인이라는 커다란 범주에서 공공적인 부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 정의한바 있다. 공공디자인은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도시의 공적 영역에 대한 디자인으로서 일반 시민들이 함께 공유하는 디자인이다.[23] 또한, 공공디자인은 공공영역(public sphere)을 구성하고 작동시키는 매개체이면서 이를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미학, 즉 '공공성'을 숙성시키고 표출하는 것이라고 주장되기도 하였다. 또 다른 해석으로는 디자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유무형의 공간 속에 공공을 위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결실을 낳는 환경의 창출이라는 해석이 있다.[24] 한국공공디자인학회는 창립선언문을 통해 공공디자인이 공공의 이익에 봉사하는 디자인이며, 이는 '사회구성원 모두를 위한 세상 만들기'에 초점이 맞추어진 하나의 태도이며 입장[25]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표 7] 공공디자인의 개념

공공디자인
· **'공공디자인'의 사전적 의미** - 공공장소의 여러 장비·장치를 보다 합리적으로 꾸미는 일[27] - 공공영역을 구성하고 작동하는 매개체이면서 이를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미학, 즉 '공공성'을 숙성시키고 표출하는 것 - 유무형의 공간 속에 공공을 위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결실을 낳는 환경의 창출 - 공공의 이익에 봉사하는 디자인 / '사회구성원 모두를 위한 세상 만들기'에 초점이 맞추어진 하나의 태도이며 입장 - 비움과 통합, 더불어 사는 사회의 비전을 충실히 소화하는 것
· **'공공디자인'의 영역** - 협의 : 국가, 지방단체, 공공단체 등이 제작·설치·운영·관리 하는 도시기반시설, 가로시설물, 각종상징물, 증명서 행정서식 등의 각종 공간, 시설, 용품, 정보와 관련된 디자인 - 광의 : 협의의 개념 외에 사적 소유물이지만 공공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영역의 디자인 (건축물, 간판 등)을 포함[27]

26. 두산백과사전
27. 문화체육관광부 공간문화 웹 www.publicdesign.go.kr

이렇게 공공디자인은 공간, 사람 등 '공공의 영역'을 바탕으로 공공미술과 동일한 범위 안에서의 활동을 지칭한다.

문화관광부(2006)의 연구에서는 공공미술과 공공디자인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으나, 공공미술의 개념 또한 공공디자인을 포함한 넓은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매체와 장르를 넘어서 공공영역을 아름답고 쾌적하게 만드는 목적성을 고려할 때 공공미술과 공공디자인은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공공미술과 공공디자인 간의 차이를 명확하게 하기보다는 그 목표 및 성과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서 통합적 실행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밖에도 문화디자인, 마을 만들기 등의 용어는 사전적의미로 정의 내려져있지 않지만, 커뮤니티를 실천하는 방식 중 하나로 새로이 등장한 용어이다. 이는 지역의 자원을 바탕으로 지역주민과의 소통과 참여를 통해 쾌적한 공간과 문화를 만들어나간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러한 활동은 전국 각지에서 진행되는 만큼 지역자원의 특성, 주민의 참여도 등에 따라 접근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지역의 정체성 회복이나 환경개선, 문화예술을 통한 주민의 창의성 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공공미술적 접근과 시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경우가 많다.

또한 사업을 기획하고 진행할 때 위의 공공미술, 커뮤니티아트, 커뮤니티디자인, 참여미술, 공공디자인 등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의미와 형태적 시도를 보이며, 영역적 한계를 벗어나 다양한 실험적 시도를 통해 보다 발전하고 변화하는 추세다.



2. 공공미술 정책 및 제도

우리나라 공공미술 정책 및 제도의 변화와 현 주소

우리나라 공공미술 정책 및 제도는 첫째, 도시의 문화환경을 개선하고 문화예술을 진흥하기위해 1972년에 도입된 건축물미술작품제도(구 건축물미술장식제도)와 둘째, 2000년대부터 시작된 공공미술사업 등 뉴장르 공공미술 형태로서의 공공미술사업,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서술할 수 있다.

(1) 건축물미술작품제도

건축물미술작품제도의 변화과정

건축물미술작품제도는 1972년 신설된 문화예술진흥법에 대한 일종의 퍼센트법으로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조항이 만들어지면서 시작되었으며, 이후 변화과정(권장시기→의무화시기→규제완화시기→기금제도입기)을 거치면서 현재의 건축물미술작품제도로 정착되었다. 현재의 건축물미술작품제도가 정착되기까지의 그 배경 및 제도, 관련법의 변화과정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28]와 같다.

공공미술포털(www.publicart.or.kr)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건축물미술작품제도를 통해 1995년부터 2013년 현재까지 총 13,484개의 작품이 전국에 걸쳐 설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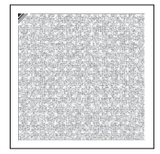
28.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2, 건축물미술작품제도 개선현황 및 출연기금 분배방안 연구

[표 8] 건축물 미술작품제도 (구 건축물 미술장식제도) 추진배경 및 현황

단계	주요 제도내용
권장시기 [1972~ 1994년]	· 1972년 8월 문화예술진흥법과 시행령에서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대해 건축비의 1% 이상을 미술장식에 사용하도록 하는 조항, 신설, 권장사항으로 규정 · 1982년 6월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조항이 신설 · 1984년 서울시 '건축조례'에 의무사항으로 규정 · 1988년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서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기준이 완화되어 연면적 7천 제곱미터 이상(서울시는 1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대해 건축비의 1% 이상을 미술장식에 사용하도록 권장함
의무화시기 [1995 ~ 1999년]	· 1995년 7월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선정,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가 권장에서 의무로 개정되어 1995년 7월 13일부터 시행(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대해 건축비의 1% 이상을 미술장식에 사용하도록 의무화) · 1997년 공정거래 위원회 규제 개혁 작업단이 건축물미술장식제도를 민간의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건축규제로 분류, 이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문화부에 요구
규제완화시기 [2000 ~ 2011년]	· 2000년 문화예술진흥법의 건축물미술작품 관련 조항 제11조 개정으로 인해 건축물 미술장식 비용을 건축비의 1%이상에서 1%이하로 낮추는 규제 완화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이후 미술장식비용은 0.7%에 머물고 있음
기금제도입기 [2011 ~ 현재]	· 2011년 5월 문화예술진흥법의 건축물미술작품 관련 조항 제9조 개정을 통해 '미술장식'이라는 용어가 '미술작품'으로 변경되었으며 건축주가 미술작품을 직접 설치하는 대신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선택적 기금제가 도입

[표 9] 문화예술진흥법 건축물미술 장식제도 관련 법 변화과정

시행	1972. 8. 14 [법률 제2337호, 1972.8.14, 제정]	1987. 11. 28 [법률 제3592호, 1982.12.28, 일부개정]	1995. 7. 9 [법률 제4883호, 1995.1.5, 전부개정]	2000. 7. 13 [법률 제6132호, 2000.1.12, 일부개정]	2011. 11. 26 [법률 제10725호, 2011.05.25, 일부개정]
장	-	-	제3장 문화예술공간의 설치	제3장 문화예술공간의 설치	제2장 문화예술공간의 설치
조	제13조	제13조	제11조	제11조	제9조
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에 대하여 그 건축비용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조각 등의 미술장식에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건축에 대하여 그 건축비용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조각 등의 미술장식에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형 건축물의 건축에 대하여 공연장 또는 전시장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그 건축비용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조각 등의 미술장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 지역의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을 100분의 1 이하로 할 수 있다.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그 건축비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조각 등 미술장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금액은 건축비용의 100분의 1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의 설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 (이하 '건축주'라 한다)는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조각·공예 등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건축주(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 작품의 설치에 사용하는 신에 제 16조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 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건축비용의 10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 10] (개정)문화예술진흥법

건축물미술작품제도의 현 주소

1972년부터 지속적인 변경과 발전을 거쳐 2013년 현재 개정된 건축물미술작품제도의 내용 및 현황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 (개정)문화예술진흥법 및 시행령

문화예술진흥법 [시행 2012.8.18]
[법률 제11313호, 2012.2.17, 일부개정]

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는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조각·공예 등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건축주(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는 대신에 제 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건축비용의 10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①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4. 제9조 제2항에 따른 건축주의 출연

[표 11]
(개정)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1. 11. 26]
[법률 제233318호, 2011. 11. 25, 일부개정]

제12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① (생략)<개정 2008. 6. 11, 2009. 7.16, 2011. 11.25>
1. 공동주택(기숙사 및·임대주택법·에 따른 공공건설 임대주택은 제외한다)
2. ~10. (생략)
② 법 제9조 제1항에서 "건축"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2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축 및 증축을 말한다.
③ (생략)
④ 법 제9조에서 "미술작품"이란 제13조에 따라 감정 또는 평가를 거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1. 11. 25>
1.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서예, 벽화, 미디어아트 등 조형예술물
2. 분수대 등 미술작품으로 인정할만한 공공조형물
⑤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하는 금액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11. 11. 25>
⑥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한다)에 출연하는 금액은 별표 2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1.11.25> [제목개정 2011.11.25]

제13조(미술작품의 설치절차·방법)
①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주가 건축물에 미술작품을 설치하려면 해당 건축물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5>
② (생략)
③ 시·도지사는 <건축법>제22조에 따라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하기 전에 미술작품이 제2항의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25>
④ 미술작품의 설치절차 등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11.25> [제목개정 2011.1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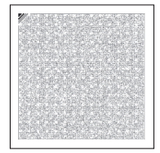
제13조의2(기금출연의 절차·방법) ① 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제 12조 제6항의 금액을 기금에 출연하려는 건축주(이하 이 조에서 "건축주"라 한다)는 별지 제5호 서식의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계획서를 시·도지사 및 법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라 한다)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축주는 <건축법>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 승인 신청 전까지 기금에 출연하여야 하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건축주가 제12조 제6항에 따른 금액의 출연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 출연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의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확인서를 건축주에게 발급하고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1.25]

제14조(미술작품심의위원회) ① 시·도지사는 제13조 제2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위하여 미술·건축·환경·공간디자인·도시계획분야 등의 전문가 및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미술작품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분야 전문가를 3분의 2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1.11.25>
② 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11.25>
1. 미술작품의 가격
2. 미술작품의 예술성
3. 미술작품과 건축물 및 환경의 조화
4. 미술작품에 대한 접근성
5. 그 밖에 미술작품의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등
③ (생략)
④ (생략)

제15조 (생략)

제15조의2(미술작품 관리대장의 작성·관리) 시·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라 해당 시·도에 설치된 미술작품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미술작품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1.25]

제27조 (생략)



29.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1, 도시계획과 연계한 공공미술 추진방안 연구

3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9, 공공미술 진흥사업 운영방안 연구

(2) 공공미술사업

우리나라 공공미술사업의 변화과정

우리나라는 2000년대에 이르러 기존 미술장식제도의 문제와 한계를 본격적으로 인식하면서 제도 개선의 기반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2004년 참여정부시절, 제도 개선을 위한 첫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이후 논란 속에서도 공공미술 제도 도입의 당위성을 점차 확대해 나갔다. 이렇게 2000년대부터 활성화되기 시작한 공공미술사업은 초창기 민간에 의해 주도적으로 진행되는 추세였으나, 하반기로 들어서면서 정부, 지자체 주체의 대규모 프로젝트가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진행된 공공미술사업은 2006년 문화관광부(현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공공미술추진위원회 주관으로 진행한 '아트 인 시티(Art in City)' <소외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미술 사업>이 있고, 2009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진행되고 있는 '마을미술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서울문화재단에서 해마다 진행하는 '놀이터 프로젝트'나 인천문화재단의 '교문 바꾸기', 경기미술관의 컨테이너로 만든 '공공도서관', 서울디자인재단의'도시갤러리 프로젝트' 등이 있으며,[29] 현재까지 전국에 걸쳐 다양한 공공미술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장르의 공공미술은 정부(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하는 공공미술사업 뿐 아니라 지자체, 민간 등 다양한 주체에서 진행되었고,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 현황을 명확하게 파악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우리나라 공공미술사업의 변화과정에 있어 대표적 사업은 관련부처에 작성한 선행연구[30]를 참고하여 정리하였고, 그밖에 문헌 및 보도자료, 해당 부처 및 지자체 홈페이지, 전화인터뷰 등을 통해 사업의 주요 내용을 파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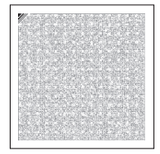
· 정부 추진 공공미술사업

'아트 인 시티(Art in City)'의 원래사업명은 <소외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미술사업>으로, 경제·사회·문화적 소외계층이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지역의 생활환경을 미술을 통해 개선하여 문화적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진행된 사업이다. 자체평가에 따르면 인본주의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수용자 지향적인 공모사업의 새로운 모델을 창출하였다. 또한 100여 명이 넘는 미술가들에게 창작기회를 제공하여 공공미술 지원 사업 확산에 기여했다는 것을 성과로 지적하고 있다.

'마을미술프로젝트'는 2009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과제 중 하나인 예술뉴딜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생겨났다. 이 사업은 미술문화의 대중화로 공공미술 활성화를 가장 큰 목표로 하고 있다. 지역미술가들에게 창작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예술분야의 일자리를 창출 하고, 소외지역 주민들에게 생활 속에서 미술작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제공과 함께 지역과 생활공간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2009년 사업계획 당시에는 단년도 사업으로 시작하였으나, 기대 이상의 좋은 반응을 보여 지속적 사업이 되었고 현재도 사업이 진행 중이다.

[표 12] 정부 추진 대표적 공공미술사업 현황

사업명	주요 내용
아트인시티 (Art in City)	· 주최 : 문화관광부(현 문화체육관광부) · 주관 : 공공미술추진위원회 · 기간 : 2006~2007 · 소요예산 : 27억 원(복권기금) · 사업지역 : 전국 31개소 · 사업내용 - 기획공모사업 : 위원회가 주제를 정한 후 작가 선정 - 일반공모사업 : 소외지역 주민의 신청을 받아 장소선정, 이후 작가선정의 과정을 거쳐 공공미술사업 수행 - 지속사업 : 2006년 평가결과 우수한 사업을 선정하여 추가 지원
마을미술 프로젝트	·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 주관 : 마을미술프로젝트 추진위원회 · 기간 : 2009~현재 · 소요예산 : 2009년 20억 원(복권기금) / 2010년 24억 9천 8백만 원(국비 15억+지방비 9억9천8백만 원/ 2011년 29억 4천 6백만 원(국비 18억 원 + 지방비)/ 2012년 23억 원 (국비 13억+지방비 10억 원) · 사업지역 : 전국 21개소(2009년) / 전국 15개(2010년)/ 전국 10개 지역(2011년)/ 전국 11개 지역(2012년) · 사업내용 - 우리 동네 미술공간 만들기 (2009) :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등 공동체 공간 꾸미기 길섶 미술로 꾸미기 : 산책로나 골목길을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드는 사업 공공미술 꽃피우기 : 공공의 예술담장 만들기, 테마가 있는 공공미술 - 우리동네 문화소동(2010) 테마이야기 : 지역의 역사·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재활용 통한 환경 친화적 기획 - 행복프로젝트(2011) : 종합적 기획을 통한 대규모 마을 조성 기쁨 두배 프로젝트 : 이전 사업지 중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곳에 추가지원 테마이야기 : 재활용 활용한 창작 작품 활용/ 지역의 정체성을 문화콘텐츠로 활용 - 행복프로젝트(2012) : 종합적 기획을 통한 대규모 마을 조성 기쁨 두 배 프로젝트 : 이전 사업지 중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곳에 추가지원 예술의 정원 : 마을이야기와 생태를 주제로 한 프로젝트



· 지자체 추진 공공미술사업

지방자치제가 시작된 90년대 이후부터 각 지역의 지자체는 지역의 이미지제고와 경제 활성화 등의 목적을 위해 지역의 특성을 활용한 축제를 개최하는 등 많은 문화행사를 시도하고 있다.

교통수단의 발달로 도시 간의 이동이 편리해지고 주 5일 근무 등 여가활동의 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시민들은 자신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며 문화예술의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요구를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각 지자체들은 특색 있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공공미술, 공공디자인 등에 주목한 여러 가지 문화예술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2000년대에는 공공미술프로젝트가 급속히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특히 2000년대 중반부터 서울과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기초단위 지자체의 사업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일부의 광역시 및 기초 단위 지자체에서는 문화재단을 신설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지원 정책으로 공공미술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자체가 주체가 되어 공공미술 사업을 추진한 대표적 사례는 안양과 서울 등이다. 이 중 안양시는 아름답고 품격 있는 예술도시를 만들기 위해 2002년부터 '안양 아트시티 21'시책을 추진하였고, 2005년에 안양공공예술추진위원회를 조직하여 현재까지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안양시의 사례는 기존 조각 공원의 형태에서 진일보하여 미술은 물론 건축, 디자인, 조경을 아우르는 공공미술프로젝트로 도시계획 속 공공미술의 진일보한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는 반면 장소특정성이 실종된 명품 위주, 해외작가 위주로 흐르는 점은 극복해야 할 과제로 평가받고 있다.

서울시의 사례는 서울을 문화적 경쟁력이 있는 도시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바탕으로 디자인사업본부 산하의 도시갤러리 추진단이 자리하면서 진행한 도시 갤러리 프로젝트이다. 이 사업은 프로젝트의 구성 및 뉴장르 공공미술, 공공장소 속의 미술, 공공디자인적 표현 등이 공존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평가되고 있다.[31]

3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1, 도시계획과 연계한 공공미술 추진방안 연구

[표 13] 지자체 추진 대표적 공공미술사업 현황

사업명	주요 내용
안양시 안양공공 예술프로젝트	· 추진목적 및 가치 : 아름답고 품격 있는 도시 건설을 위해 건축, 조경, 미술 등이 결합된 공공예술 도입의 필요 · 주최 : 안양시 · 주관 : 안양문화예술재단(2007년 안양공공예술재단 설립, 2011년 안양문화예술재단으로 흡수, 통합) · 기간 : 2005~계속 · 사업내용 - 초기에는 격년으로 (1회 2005년, 2회 2007년) 개최되다가 3회부터 (2010년)부터 3개년사업으로 전환 -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사업 추진 - 안양시가 위탁하는 공공예술사업 추진 - 제1회(2005)'역동적 균형', 제2회(2007)'전유, 재생, 전환', 제3회(2010)'새동네-열린 도시 안에서'
서울특별시 도시갤러리 프로젝트	· 추진목적 및 가치 -"한걸음 더 가까이, 한걸음 더 멀리(seoul city gallery, one more step!)" - 창의와 문화가 시민들의 일상 속으로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서고, 도시를 작품으로, 삶을 예술로 만드는 공공미술의 지향을 반영 · 주최 : 서울특별시 · 주관 : 공공미술위원회, 도시갤러리 추진단 · 기간 : 2007년~ 계속 · 사업내용 - 2007년 시범사업에서는 5개의 주제에 따라 25개의 프로젝트 진행 - 2008년 4개 주제에 따라 14개 프로젝트 선정하여 지원 - 2009년~2012년 프로젝트는 사업이 축소되어 1~2개 사업 진행
성남시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 추진목적 및 가치 : 성남시 5대 역점과제 중 하나인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정책의 일환으로 시범사업 추진 · 주최 : 성남시 · 주관 : 성남문화재단 · 기간 : 2006~2008 · 사업내용 - 골목길, 아파트, 공단, 시장 등 5개 영역을 개발하여 연차적으로 사업 수행 - 1단계는 2006년부터 3년에 거쳐 유형별로 시범사업 추진, 2009년부터 5년간 사업 확산을 위한 지원 시스템 구축하고 동네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



32. 문화관광부, 2006, 공공미술이 도시를 바꾼다, 문화관광부

3. 공공미술의 분류

공공미술의 다양한 분류체계

오늘날 공공미술은 여러 기관 및 주체에서 시도되고 있으며 표현방법 및 매체, 목적 또한 매우 다양하다. 공공미술은 설치되는 장소와 목적, 주체와 전략에 따라 적합한 매체와 방법을 선택한다. 새로운 요구와 전략에 따라 그에 적합한 매체와 방법을 탐색, 등장하기도 한다.[32] 따라서 오늘날 공공미술의 매체와 형태 등을 한정지을 수는 없으나 공공미술 사업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국내 공공미술 사업의 경향을 파악하고, 다양한 분류체계를 마련하여 효과적인 유형화와 체계적인 분석을 통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에, 공공미술과 관련된 여러 문헌을 검토하여 공공미술사업 실행의 다각적 접근을 검토하여 유형화를 위한 분류체계를 대략적으로나마 마련하고자한다.

(1) 제작주체에 따른 분류

양현미 외(1999)는 공공미술의 의미 및 범위를 관이 제작한 미술작품뿐만 아니라 미술가나 미술단체, 기업, 지역주민,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에 의존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조성한 미술작품을 포괄하는 것으로 지칭한바 있다. 국내 공공미술사업 제도의 성장발판은 건축물미술작품제도 도입과 발전뿐만이 아니다. 민간단체에서 시도하는 다양한 공공미술 활동은 젊은 공공미술기획자 주체의 공공미술 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실험을 계기로 공공미술분야 및 산업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건축물미술작품제도의 도입과 발전 그리고 젊은 공공미술기획자 집단 주체가 시행하는 공공미술의 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실험은 공공미술사업과 제도의 발전을 불러온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현재 민간단체에서 시도하는 다양한 공공미술 활동이 국내 공공미술 분야 및 산업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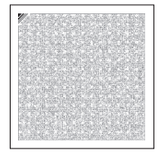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공공미술의 제작주체를 크게 정부기관, 지자체, 민간으로 구분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2013년 현재 정부조직은 17부3처17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공미술적 성격을 지닌 다양한 프로젝트는 대부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행하고 있다. 대부분 정부기관이 주최하고, 산하기관이 주관하거나, 정부기관과 산하기관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형태로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후원을 받아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주로 대상지역에 기반을 둔 단체·기관·시설 및 주민조직을 지원하여 문화소외지역의 주민에게 문화예술향유의 기회를 제공하여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하는 공공미술사업은 정부기관에서 주최하는 다양한 공공미술 사업에 공모하여 당선,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현재 서울시, 안양시를 비롯한 많은 지자체는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으로 다양한 공공미술사업을 기획,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진행하는 지자체의 공공미술사업은 해당 도시의 비전 및 방향성에 따라 사업계획안 및 작품제안서를 모집하고, 심사와 심의를 거쳐 제작 및 설치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그러나 특정마을의 정체성 확립 및 노후 환경개선, 관광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지자체에서 전문가 및 전문 업체의 자문, 용역 등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민간주체 공공미술은 시민단체 및 공동체, 마을 등이 주최하고 민간예술단체 및 전문가가 주관하여 진행되는 프로젝트 형태로 지역주민의 요구나 공동체 활성화를 목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표 14] 공공미술사업의 주체별 운영형태

구분	주요 내용
정부기관	· 주최 - 정부기관(문화체육관광부, 중소기업청 등) / 산하기관(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공동 - 정부기관 / 산하기관 / 지자체 공동 - 정부기관(주로 문화체육관광부) · 주관 : 산하기관(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등) · 후원 : 정부기관 (주로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 지원대상 : 대상지역에 기반을 둔 단체·기관·시설 및 주민조직 · 수혜대상 : 문화소외지역 주민(상인 포함)
지자체	· 주최 - 지방자치단체 / 산하기관(재단, 해당사업본부 등) 공동 - 지방자치단체 · 주관 : 시민단체 / 민간예술단체 및 전문가 · 지원대상 : 대상지역에 기반을 둔 단체·기관·시설 및 주민조직, 민간예술단체 및 전문가 등 다양 · 수혜대상 : 주민(상인 포함), 방문객 등 다양
민간	· 주최 : 시민단체, 공동체, 마을 등 · 주관 : 민간예술단체 및 전문가 · 지원대상 : 민간예술단체 및 전문가 · 수혜대상 : 주민(상인 포함), 방문객 등 다양



(2) 제작목적 및 활용에 따른 분류

공공미술이라는 개념은 미술작품의 대중적 향유의 필요성 인식에서 시작하여 시대적 변화에 따라 기능과 목적, 사회와의 관계성, 소통하는 대상 등 그 역할이나 기능이 지속적으로 확대·발전하며 달라졌다. 복잡하고 다양한 현대사회 속에서 현재의 공공미술사업은 다양한 목적성을 바탕으로 기획, 실행된다. 그러므로 공공미술의 다양한 제작 목적을 파악하고 이를 유형화하여 사례분석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우선 문화관광부(2006)의 연구를 비롯하여 공공미술 관련문헌자료를 바탕으로 공공미술의 다양한 목적 및 혜택, 효과들을 살펴보았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공공미술의 다양한 목적 및 효과를 정신(정서)적,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각 항목별 효과를 서술하였다.

이밖에도, 김현정(2011)은 공공미술사업은 누구를 위해 하는 것인가라는 존재 당위성에 중점을 두고 장소 마케팅적 관점에서 공공미술사업의 요건을 지역경제 추구형, 지역문화 추구형, 지역통합 추구형의 3가지로 분류하여 사례를 분석하였다.

[표 15] 공공미술의 다양한 목적 및 효과 / 기능

공공미술의 다양한 목적 및 효과 / 기능	저자명(년도)
· 정신적 측면 - 지역민의 자부심, 애향심 고무 · 사회·정치적 측면 - 커뮤니티 네트워크 형성, 사회적·지역적 관심 증가, 인간의 권리 및 사회 정의에 대한 행동 강화, 레저와 여가선택의 다양화, 다른 문화와 생활 방식에 대한 이해증가, 개인과 그룹의 사회적 유대감 강화, 지역 정체성의 개발, 지역 예술 프로젝트의 가치에 대한 이해확산 · 경제적 측면 - 공공과 민간의 투자촉진 및 공공-민간-자발적 섹터의 협업강화, 지역민과 관광객 소비촉진, 고용창출, 고용인 유지와 다양한 인력공급, 재산가치 증가 · 공공미술의 진정한 가치 - 정신적 빈곤의 해소, 지역개발 효과 촉진, 지역주민들의 사회적 융합 증가, 긍정적 삶의 태도와 삶의 질 향상, 지역의 정체성 강화, 문화 민주주의의 실현	문화관광부 (2006)
· 정서적 측면 - 지역 환경 개선을 통한 자존감 회복, 애향심 고취, 지역적 특성 및 정체성 형성을 통한 공동체 문화 부활 · 사회·정치적 측면 - 인구유입 및 교육향상, 정신건강 향상, 범죄감소, 반사회적 행동 감소, 인간적 권리, 사회정의에 대한 행동 강화, 다른 문화와 생활 방식에 대한 이해증가 등 · 문화적 측면 - 문화에 대한 접근성 증대를 통한 문화 민주주의 구현, 문화권 확대를 통한 새로운 관객 개발 · 경제적 측면 - 공공과 민간의 투자촉진, 고용창출, 지역민과 관광객의 소비촉진, 재산가치 증가 등	김혜진 (2010)
· 경제적 혜택 - 공공과 민간의 투자촉진 및 공공·민간·자발적 섹터와의 협업강화, 지역민 및 관광객 소비촉진, 고용 창출, 고용인 유지와 다양한 인력 공급, 재산가치 증가 · 정신적 혜택 - 지역의 역사적 환경의 재생, 지역적 특성과 정체성 형성, 지역민들의 정신과 생활의 긍정적 변화 · 사회적·문화적·정치적 혜택 - 지속적인 가치에 대한 커뮤니티 네트워크 형성, 사회적·지역적 관심에 대한 지역민의 인식증가, 인간의 권리 혹은 사회정의에 대한 행동 강화, 레저와 여가선택의 다양화, 다른 문화와 생활방식에 대한 이해의 증가, 개인과 그룹의 사회적 격리의 경감, 지역 정체성의 개발, 지역 예술프로젝트 가치의 이해 확산	김경욱 (2005)
· 미적기능 - 쾌적함 제공, 문화적 접근성 증대 · 랜드마크(Land mark)기능 - 가치 있는 공간 제공 · 실용적기능 - 문화적 투자를 통한 고용촉진, 경제회복, 지역적 독특성을 통한 관광객 유치 등 경제적 효과 · 공간조절 기능 - 인구유입, 교육향상, 건강향상, 범죄감소, 반사회적 행동 감소	김주연 외 (2010)
· 장소마케팅을 위한 전략 유형 - 지역경제 추구형(경제적 장소마케팅) / 지역문화 추구형(문화적 장소마케팅) / 지역통합 추구형(정치적 장소마케팅)	김현정 (2011)



33. 오승희 외, 2011, 변화와 확장을 통한 공공미술 사례분석,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제6권 제1호 통권15호 pp75~82

(3) 형태적(매체에 따른) 분류

공공미술의 형태적(매체에 따른) 분류는 다양한 미술적 표현에서 가장 일반적인 분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의 공공미술은 전통적인 벽화에서부터 현대적인 영상이나 뉴미디어 그리고 행동주의적 실천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 때문에 오늘날 공공미술의 매체와 방법에 대해 모두 제시하는 것이 쉽지 않다. 문화관광부(2006)는 공공미술의 발전과정에서 어떠한 물질적 조건과 조형적 전략을 바탕으로 그것을 사회적인 언어로 형성해내는지를 5가지 매체로 분류하여 대표적인 것을 표현하였다.

미술장식심의위원회에서는 미술장식을 조각, 회화, 서예, 공예, 사진, 벽화, 분수대, 상징조형물, 미디어아트, 동상, 기념비로 분류하고 있다[33]. 이 밖에도 건축물미술작품제도에 대한 소개와 이 제도를 통해 제작, 설치된 미술작품의 현황을 보여주는 공공미술포털에서는 공공미술작품을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서예, 벽화, 미디어, 분수대, 상징탑, 기타의 11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분류, 정리하였다.

[표 16] 공공미술의 형태(매체)에 따른 다양한 분류

공공미술의 형태(매체)에 따른 다양한 분류	저자명(년도)
· **벽화와 환경 그래픽** (벽화 중 그래피티(Graffiti)는 커뮤니티아트로 따로 분류하여 구분하였다.) · **조각과 환경예술** · **디자인** (디자인은 매체라기보다는 하나의 개념이기는 하나, 디자인과 공공영역이 만나는 공공디자인(Public Design)을 제시했다. 공공미술과 공공디자인의 경계는 뚜렷하지 않으나 공공미술의 개념 또한 공공디자인을 포함한 넓은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고, 매체와 장르를 넘어서 공공영역을 아름답고 쾌적하게 만드는 목적성을 고려할 때 공공미술과 공공디자인은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 공공공간 디자인(Public Space Design): 도시경관, 공공건물, 도로, 공개공지, 역사 공간, 특별지역, 도시색채계획, 야간조명계획 - 공공정보 디자인(Public Information Design): 국가 기구 상징물, 국가 행사 상징물, 국가 인증물, 국가 정보 시스템, 정부 간행물과 포스터, 지자체 상징물, 교통 안내 시스템, 관광정보 시스템, 옥외 광고물 - 공공용품 디자인(Public Supplies Design): 공공기관용품, 공공 서식류, 국가조직 통합물, 공공관리용품 · **영상과 뉴미디어** · **행동주의(Activism)** (새로운 장르 공공미술(New Genre Public Art)이라 불리는 실천의 많은 부분이 이러한 행동주의에 속한다고 제시하였다.)	문화관광부 (2006)
조각 / 회화 / 서예 / 공예 / 사진 / 벽화 / 분수대 / 상징조형물 / 미디어아트 / 동상 / 기념비	오승희 외 (2011)
회화 / 조각 / 공예 / 사진 / 서예 / 벽화 / 미디어 / 분수대 / 상징탑 / 기타	공공미술포털

또한 건축물미술작품제도의 변화과정에서 미술작품의 종류가 나열식으로 규정되면서 점차 확대되었고, 1995년에 이르러 조형 예술물과 환경조형물 두 범주로 묶여 분류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34]

34. 강태희, 1998, 건축물 미술장식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문화정책개발원

[표 17] 미술작품 종류의 규정 변화

연도	관련법	특징
1982	문예진흥법 시행령	- 회화, 조각 등 미술장식
1984	서울시건축조례 관련 심의규정	- 조각 : 창작조각물, 모뉴먼트 - 회화 : 벽화, 천장화 - 문양 : 고유문양, 그래픽 디자인 - 기타 : 조경, 공예품, 분수, 시계탑
1989	서울시 건축조례	- 조각, 회화, 벽화, 부조 - 기타 환경조형물
1993	서울시 구 건축조례	- 회화, 조각, 조형시설물 - 부조, 벽화, 사진, 공예, 서예 등
1995	문예진흥법 시행령	-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서예 등 조형예술물 - 벽화, 분수대, 상징탑 등 환경조형물

4. 공공미술의 변화와 확장

(1) 공공미술 개념과 영역의 확장

공공미술은 '대중들을 위한 미술'을 뜻하는 미술용어로 초기에는 단순히 도시의 공원에 있는 환경조각이나 벽화 등을 지칭하였으나, 공공성과 미술의 만남에서 '공공성'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대한 의문을 통해 다양한 해석과 개념적 정의가 이루어져왔다. 국내외 공공미술 관련 정책과 제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면서 공공미술의 설치목적 및 접근방법, 표현매체가 점차 변화하고 확장하였다. 이는 과거 단순한 기념비적인 성격이나 미적가치를 제고하는 부분에 머물렀던 공공미술이 점점 도시계획 및 도시 디자인적 의미와 영역으로 확대되고, 시민간의 커뮤니케이션과 시민문화공동체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점차 변화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또한 최근 들어 공공미술의 다양한 가능성에 대한 시도가 활발해져 전국 각지에서 커뮤니티아트, 커뮤니티디자인, 참여미술, 공공디자인, 문화디자인 등 다양한 용어로 표현된 공공미술과 유사한 작품 및 커뮤니티활동, 사업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2) 공공미술 정책 및 제도의 변화

우리나라 공공미술 정책은 건축물미술작품제도(구 건축물미술 장식제도)의 발전과 관련이 있으며, 일정면적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건축비의 일부를 미술작품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권장하는데서 시작하였다. 의무화, 규제완화를 거쳐 현재는 선택적 기금제(건축주가 미술작품을 직접 설치하는 대신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기존 미술장식제도의 문제와 한계를 인식하면서 공공미술제도 도입의 당위성이 점차 확산되었고, 민간에 의해 주도적으로 진행되던 공공미술사업이 정부 및 지자체 사업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불러왔다.

현재 전국에서 시행 중인 다양한 공공미술사업들은 단순 환경개선이 아닌 문화 접근성 증대, 주민개개인의 변화유도, 공동체문화 형성, 장소마케팅 등 다양한 목적을 바탕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점차 활용 매체 및 표현방법이 다양화됨과 동시에 주민 소통과 협력을 통한 다양한 가능성이 실험, 시도되고 있다.

2012 공공미술 연례 보고서

3장 건축물미술작품 (2010~2012)

1. 건축물미술작품
2. 건축물미술작품 설치현황 및 경향 분석 (2010~2012)
3. 건축물미술작품 기금출현 현황 분석 (2011~2012)
4. 기금출연 사유 및 요구분석

1. 건축물미술작품

(1) 건축물미술작품 개요

건축물미술작품은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신·증축하는 일정한 용도의 건축물에 건축비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거나 직접설치 비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하도록 한 제도이다. 2011년 관련법령 개정으로 이전의 '미술장식'이 '미술작품'으로 대체되었으며, 건축주가 작품을 직접 설치하는 대신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기금제가 도입되어 운영 중이다.

이는 현행법상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건축물미술작품 설치 의무화 및 해당 건축비용의 비율, 기금출연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다. 이외에 미술작품의 설치절차 및 방법, 기금출연의 절차 및 방법, 미술작품심의위원회 등에 따른 사항은 시행령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시행령과 관련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하고 있다.

(2) 건축물미술작품의 설치절차 및 방법

직접설치는 건축주가 시·도지사의 설치의무 고지에 따라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미술작품 설치계획서를 제출한다. 시·도지사는 미술작품심의위원회에 이를 회부하여 심의를 받도록 하여 건축주에게 감정·평가 결과를 통보한다. 이를 토대로 미술작품 설치 확인 후 건축물의 사용을 승인하는 절차로 진행한다.

기금출연은 해당비용을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납부하는 제도로 직접설치에 비해 절차가 비교적 간편하고 준비기간이 짧다. 이외에도 건축물미술작품제도에 따른 작품 설치현황, 건축물 미술작품제도의 법 개정이후 지자체 운영현황 등 구체적 내용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관련 선행연구[1]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2, 건축물미술작품제도 개선현황 및 출연기금 분배방안연구

.2. 건축물미술작품 설치현황 및 경향 분석 (2010~2012)

· 연도별 건축물미술작품 설치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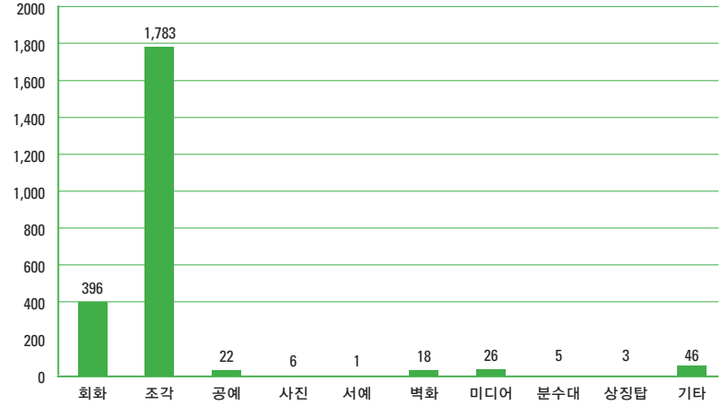
공공미술 포털은 공공미술 매체를 10개로 구분하였다. 건축물미술 작품제도를 통한 작품설치 현황은 최근 3년(2010~2012)년 동안의 기록을 조사·분석하였고, 자료는 공공미술포털에 제시된 정보를 바탕으로 하였다. 최근 3년간 건축물미술작품 설치현황 검토 결과, 설치작품 수에 있어서 조각 작품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회화도 비교적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이는 3년간 지속되는 추세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설치작품 수와 금액은 감소하였는데 이는 건설경기의 침체와 연관이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아주 미묘한 차이이기는 하나 대부분 공공미술 매체의 설치 수가 감소한 반면, 미디어의 설치 수는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18] 연도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작품분류										계	
년도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서예	벽화	미디어	분수대	상징탑	기타	수량	가격
총계	396	1,783	22	6	1	18	26	5	3	46	2,306	240,169
	15,760	208,009	1,789	113	13	1,704	5,937	1,213	580	5,193		
2010	131	733	10	0	1	7	3	3	0	6	894	93,040
	6,610	82,046	1,011	0	13	716	1,814	383	0	444		
2011	127	600	10	4	0	7	12	1	3	29	793	85,078
	4,139	73,804	488	83	0	486	2,601	290	580	2,604		
2012	138	450	2	2	0	4	11	1	0	11	619	62,050
	4,865	52,158	290	30	0	500	1,521	540	0	2,145		

(자료 : 공공미술포털 www.publicart.or.kr)



· 지역별 건축물미술작품 설치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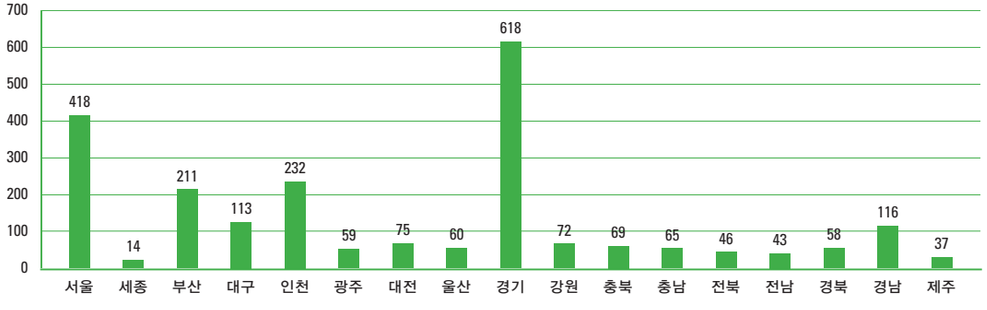
최근3년(2010~2012년) 동안의 지역별 작품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작품설치 수에 있어서 서울(418)과 경기(618)지역이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인천(232), 경남(116), 대구(113)도 비교적 높은 설치율을 보이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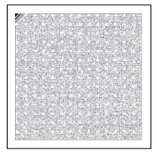
작품설치 수의 연도별 변화는 서울과 대구, 인천, 대전, 경기, 충남, 전남, 경북, 제주 지역은 작품 설치수가 감소한 반면, 부산과 세종시, 충북, 전북지역은 작품설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19] 지역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현황

구분	지역분류																
년도	서울	세종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총계	418	14	211	113	232	59	75	60	618	72	69	65	46	43	58	116	37
2010	179	0	39	46	70	21	19	26	251	32	46	24	4	17	35	79	6
2011	178	5	61	49	85	21	36	13	203	21	5	23	12	18	20	18	25
2012	61	9	111	18	77	17	20	21	164	19	18	18	30	8	3	19	6

(자료 : 공공미술포털 www.publicart.or.kr)





· 용도별 건축물미술작품 설치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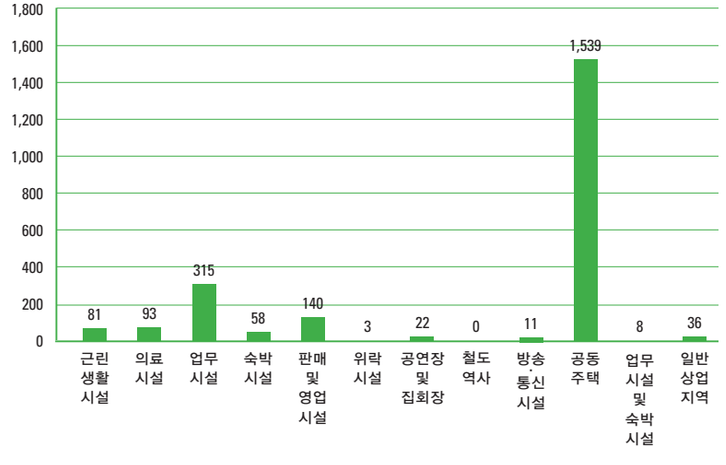
용도별 작품설치 비율 또한 최근 3년간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이 중 공동주택(1,539)이 작품설치의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판매 및 영업시설(140), 업무시설(315)이 뒤를 잇고 있었다.

의료시설의 경우 2012년에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다른 용도의 건축물들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가 특징적이다.

[표 20] 용도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현황

구분	용도분류											
년도	근린 생활 시설	의료 시설	업무 시설	숙박 시설	판매 및 영업 시설	위락 시설	공연장 및 집회장	철도 역사	방송 .통신 시설	공동 주택	업무 시설 및 숙박 시설	일반 상업 지역
총계	81	93	315	58	140	3	22	0	11	1,539	8	36
2010	38	13	85	25	50	1	5	0	1	655	2	19
2011	31	17	155	16	51	2	9	0	8	486	6	12
2012	12	63	75	17	39	0	8	0	2	398	0	5

(자료 : 공공미술포털 www.publicart.or.kr)



· 면적별 건축물미술작품 설치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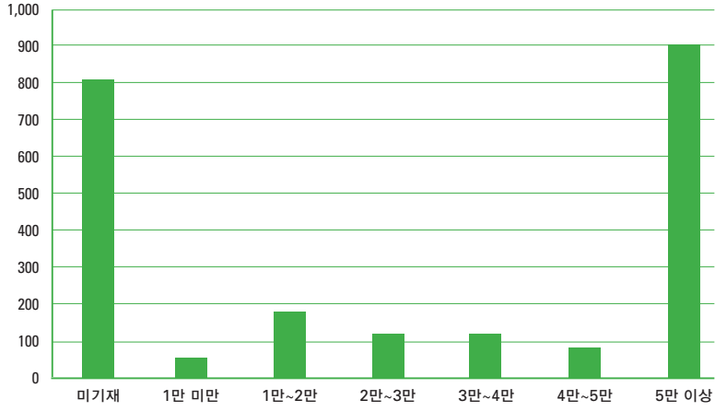
최근 3년간(2010~2012)의 면적별 설치현황 비교·분석에 있어, 현황조사시 면적에 대해 미기재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 파악과 비교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제시된 정보만으로 비교해보자면, 건축물 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물미술작품을 가장 많이 설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만 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가진 건축물은 작품설치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었으나, 2만 제곱 미만의 비교적 좁은 면적의 건축물은 작품 설치수가 조금씩 증가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표 21] 면적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현황

구분	면적분류(㎡)						
년도	미기재	1만㎡ 미만	1만㎡~2만㎡	2만㎡~3만㎡	3만㎡~4만㎡	4만㎡~5만㎡	5만㎡ 이상
총계	812	65	172	134	135	90	898
2010	297	40	39	55	68	40	355
2011	241	11	66	41	38	36	360
2012	274	14	67	38	29	14	183

(자료 : 공공미술포털 www.publicart.or.kr)





최근 3년간(2010~2012) 건축물미술작품제도를 통한 작품 설치현황을 비교·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작품 설치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설치의 수가 감소한 가장 큰 이유는 건설경기의 침제와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

2011년부터 선택적 기금제가 도입되었으나, 기금 출연의 수가 건축물작품제도 감소에 영향을 미칠 만큼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 않아 설치 수의 감소와는 연관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작품의 매체별 구분 현황을 통해서 조각이 2010~2012년 전체 작품 설치의 반 이상을 차지하며 가장 많이 설치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다음으로 많은 수를 차지하는 회화는 급격한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으며, 2011~2012년 사이 조각의 수가 감소한 것과 달리 회화의 설치 수는 약간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2010년과 2011년 사이 미디어 설치도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지역별로는 감소의 추세이긴 하나 3년 내내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작품 설치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고, 눈에 띄는 증가는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설치 수가 증가하고 있는 부산과 세종시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용도별 설치 현황을 통해서는 3년간 공동주택의 수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용도별 분류에서 특징적인 것은 의료시설이 2011~2012년 사이 3배 이상의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면적별 분류에서는 3년간 5만 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이 가장 많은 설치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나 미기재 면적의 비율이 거의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어 면적별 분류의 현황 파악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1만~2만 제곱미터의 면적이 2011~2012년 사이 급증하여 지속되고 있는 점을 확인하였고, 이를 통해 지난 3년간 큰 면적의 건축물보다는 1만~2만 제곱미터 사이에 해당하는 면적의 건물들이 많이 생겨났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3. 건축물미술작품 기금출현 현황 분석 (2011~2012)

건축물미술작품제도는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신·증축하는 일정한 용도의 건축물이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거나 직접설치 비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하도록 한 제도이다. 또한, 2011년 관련법령 법 개정(시행 2011년 11월 26일)에 따라 건축주가 작품을 직접 설치하는 대신,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기금제가 도입되어 운영 중에 있다.

선택적 기금제의 도입은 문화예술진흥법에 법적근거를 두고 있으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관리 주체가 되어 기금 운용에 따라 조성된 기금을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2011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건축물미술작품제도 선택적 기금제 운영에 따라 출연기금의 분배 기준과 방안, 절차 및 집행방안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는 선택적 기금제 관련해서, 별도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선행연구[2]에서 분석한 내용을 재구성하여 제시하였다.

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2, 건축물미술작품제도 개선현황 및 출연기금 분배방안연구

(1) 선택적 기금제 개요

선택적 기금제 도입 목적

선택적 기금제는 건축물미술작품제도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작품설치만 가능했던 민간건축주에게 기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규제완화를 하고자 도입되었다.

규제 완화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먼저, 행정적 부담 면제와 법적의무 이행의 간편화이다. 일부 건축주들의 경우에 준공일이 임박하여 설치가 어려워지거나 심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행정적인 절차의 부담을 피하고자 하는 사례들이 있어 이러한 부분을 완화하고자 기금 출연으로 의무이행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은 요율인하를 통한 건축주의 비용 부담의 감소이다. 민간건축주가 미술작품을 설치비용을 기금으로 납부할 경우에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비용의 30%를 인하하여 직접 설치비용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출연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에 대한 세제혜택이다. 기금 출연 시에 법인세법 제 24조와 소득세법 제 34조에 따라 법인은 소득금액의 50% 한도 내 손비 처리가 가능하고, 개인은 소득금액의 100% 한도로 소득 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건축기간의 단축 효과이다.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것보다 기금을 출연하는 경우 행정절차와 의무이행이 간편해져 건축기간을 단축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직접 작품을 설치할 경우, 계획수립, 건축주와 작가의 계약, 감정평가, 설치확인, 사용승인 등의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는 반면, 기금납부의 경우는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완료된다.

선택적 기금제에 의해서 출연된 기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고 공공미술진흥을 위한 사업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선택적 기금제 근거 법률

선택적 기금제의 출연 근거는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의해 민간건축주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의 설치 대신,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 할 수 있다. 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외되어 기금 납부가 불가하다.

[표 22] 선택적 기금제 출연기금 출연 근거

문화예술진흥법 제 9조 [법률 제233318호, 2011.11.25, 일부개정]

② 건축주(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는 대신에 제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건축비용의 100분의 1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선택적 기금제의 출연기금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⑥에 의거해 해당 건축물을 분류하여 건축물의 미술작품 사용금액을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할 경우, 총 금액 100% 중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시한다.

[표 23] 선택적 기금제 출연 금액 근거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

⑥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에 출연하는 금액은 별표 2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1/11/25>

선택적 기금제 출연 방법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3조의 2(기금 출연의 절차·방법)를 통해 기금을 출연하는 건축주는 지정된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계획서를 시·도지사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제출하고 기금 출연 기간은 건축물의 사용 승인 신청 전까지이다. 건축주가 기금출연을 완료한 경우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출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확인서를 건축주에게 발급, 시·도지사에게도 통보해야 한다.

(2) 선택적 기금제 기금출연 현황

· 기금출연 현황분석

선행연구[3]를 통해 살펴본 기금출연 현황분석 결과, 2011년 2곳, 2012년 9곳, 총 11곳의 건축주가 선택적 기금제를 채택하여 기금을 출연한 것으로 나타났고, 1년간 출연된 기금은 총 10억 4천 6백만 원으로 확인되었다.

2011년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을 통해 건축물미술작품제도 관리 기구가 기초단체에서 광역 단체로 상향 조정되었고 지자체별로 건축물미술작품조례 및 규칙을 제정, 시행하였다. 총 17개의 광역 단체 건축물미술작품 조례에서 기금출연 및 집행과 관련한 조항들을 명기한 지자체는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로 총 6군데로 조사되었다.

3. 기존의 선행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재구성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2, 건축물미술작품제도 개선현황 및 출연기금 분배방안연구

[표 24] 선택적 기금제를 통한 기금출연 현황 (선택적 기금제 도입~2012년)

년도	지역	건축주	기금납부자	출연액(원)
2011	부산시	이지건설	이지건설	130,835,000
	경기도	서희건설	서희건설	13,800,000
2012	서울시	홍은동 제3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홍은동 제3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25,200,000
		흑석6재정비 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흑석6재정비 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30,410,100
	인천시	㈜보미엔터 프라이즈	㈜보미엔터 프라이즈	142,892,382
	경기도	삼환컨소시엄㈜	삼환컨소시엄㈜	374,101,000
		㈜생보부동산 신탁	㈜비전스텝	132,925,840
		한국자산신탁㈜	한국자산신탁㈜	91,300,000
	강원도	안정실업 주식회사	안정실업 주식회사	19,552,918
	전라북도	롯데쇼핑㈜ 롯데마트 사업본부	롯데쇼핑㈜ 롯데마트 사업본부	69,770,000
	11개	㈜승승씨앤디	㈜승승씨앤디	15,934,000
총액				1,046,721,240



2011~2012년의 기금 출연 현황으로 보아 기금출연과 관련 조항들을 명기한 부산광역시와 경기도, 전라북도에서 기금출연이 이루어졌고 기금 출연에 대해 자세한 조항들을 가지고 있는 경기지역에서 출연이 많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기금출연 사유 및 요구분석

선행연구에서는 건축주와 지자체 담당자와의 기금출연 현황 및 개선사항에 대한 인터뷰와 설문을 진행한바 아래 항목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2011년~2012년까지 기금을 출연한 건축물 중에서 조사가 가능했던 9곳의 선행연구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표 25] 기금출연 사유 및 요구분석 조사개요

구분	설문조사 주요 내용
기금출연 일반사항	기금출연 건축물 종류 건축물미술작품 설치 경험 여부
기금출연 사유	기금출연 사유 기금제의 정보경로
기금출연 요구	기금납부과정에서의 어려움 선택적 기금제 만족도 출연기금 활용도에 대한 이해 출연기금 사용희망 지역 및 용도 기금출연 저조 원인

(1) 기금출연 일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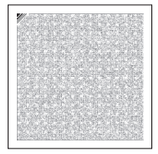
· 기금출연 건축물 종류

2011년~2012년 사이에 선택적 기금제를 통해 기금을 출연한 곳은 총 11곳이나, 이 중 설문에 응한 곳은 9곳으로 공동주택(아파트) 5개, 업무시설 1개, 판매시설 1개, 근린생활시설 1개, 기타시설 1개로 조사되었다.

· 건축물미술작품 설치 경험여부

조사가 진행된 9곳 중 6곳이 건축물미술작품제도에 대한 경험이 있었고 다른 3곳은 건축물미술작품제도에 대한 경험이 전무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 기금출연 사유



· 기금출연 사유

기금출연의 사유로는 사용승인 일정 임박과 기금출연으로 인한 할인 혜택을 가장 대표적인 이유로 꼽았고, 작품설치에 따른 행정절차의 복잡함, 작품 사후관리의 번거로움, 기금 출연에 따른 세제 혜택, 심의 부결, 비용 대비 효율성으로 확인되었다.

기존에 건축물미술작품제도에 대한 경험이 있는 6곳에서 기금제를 선택한 이유는 (중복 대답 포함) 사용승인 일정 임박, 작품 설치에 따른 행정절차의 복잡함, 기금출연으로 인한 할인혜택들을 꼽았다. 처음 건축물미술작품을 진행한 3곳은 기금출연으로 인한 할인혜택을 이유로 기금제를 선택했다고 답하였다.

조사결과, 기금출연자가 선택적기금제를 택한 이유는 건축물미술작품제도의 경험 여부에 상관없이 기금출연으로 인한 할인혜택과 사용승인 일정의 임박을 파악할 수 있었다.

· 기금제의 정보 경로

기금제와 관련된 정보를 얻는 경로는 지역 담당 공무원의 제도 안내와 자체적 법률 검토가 있었다.

건축물미술작품제도 경험이 있는 건축주는 자체적 법률 검토와 담당 공무원의 안내를 통해 선택적 기금제에 대한 정보를 접하였고, 경험이 없었던 건축주는 담당 공무원에 안내, 언론 매체, 주변인들의 소개 순으로 정보를 접하였다고 답하였다.

이처럼 지역 담당 공무원의 안내와 자체적 법률검토를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볼 때, 해당 지자체의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가 요구됨을 알 수 있고, 건축주가 만나게 되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선택적 기금제에 관한 세부내용을 상세히 설명할 수 있도록 그와 관련된 교육이 필요함을 파악할 수 있었다.

(3) 기금출연 요구

· 기금 납부 과정에서의 어려움

기금 납부 과정에서의 어려움은 정보의 부족이나 지자체 협조 지연 등이 있었으나 대체로 납부과정에서의 어려움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 선택적 기금제 만족도

선택적 기금제에 대해 불만족을 택한 곳은 1곳에 불과하여, 대부분의 건축주가 비교적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불만족의 사유는 기금 납부 외에 미술작품을 설치해야하는 상황에 놓였던 건축주의 이중 부담으로 인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기금할인요율에 있어, 민간 건축주들이 기금 납부가 가능한 최고 할인 요율을 30%, 40%, 20%의 순으로 답한 것을 볼 때, 할인율이 높아지면 기금출연 금액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나 현재의 요율이 적정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반면, 지자체에서는 적정 할인요율을 30%, 50%로 순으로 응답하여, 건축주와 비교했을 때 할인율이 인상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출연기금 활용도에 대한 이해

대부분의 건축주들이 추후 기금제 활용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지자체 담당자들은 출연기금 활용에 대한 이해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출연기금 사용희망 지역 및 용도

건축주들이 기금이 활용되기를 바라는 지역은 대부분 건축물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많았고, 건축물 소속 광역시·도 단위에 대한 의견들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기금 활용의 용도는 소외지역 문화 환경 개선의 용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이 밖에도 공공미술 관련 교육, 홍보, DB 구축 등의 인프라 개선과 공공 공간의 예술작품 설치가 있었다.

지자체의 경우, 건축물 소속 광역시·도 단위, 건축물 소속 기초자치단체, 전국단위 사업 순으로 기금 활용 지역을 희망하였고, 활용 용도는 소외지역 문화 환경 개선, 지자체 상징 조형물 설치, 공원·광장 등 순수 조형물 설치에 대한 순으로 나타났다.

· 기금출연 저조 원인

기금출연 저조원인은 첫째, 선행연구[4] 시 출연기금 추정치를 과다 계산함으로서 추정치와 실제 출연 액의 차이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건축물미술작품 설치작품 수 및 설치 금액의 감소로 확인되었다. 이는 전반적으로 건설, 부동산 경기 위축 등의 추정 이유로 전체적인 설치작품 수와 설치 금액이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4. 기존의 선행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재구성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2, 건축물미술작품제도 개선현황 및 출연기금 분배방안연구

보여진다.

셋째, 건축주의 유인효과가 낮았는데, 그 이유로는 사실상 기금 납부 금액 대비 세제 혜택이 크지 않았으며,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건축주가 기금을 납부하더라도 분양자들의 항의로 인해 미술작품을 재설치 하는 등 이중의 경비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적극적으로 기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넷째, 대부분의 건축주들이 출연된 기금의 추후활동에 대한 인식 부족 등 불분명한 기금 사용처로 인해 소유의식(주인의식)이 약화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다섯째, 지자체의 홍보 및 안내 부족으로 인해 많은 건축주들이 선택적 기금제를 인지하지 못하며, 이로 인해 민간 건축주의 대부분이 자체법률 검토나 언론매체, 지인의 소개 등의 정보 경로를 통해 제도를 인지하게 됨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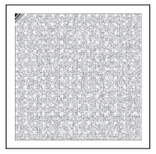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제도 개정 전 우려했던 리베이트 확대 재생산의 문제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일부 건축주가 출연기금의 일부(설치 금액의 70%)에 있어 리베이트를 요구하거나 중개업체가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들이 있어, 이러한 문제점들이 기금출연을 저조하게 만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2012 공공미술 연례 보고서

4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추진 공공미술사업 (2012)

1. 국내 공공미술사업 사례조사·분석 개요
2. 국내 공공미술사업
3. 국내 공공미술사업 사례조사·분석의 종합

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추진 공공미술사업 조사·분석 개요



조사설계 및 자료 분석방법

[표 26]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추진 공공미술사업 조사·분석의 개요

구분	조사 개요
조사지역	전국
조사대상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추진 공공미술 관련프로젝트
조사방법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자체 자료

[표 27]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추진 공공미술사업 조사·분석의 주요 내용

구분	설문조사 주요 내용
프로젝트 개요	프로젝트 명 / 장소 / 사업년도 / 규모 / 주최 및 주관 / 예산 등
프로젝트 내용	프로젝트의 주제 / 실행유형 / 프로젝트의 특징 등
기타 자료	프로젝트 세부실행과정 / 실행결과물 (보고서, 이미지 등)

사례조사·분석의 구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추진 공공미술 사례조사는 2012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진행한 공공미술사업과 기타관련 사업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2012년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추진한 공공미술사업은 '도시공원 예술로'와 '공공미술전문가 교육 프로그램(아르코 퍼블릭 아트 오픈콜 오디션)'이다. 이 두 사업은 2013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 2012년에는 공모와 기획의 단계를 가졌다. 기타 관련사업으로는 '공공미술토크시리즈'와 '지역협력형사업'이 있으며 이 사업들은 공공미술과 관련하여 공공미술의 저변을 확대하고 전국에 공공미술 사업을 장려하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사례조사·분석의 방법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에 대한 사례조사는 대부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자체자료를 통해 진행되었다. 또한, 세부분석을 위한 프로젝트는 해당 사업의 담당자 추천을 통해 제시된 우수사례를 중심으로 다루었다.

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추진 공공미술사업 사례조사·분석 결과

2012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추진한 공공미술사업은 공모와 기획의 단계에 해당되어 구체적인 사업 분석 보다는 사업에 대한 개요와 소개를 중심으로 다루었다. 기타 관련 사업에 있어서는 사업에 대한 세부분석이 가능했던 지역협력형사업에 한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1) 공공미술사업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전통예술, 다원예술 등 문화예술계 안팎에서 합의하고 있는 기초예술분야와 문화산업의 비영리적 실험영역을 대상으로 그 창조와 매개, 향유가 선순환구조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것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것을 위해 민간이 공공영역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공공영역이 민간에 참여하는 동시적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예술의 자생력을 신장시키고, 예술 창조를 견인하며, 예술적 융성과 사회 생산력의 신장을 동시에 발전시켜 예술시장의 생산력을 확보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국민 모두가 문화예술이 주는 창조적 기쁨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1]

2012년 한국문화예술위에서 추진된 지원사업 중 공공미술적 성격을 가진 사업으로는 '도시공원 예술로' 프로젝트와 '공공미술 전문가 교육프로그램(아르코 퍼블릭 아트 오픈콜 오디션)'이 있으며, 이 두 프로젝트 모두 2013년 현재 작품 제작 및 설치가 진행 중에 있다.

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arko.or.kr/

1) 도시공원 예술로 프로젝트

사업 개요

추진목적 및 방향

'도시공원 예술로'는 건축물미술작품제도의 선택적 기금제 도입을 계기로 '공공장소 속의 미술(Art in Public Places)'형 사업을 진행하여 지역과 함께 하는 새로운 공공미술형태의 모범사례를 만들고자 기획되었다.

사업의 예산을 고려하여 도시공원을 선택하고 그 안에 예술을 개입시켜 예술성과 기능성 높은 작품이 설치 될 수 있도록 집중하여 기존의 공공미술사업 (마을미술프로젝트, 서울시 도시갤러리 프로젝트,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과 차별화를 시도하였다.

또한 모범 프로세스를 창출하기 위하여 각 프로젝트를 2년 내외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기획, 협력체계 및 주민참여, 추진과정에 대해 아카이빙을 병행하였다. 향후에는 워크숍을 진행하고 교육 사업의 콘텐츠화를 예정하고 있으며, 사업의 홍보를 강화하여 지자체와 지역 문화재단의 참여를 유도, 예산 확보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을 가지고 있다.

사업의 추진 첫 단계로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지역문화재단 별로 장소 공모를 진행하였고 장소가 선정된 후 각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술 기획자를 별도 공모하여 선정하였다. 사업 대상지는 도시공원 조성 시 공공미술작품을 설치하는 프로젝트, 기존 도시공원을 공공미술로 리노베이션 하는 프로젝트, 도시공원을 기반으로 하는 '공공미술 프로그램'이 가능한 곳으로 장소의 적합성과 사업의 파급효과, 관리주체(지자체)의 추진 의지를 선정기준으로 하였다.

총 사업비는 장소당 4억 원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억, 지자체 2억으로 사업 대상지 지자체와 매칭하여 지원하며, 사업시행의 첫해인 2012년에는 기획비, 리서치비, 작품 제작비 등으로 1억 원 내외를 지원하였다. 2013년에는 실제 작품 설치 제작비등으로 지자체와 1:1 매칭을 기준 조건으로 하여 최대 1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 추진 현황 및 작품분석

대상지 선정 결과 및 대상지의 특징

사업 선정 대상지는 부산광역시의 홍티문화공원, 경남 함양군의 상림공원, 충남 공주시의 금성동 배수장, 충남 계룡시의 금암근린 공원으로 총 4곳이 선정되었다. 각 사업지는 신규로 조성되는 곳이 2곳, 리노베이션 되는 곳이 2곳이다.

[표 28] 도시공원예술로 사업대상지, 특징, 기획자명

사업대상지	지자체명	기획자	특징
홍티문화공원	부산광역시	와이즈건축 (전숙희,장영철)	- 문화소외지역 내 공원조성과 결합 - 공단에 위치한 미 조성공원
상림공원	경남함양군	갤러리팩토리 (홍보라)	- 주거 및 관광지 내 기존 공원 활용 - 문화재인 인공 숲이 관광자원이자 일상공간이 공원
금성동 배수장	충남공주시	노말타입 (김장언)	- 유휴시설 활용, 공원조성과 결합 - 공원으로 용도 변경 예정인 배수장
금암근린공원	충남계룡시	㈜티팟 (조주연)	- 주거지역 내 기존 공원 활용 - 신도시의 전형적인 근린공원으로 이용인구 저조









·부산 홍티문화공원: 홍티둔벙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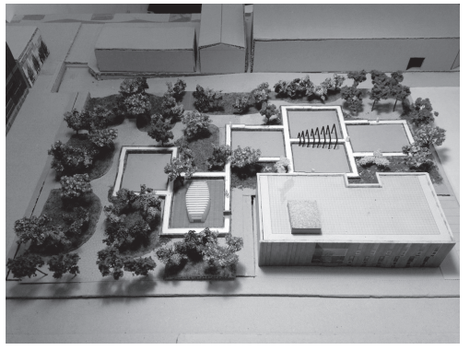
'홍티둔벙'은 부산시 사하구에 위치한 홍티문화공원에 조성될 프로젝트이다. 홍티문화공원은 부산 사하구 장림공단 내에 위치하여 앞으로는 낙동강 하구의 홍티포구와 인접해있고 뒤쪽으로는 아미산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 지역은 공단지역이지만 주변에 해수욕장과 아미산 전망대가 있으며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어 자연과 더불어 문화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부산의 예술창작공간인 '아트팩토리 인 다대포'가 지역 문화에 활기를 넣어주고, 공원과 인접한 홍티아트센터에 레지던시가 운영될 예정인 것에서 확인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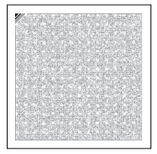
기획자는 이러한 장소적인 특징과 배경을 통해서, 홍티문화공원이 예술작품을 전시하는 예술공원이 아닌 홍티아트센터가 만들어 내는 다양한 문화활동을 담고 주민들의 활동을 담기 위한 사람들의 플랫폼이 되어야 함을 찾을 수 있었다고 한다.

공단이 만들어지기 전 이 곳은 계단식 농경지였다. 계단식 농경지를 연상시키는 두렁길을 통해 장소의 기억을 복원하고, 홍티문화공원, 홍티포구, 홍티아트센터, 공단 등을 연결하는 기능적인 길의 역할을 하도록 의도 하였다. 이러한 두렁길을 경계로 둔벙들이 생기는데 둔벙은 농경사회 기반시설이었던 물 저장시설이라고 한다. 기획자는 농사에 필요한 물을 저장하고 마을 사람들의 휴식과 만남의 장소로 이용되며 마을 공동체의 의식형성과 유지의 역할을 하는 둔벙의 개념을 '홍티둔벙'공공예술프로젝트를 통해 홍티아트센터와 지역주민들의 활동에 사용하고자 하였다.[2]

2.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제공한 자료를 요약 정리하여 재구성함.







·함양 상림공원: 라운드 프로젝트

라운드 프로젝트는 무형의 프로그램과 유형의 조형작업, 방문객의 운동성에 초점을 둔 경관 디자인으로 공원 내의 상림 숲과 연지공원, 고운광장을 연결하여 온전한 도시공원을 만들고자하는 공공미술 프로젝트이다.

기획자는 직·간접적인 공간(숲) 체험과 이해를 통해 공감각과 시간적 요소가 포함되는 총체적 경험(holistic experience)을 이끌어내는 것을 중요한 방향성으로 정하였다. 이는 숲을 거니는 직접적인 경험과 라운드 프로젝트 웹사이트를 통해 이루어질 간접적인 경험이 합쳐져 새로운 층위를 경험 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은 버수스(versus) 정신이다. 버수스의 의미는 대조, 대비를 통해 차이를 발견하고 같음과 다름, 중첩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자연의 아름다움은 아름다움 속에 내포한 추함, 지속적임에 내포한 한시적임이라고 상정하고 상대적이고 비교적인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와 입장을 나타나고자 의도하였다. 이것은 모뉴먼트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획의 일부분은 과정을 통해 열어두고 새로운 가능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제시하였다.

라운드 프로젝트는 주요작업들과 맥을 같이 하면서 전시, 웹사이트. 지역 참여 워크숍 등 각각 별도의 프로젝트들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웹사이트는 함양에 대한 관광정보 사이트가 아닌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와 함께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며 이후에는 아카이브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숲이라는 공간에 음악을 매개로 개입하는 프로그램을 진행 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3]

3.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제공한 자료를 요약 정리하여 재구성함.





·공주 금성동배수장: 소행성 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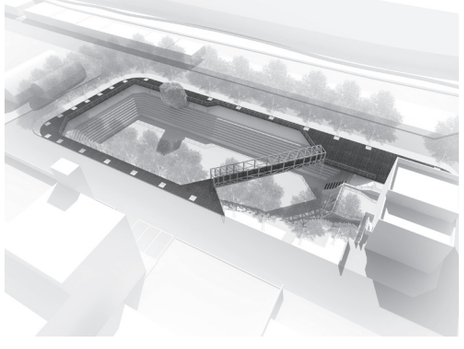
소행성 G는 공주시 구 시가지에 위치한 금성 배수장에서 이루어지는 공공미술 프로젝트이다. 이곳은 공주시내의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80년대 만들어진 재난 시설물로서 오랜 시간 동안 공주시의 안전을 위해 사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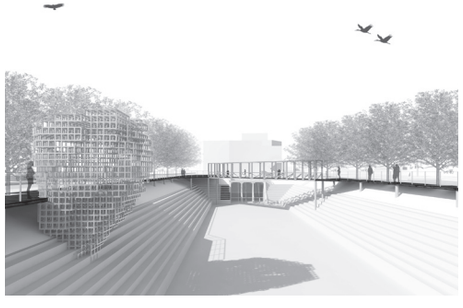
현재 금성배수장은 일반인들의 접근을 막고 있지만 시각적으로는 노출된 상태이다. 공주시는 이 공간을 그대로 유지하여 지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자 하였고 도시공원 예술로 사업에 선정되었다.

기획자는 금성배수장을 시설물이라는 건축적 구조가 만들어내는 기능적 공간과 시간의 세월이 묻어난 곳이 아닌 신체와 언어가 작동하는 장소(topos)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기획자-작가-건축가-구조공학자-조경가 등 전문가들의 협업관계를 통해 프로젝트를 구현하려 하였다.

금성 배수장을 장소(topos)로써의 삶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머무를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했다. 이것은 수평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만들어 내는 것으로 걷기와 멈춤이라는 것으로 구체화된다. 이 장치를 통해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의 차이를 출현 시키는 새로운 장소가 만들어지고 이러한 상태를 '소행성G'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 방법은 배수장의 배수용량이 줄어든다는 지방정부의 우려로 수정되어 파빌리온의 형태가 되었다. 또한 배수장을 가로지르는 스카이워크를 설치하여 수평적 걷기의 경험을 유지하고자 하였다.[4]

4.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제공한 자료를 요약 정리하여 재구성함.







·계룡 금암공원: 차이를 위한 산책

2002년 계룡부대가 이전하고, 그해 특별법에 의해 만들어진 계룡시는 신생도시이다. 인구의 구성은 대부분 군인이거나 군무원 들이고 상업이나 기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 나머지 10%정도가 토박이다. 이곳은 지역적 특성상 군문화가 발달한 곳으로 가을마다 군 문화 축제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군문화의 특성상 이주하는 인구들이 많아 정주의식과 커뮤니티에 대한 생각이 취약한 곳이라고 한다.

금암공원은 신도시를 계획하고 정비하면서 상가지구, 주거지구와 더불어 녹지 지구를 계획하며 만들어진 곳이다. 이곳은 다른 공원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평범한 공원으로 아파트를 낀 큰 호의 형태를 가진다. 기획자의 사전조사에서는 주민들의 상반되는 의견으로 공원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줄어들었으며 슬럼화 현상이 생겼다고 조사되었다. 한쪽에서는 공원이 정원의 기능으로만 기능하길 원하고 다른 쪽에서는 공원이 특별한 요소로서 기능하기를 원하며 이러한 의견차이가 민원으로 이어져 반복적인 민원제기와 민원해소로 이어지게 되었고, 이로써 금암공원은 어느 쪽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공간이 되어 버렸다고 한다.

19세기 서구에서 공원은 박물관의 탄생과 함께 생겨났다. 도시노동자의 열악한 사적 공간에 대한 대책으로 공공시설이 만들어졌으며 새로운 여가 문화가 탄생하였다. 공원은 사람들 사이의 교류와 대화를 발생시키며 사적인 공간이 아닌 공적인 공간으로서 시장, 축제 등을 통해 활동을 유발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역에서 진행하는 공공예술은 지역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간섭을 받게 된다. 이러한 의견들은 '맞다, 아니다'가 아닌 자신의 견해와 취향을 나타냄으로서 만족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금암공원의 프로젝트는 이러한 대화를 어디에서 촉발해야 하는 가를 중점사항으로 두고 여러 프로그램들을 기획하였고, 이후에 시민노래단 '고성방가', 그 밖의 이야기, 새 자리의 탄생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성과 및 추진 실적

'도시공원 예술로'는 2개년 사업으로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인과 예술인들의 관심, 참여를 유도하고 홍보하기 위한 오픈형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공개워크숍과 전시를 진행하였고, 2013년 현재 대상지에 대한 제작 및 설치가 진행 중에 있다.

'도시공원 예술로'는 현재 진행 중으로 사업을 통한 긍정적 효과나 시사점을 도출할 수는 없으나, 사업의 목적 및 현재까지의 추진내용을 살펴볼 때, 지자체와 기획자의 협력을 통한 새로운 사업 모델을 창출하려한다는 점, 2년이라는 사업진행기간을 두어 과정 중심의 프로젝트를 지향하려는 노력을 기울임으로서, 공공미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제고하고자 한다는 점에 있어 의미를 가진다.[5]



5. 한국 문화예술위원회 제공자료

2) 공공미술 전문가 교육 프로그램 (아르코 퍼블릭아트 오픈콜 오디션)

사업 개요

추진목적 및 방향

아르코 퍼블릭아트 오픈콜 오디션은 유명기획자 및 작가에게 한정되어 있는 공공미술사업의 기회를 신진 예술가에게 제공하여 새로운 공공미술 인력을 발굴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위해 신진 공공미술 작가 및 기획자(미술, 디자인, 건축, 조경 등 관련분야)를 대상으로 참가자를 모집하였다. 그 중 26명을 선정하여 팀을 구성한 후 기획안 구체화, 제작 및 설치계획 수립을 위한 특강, 멘토링으로 구성된 워크숍을 추진하였다.

워크숍 결과물인 최종 기획안을 심의하여 2개 팀을 선정, 각 5천만 원의 예산을 책정하였고, 2013년에는 3개월간 마로니에 공원에서 공공예술 실현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이 프로젝트의 홍보 및 자료화를 위한 책자를 발간하고, 미술관 전시와도 연계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사업 추진 현황 및 작품분석

2012년 공공미술 전문가 교육 프로그램 (아르코 퍼블릭아트 오픈콜 오디션)

2012년 아르코 퍼블릭아트 오픈콜 오디션은 10월~12월 2달간 총 10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참가자 26명은 총 7팀으로 구성되어 팀별 기획안을 발표하였고 이 중 마로니에 다방, 오프닝 2팀이 최종 선정되었다. 선정된 작품은 2013년에 실시도면을 작성하고 작품제작에 들어가며, 7월 이후 대상지에 작품을 설치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한 뒤 철거할 예정이다.

[표 29] 2012 아르코 퍼블릭아트 오픈콜 오디션 선정작의 주요내용

프로젝트 명	주요내용
마로니에 다방	- 대학로 연극인이 자신의 이야기를 마로니에 공원에서 시민과 대화극을 통해 소통함 - 대학로 곳곳의 30개의 문을 본따 만들어 공원에 설치하고, 테이블과 의자를 두어 무대로 활용함
오프닝	- 마로니에공원에서 낙산공원으로 가는 길목의 아르코 미술관 담장을 허물어 공간운영과 사용자의 관계, 공공성을 담론화함 - 아르코미술관 담장은 김수근 건축가의 초기 설계에는 없었으나 관리 등의 목적으로 설치된 것에서 착안함

· 마로니에다방

마로니에 다방은 대학로의 새로운 변화를 대중에게 알리는 타종의 의미로 기획되었다. 마로니에 공원의 낭만과 예술, 지성과 엘리트, 청년문화의 상징, 대학로 공간의 상징을 통해 공원의 조성 역사를 담고, 예술과 지성의 공간으로 새로운 마로니에 공원의 정체성을 설정해야 한다는 대중적 요구를 반영하여 다방대화극과 다방아카이브, 다방연회, 이 3단계의 과정으로 구성하였다

1. STEP1 다방대화극

[PROLOGUE]

- 마로니에 다방은 예술가들의 응접실이다.
  지하실의 퀴퀴함과 뒷골목의 으슥함 속에 삼삼오오 모여
  누군가를 기다리던 예술가들이 마로니에 다방의 손님들이다
  그런데, 그들의 은신처와는 달리 이곳은 다방이자 '광장'이다.
  프로젝트 <마로니에 다방>의 다방 대화극은 바로 다방이자 광장인 공간적
  특수성이 가져오는 '풍경'에 집중한다.

[대화극의 구성 및 의도]

- 예술의 핵심은 근원적으로 자기존재와 존재를 둘러싼 시계에 대한 느낌과 관점,
  경험과 심상에 있는 것이라고 제시하며, 역사적 합의와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진 언어에 함몰되어 자기 존재의 내면을 돌이켜보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지루하지만 거대한 힘을 발휘하는 일상에 작은
  틈을 만드는 것이 마로니에 다방의 예술가들이 할 일이라 제시하였다.

2. STEP2 다방아카이브

- 다방 아카이브는 아트 프로젝트로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정보를 제공하며,
  예술을 통하여 미술관과 마로니에 공원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을 목표로 리플릿,
  도록, 영상을 통해 표현된다.
- 각각 리플릿은 자발적 관객을 동원하고, 도록은 아트 프로젝트로서의 <마로니에
  다방>을 구성하며, 영상은 마로니에공원과 미술관과의 관계를 표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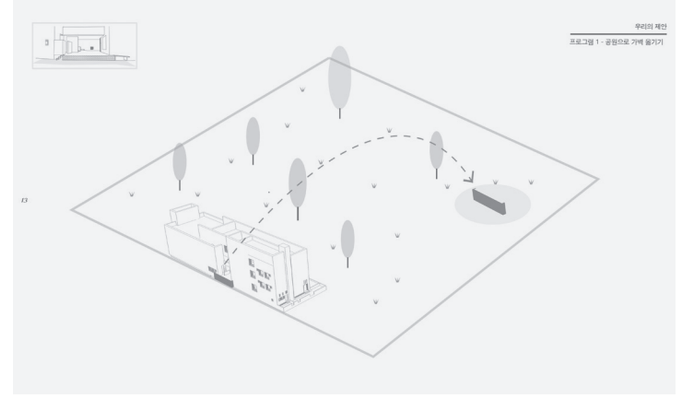
3. STEP3 다방연회

- 프로젝트의 마지막 날 사용되었던 모든 문을 사용하여 공간을 만들고,
  예술가들의 파티로서 예술가들의 풍류를 가시화 하는 장을 만든다.



· 오프닝

오프닝은 공공성이란 무엇이고, 누가 공공이며, 공공환경에 대한 결정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출발하였다. 대학로의 대표적인 공공건축물로 아르코미술관 1층이 공공적인 기능성이 있는 공간임을 제시하고 그 공간을 가로막고 있는 미술관 뒤쪽 벽이 건축설계 의도에 맞지 않게 세워졌음을 진단하였다. 또한 많은 개입으로 여러 형태로 변화하였고, 통로로의 기능을 상실한 채 굳게 닫혀있는 현재의 모습까지의 과정을 파악하였다. 미술관 뒷벽이 공공의 자유로운 이동과 문화의 흐름을 방해하고 있으며, 낙후된 시설과 위험요소를 가진 환경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 뒷벽의 개방은 공공환경의 긍정적 효과를 창출할 것이라 예측하였다.



(2) 기타관련사업

1) 2012 공공미술토크시리즈 - 공공의 조건, 예술의 선택

사업 개요

공공미술토크시리즈는 '공공의 조건, 예술의 선택'이라는 주제 아래 총 4차례에 걸쳐 소주제로 나누어 발표와 토론의 형태로 진행된 심포지엄이다. 토크시리즈는 공공미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미술, 디자인, 건축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 단체, 작가, 기획자, 행정가들이 모여 공공미술에 대한 다양한 생각과 경험을 공유하고 앞으로 공공미술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 하고자 기획되었다.

사업내용 및 일정

공공미술토크시리즈는 2012년 3월부터 6월까지 공공미술과 관련한 여러 주제를 가지고 매달 한 번씩 진행되었다.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주제와 관련한 발표를 진행하였고 심포지엄에 참석한 참석자들과 다양한 의견교환과 논의가 이루어졌다.

'공공의 조건, 예술의 선택'이라는 주제로 총 4번에 걸쳐 진행된 심포지엄은 각각의 토크별로 소주제와 관련한 발표로 구성되었다.

공공미술토크시리즈 심포지엄 세부 발표 내용

1차 [공공의 예술가란 가능한가?]
- 에뢰 페리선(Ærø Ferry)을 위한 제안에서 - 랜디 조르겐슨 & 카롤린 말리노프스키
- 참여적 공공예술의 개인적인 조건- 양수인
- 함께 누리는 공공미술-김주현

2차 [공공미술을 위한 제도의 역할]
- 도시공간에서 법제화된 미술관 또 다른 개입- 사라 라이즈만
- "미술이 꽃피는 공간(space)에서 삶이 머무르는 공간(Place)으로" 서울시 건축물미술작품 운영현황 및 개선노력-박삼철
- 공공미술과 저작권 인식의 필요성- 신은숙
- 삶 속 장소 그리고 미술작품- 유석연
- 이미 디자인은 디자인이 아닙니다- 임옥상
- 공공미술의 공공성 확장- 정소익

3차 ['공공'과 '예술'의 경계탐색]
- 아트 온더 언더그라운드(Art on the Underground, AOTU) 의 발전- 탐신 딜론
- 광주폴리(Gwangju Folly)- 김영준
- 공공미술 누가 하는가?- 유다희
- 예술가의 관점으로 읽는 문화와 예술 커뮤니티아트 - 김월식



4차 ['공공성'이라는 공동작업]
- 뉴페트론(New Patrons): 공공미술 제작을 위한 새로운 예술적 모드- 얀 투로브스키
- 논아트 밭아트(non Art but Art): 하천 부지 이천 평 분투기- 박찬국
- 내가 생각하는 공공미술 - 배영환
- 커뮤니티 아트, 창조적 문화마을 만들기- 진영섭
- 시민참여와 시민주도, 그리고 예술가 주체의 문제- 김준기

주요 성과 및 추진 실적

공공미술토크시리즈는 각 토크마다 소주제와 관련하여 해외의 주요 공공미술 단체와 작가를 초청하고, 이들의 발표를 통해 실제 해외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공공미술에 대한 정보들을 접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국내의 공공미술관련 기획자, 운영자, 작가, 연구자 등의 각각의 위치, 입장에 따라 공공미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앞으로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하는지 등 공공미술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나누고 논의 하는 시간을 가졌다.

토크시리즈에 참석한 청중들은 매 회 평균 100명 이상으로 4차에 걸쳐 진행된 토크에 참석한 총 참석자들을 565명이다. 참석한 참여자들의 대부분은 학계(176명)와 예술계(207명) 종사자들이었고 국공립관계자(62명), 기타(110명), 언론(10명) 순으로 집계되었다.

[표 30]
공공미술토크 시리즈 참석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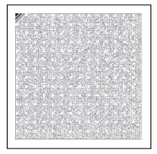
분류	인원(명)	비율
대학생	134	학계 176명 (31%)
대학원생	40	
교수	2	국공립 관계자 62명 (11%)
문화재단	25	
지자체	5	
정부 및 공공기관	32	
예술관련기관	162	예술계 207명 (37%)
예술종사자	45	
언론	10	언론 10명(2%)
기타	110	기타 110명(19%)

4차례에 걸친 공공미술토크시리즈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각 소주제별로 다양한 논의와 의견이 나왔다.

[표 31] 공공미술토크 시리즈 주요 논의사항

구분	소주제	논의사항
1차	공공의 예술가란 가능한가?	- 생활과 예술의 교류 : 공공미술의 경계는 어디인가? - 공공미술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 공적영역에서 예술가의 역할을 무엇인가? - 공공미술은 누구의 소유인가? - 공공디자인 vs 공공미술, 기능성인가 예술성인가?
2차	공공미술을 위한 제도의 역할	- 건축물미술작품, 사유재산에 대한 규제인가 아니면 공익을 위한 개입인가 - 공공미술과 정부의 역할 : 아카이빙과 사후관리 - 생애주기(Life Cycle)를 고려한 공공미술 관리강화 방안 - 공공미술의 수명 : 미술가의 권리와 공공의 권리 - 건축물미술작품심사 제도개선
3차	'공공'과 '예술'의 경계탐색	- 예술과 일상공간의 능동적 소통으로서의 공공미술 - 예술의 영역확장을 위한 플랫폼으로서의 공공미술 - 지속가능한 공공콘텐츠로서의 공공미술
4차	'공공성'이란 공동작업	- 과정으로서의 공공미술 - 공공미술에 있어서의 시민(citizen)과 중개인(mediator)의 역할 - 시민주도형 공공미술의 새로운 지평





2) 지역협력형사업

사업 개요

지역협력형사업은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문화의 균형발전과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예진흥기금과 16개 시·도의 지방비를 매칭하여 시행되는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이다.

사업추진 법적근거 및 추진과정

지역협력형사업은 문화예술진흥법 제 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및 제 19조(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에 의거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중앙문예진흥기금'의 명칭으로 사용된다.

사업의 기본적인 추진체계는 시·도가 사업계획서를 예술위원회에 제출하여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아 시·도 또는 문화재단이 사업을 시행하고, 시·도에서 사업 추진상황보고서와 성과 및 정산 보고서를 제출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예술위원회는 진행된 사업의 사업평가를 진행하고 다음해 사업계획 수립을 하게 된다.

사업을 운영하는 기관은 문화재단이 있는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문화재단에서 지역협력형사업을 최대한 관리·운영하도록 하고, 문화재단이 없는 경우 모든 사업을 자치단체가 직접 관리·운영하고 있다.

사업주체 및 예산편성

사업의 추진주체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시·도, 최종보조사업자로 이루어진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사업을 총괄하는 주체로 지역협력형사업에 대한 기본계획과 세부지침을 수립하고 시·도별 심의위원 추천, 지원심의 참여, 보조사업 현장 점검, 사업성과 및 정산 보고서를 검토하는 일을 하며, 시·도 및 문화재단에 지원심의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지역협력형사업의 성과 평가를 진행하는 역할을 한다. 시·도에서는 매칭을 위한 지방비를 확보하고, 예술위원회에 보조금 지원신청 및 교부신청을 하고 보조금을 지급받으면 시·도가 직접 지역협력형사업을 주관하거나 문화재단에 일임하여 시행한다. 그리고 사업추진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예술위에 제출한다. 최종보조사업자는 시·도 및 문화재단에 보조금 교부신청과 수령, 보조사업 수행 및 자체 성과 평가를 실시하며 시·도 및 문화재단에 사업성과 및 정산 보고서를 제출한다.

사업구분 및 내용

지역협력형사업은 사업 내용에 따라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원›, ‹시·도 기획지원›, ‹지역문화 예술육성지원›, ‹우리가락우리마당지원› 등으로 나누어지며 각각의 사업마다 특징적인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있다.



[표 32] 지역협력형사업의 내용

출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2지역협력형사업 수행과정 및 추천사례>참고

구분	목적 및 주요 내용
공연장상주단체지원사업	- 공연예술단체와 문화시설 간의 인적·물적 협력관계 조성지원을 통해 공연장 가동률 제고 및 공연예술 활성화 도모
레지던스프로그램지원	- 레지던스프로그램의 창작-소통-향유 시스템에 대한 지원으로 지역예술가 발굴 및 창작여건 개선 통한 창작활성화와 예술교류 활동 증진 - 지역주민연계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지역문화예술 향유권 신장 및 커뮤니티 활성화 - 지역의 다양한 유휴시설을 문화예술 창작 레지던스 공간으로 활용 가능토록 하여 지역재생과 문화자원 개발에 기여
시·도 기획지원	- 각 지역의 역사적 경험과 문화적 배경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 문화예술현장 활성화 및 문화예술발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 지원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	- 지역의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가의 각종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문화예술 역량을 제고하고 문화향유권을 신장함

이 중 ‘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원’ 사업과 ‘시·도 기획지원’사업에서 공공미술적 성격을 가지고 진행되는 사업들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시·도 기획지원사업은 추진방향에 있어 공공미술 관련사업, 공공예술프로젝트 추진을 권장을 하고 있어 각 지역별로 공공미술과 관련하여 진행된 사업들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 2012 지역협력형사업 내용

2012년에 진행된 지역협력형사업으로 진행된 사업 중 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원과 시·도 기획지원사업을 중심으로 공공미술과 관련한 사업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3] 2012 지역협력형사업 레지던스 프로그램지원, 시·도 기획지원 주요내용

구분	지역 (운영기관)	수행단체	사업명	내용	예산
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원	부산 (부산문화재단)	오픈스페이스 배	2012 open to you - International AIR	워크숍, 오픈스튜디오, 무빙테이블, public art project 등 진행	5천만 원
	대전 (대전문화재단)	디토 플러스	평촌동 프로젝트, 원정동 마을미술 프로젝트, 볏짚 미술제	전시, 마을벽화, 안내판 정비, 자연 친화적 성격의 볏짚 미술제 실시	3천만 원
	충청남도 (충청남도)	(사)한국자연 미술가협회	야투자연 미술의 집	자연미술 운동으로서의 공공미술 프로그램, 국제레지던스	4천만 원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사)남구문화원	오픈 스페이스-숲	예술의 숲 멘토링 프로그램, 공공미술설치 프로그램 등	2천5백만 원
시·도 기획지원	경기 (경기문화재단)	배영환	내일을 여는 책방	컨테이너 책방, 커뮤니티 아트	5백만 원
		최정화, 조민석 외	예술이 흐르는 공단	산업단지 근로가자 이용하는 공간에 현대 미술 작품 설치	8천2백만 원
	부산 (부산문화재단)	광안리 사람들 외	2012지역문화 예술기획 지원사업- 부산청년문화 수도프로젝트	거리예술에 해당하는 ‘그래피티 부산’	1억9천만 원
	제주 (제주문화재단)	공연창작 스튜디오 페이스	하례예술 놀이터 - 꿈꾸는 고물상	빈 집 프로젝트	1억

2012년의 지역협력형 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원과 시·도 기획지원 사업에 대한 세부분석은 「2012레지던스프로그램지원사업성과공유」와 「2012년지역협력형 평가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고, 우수사례로 평가받은 것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레지던스프로그램지원에서는 대전문화재단의 '디토플러스'작업을, 시·도 기획지원사업에서는 부산문화재단의 '2012지역문화예술기획지원사업-부산청년문화수도프로젝트'에 대해 분석하였다.

· 대전문화재단 레지던스프로그램 – 디토 플러스(Ditto+)

디토 플러스는 대전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작가 4인과 기획자로 구성된 그룹으로 각각 독창적인 작품세계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예술적 소통이라는 목적으로 함께 활동하며 현재 미술이 당면하고 있는 시대적인 상황과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위해 예술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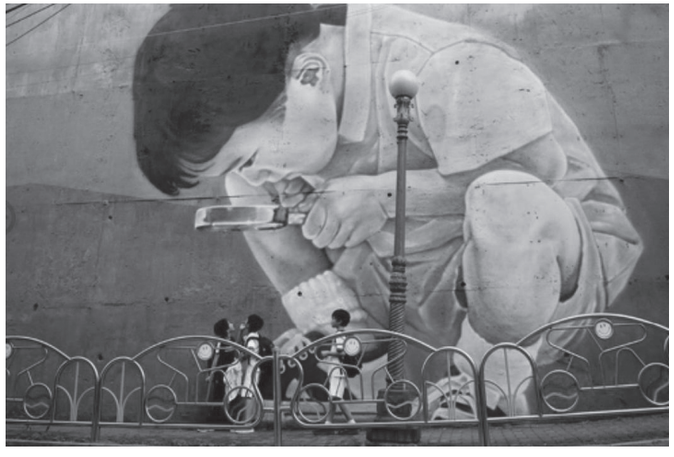
[표 34]
대전문화재단 레지던스프로그램 지원 — <디토 플러스> 공공미술사업 세부분석

출처: «2012년 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원사업 성과공유» 포럼 자료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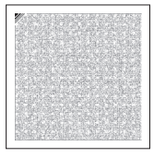
프로젝트명	대전문화재단 레지던스프로그램지원 —「디토 플러스」
프로젝트 목적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 타 예술계층과 교류하고 지역사회의 요구와 필요를 예술로서 충족
설치장소	대전 서구 일대
사업년도	2012
예산	3천만 원
주최/주관	(주최)한국문화예술위원회, 대전시, 대전문화재단(주관)디토 플러스
협력기관 참여작가/단체	(참여작가)디토 플러스(김원태, 김태훈, 남형돈, 성도형)
주요매체	벽화, 전시, 디자인(간판, 벤치), 조형예술, 커뮤니티 아트
프로젝트의 특징	주민참여, 소외지역 문화 향유 기회 제공, 축제로서 활용
내용종합	2012 대전문화재단의 레지던스프로그램으로 선정된 디토플러스의 작업들은 2013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소통의 예술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는 디토 플러스는 이번 레지던스프로그램사업을 통해 전시로는 'Group Ditto+ Intro 전', '미술의 두 얼굴 전-초청교류전'을 진행하고, 공공미술프로그램으로는 '평촌동프로젝트', '원정동 마을미술 프로젝트', '벗짚 미술제'를 진행하였다. 작업이 진행된 대전의 서구 평촌동과 원정동 일대는 그동안 문화적인 혜택을 받지 못했던 도심외곽의 농촌지역이다. 이에 이곳에 공공미술 프로그램들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문화에 대한 경험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지역만이 가진 고유의 특징을 살리고 지역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참여토록 하였다. 공공미술 프로그램으로 벽화를 비롯하여 안내간판과 문패제작을 진행하였고 조형벤치를 만들었다. 특히 지역주민과 작가 관람객이 하나가 되는 벗짚 미술제와 같은 축제를 기획하여 지속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하였다. 벗짚 미술제는 대전 서구 원정동 일대 농촌지역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벗짚과 겨, 그 밖에 자연적인 재료를 가지고 볼거리를 제공하였다. 자연친화적이고 자연과 융화되는 미술제를 통해 특성화 마을로 자리 잡고 관람객을 유치하며 지속적인 축제로 발전하여 앞으로 대전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 부산문화재단 2012지역문화예술기획지원사업 – 부산청년문화수도프로젝트

부산문화재단의 2012년 지역문화예술기획지원사업은 부산지역에 '도시공공예술프로젝트'와 관련하여 공모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여 공모사업으로 진행되었다. 부산의 역사와 문화를 고려하여 부산의 문화예술현장 활성화와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을 통해 부산의 문화적 특성과 최근의 문화예술의 흐름을 반영한 공공예술프로젝트를 통해 부산의 문화발전에 도모해야 할 사업으로 부산청년문화수도프로젝트가 선정되었다.







[표 35]
2012지역문화예술기획지원사업 — <부산청년문화수도프로젝트> 공공미술사업 세부분석

출처: «2012년 레지던스프로그램 지원사업 성과공유»포럼 자료집

프로젝트명	**2012지역문화예술기획지원사업 — 『부산청년문화수도프로젝트 : 그래피티 부산』**
프로젝트 목적	- 청년문화를 중심으로 미래지향적 부산문화의 정체성확 립 - 청년문화의 국제적 중심지, 부산 청년문화수도 프로젝트 - 일회적 교류와 이벤트를 넘어 지속가능한 청년문화생태계 구축
설치장소	부산 광안리 일대
사업년도	2012. 4 – 12
예산	1억 9천만 원
주최/주관	(주최)한국문화예술위원회, 부산시, 부산문화재단 (주관)부산청년문화수도집행위원회
협력기관 참여작가/단체	(참여단체)광안리 사람들, 부산노리단, 대안문화행동 재미난 복수, 생활기획공간 통 외 다수
주요매체	벽화, 교육프로그램
프로젝트의 특징	랜드마크 기능, 축제로서 활용
내용종합	부산청년문화수도프로젝트는 광안리 사람들을 중심으로 여러 단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진행되었다. 세부사업은 크게 축제'광안리 사운드웨이브 페스티벌', 거리예술 '그래피티 부산', 학술 '청년문화아카데미'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부산의 광안리 일대를 중심으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었고 시각예술과 관련된 '그래피티 부산'은 광안리 일대의 거대 벽면에 그래피티 작업들을 진행하여 상직적인 랜드마크를 만들어내려 했다. 그래피티 작업은 국내작가(kAY2 : 구현주)와 해외 유명 그래피티 작가(ECB : Hendrick Barkirhi)를 초청하여 진행하였다. 특히 해외작가들은 입국 전 부산에 대한 정보를 통해 스케치를 구상하였다. 입국 후 직접 부산을 방문하여 지역과 소통하고 장소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계획을 수정해 나가는 등 그래피티 작업이 이 지역의 의미 있는 작업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래피티 작업은 2개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국내의 구현주 작가는 광남초등학교 인근 벽면을 활용하여 돋보기로 행인을 관찰하는 거대한 소년이 '세상을 관찰하는 아이'를 그렸다. 독일 작가 헤드릭 바이키르히(Hendrick Barkirhi)는 민락어민활어직판장 주차타워 벽면에 나이 든 어부의 초상인 '역경이 없으면 삶의 의지도 없다'라는 작품을 완성하였다. 그래피티가 완성된 후 부산문화재단의 조사로 진행된 지역민 대상 설문조사에서 작품의 내용과 주변과의 어울림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추진 공공미술사업 사례조사·분석의 종합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진행한 공공미술사업은 '도시공원 예술로'와 '공공미술전문가 교육 (아르코 퍼블릭 아트 오픈 콜 오디션)'으로 두 사업 모두 2년 과정으로 진행되어 2012년은 기획과 공모의 시간을 가졌다. 이는 기획, 공모, 작품설치, 정산까지 1년 안에 이루어지는 단년도 사업 일정에서 오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좀 더 심화되고 유연한 운영을 통해 사업의 과정과 결과물의 질적 성장을 만들어내고자 한 것이라 사료된다.

'공공장소 속의 미술(Art in Public Places)'형으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공공장소인 도시공원을 대상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기존의 도시 공원에서 이루어지는 조형물 중심의 조각공원의 형태를 벗어나고자 하였다.

도시공원 예술로 사업은 4곳의 공원을 선정하였고, 기획자를 선출하여 각 선정지역의 특성과 장소성, 주민들의 의견반영을 통해 공원 내에 예술작품 설치와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공미술전문가 교육프로그램인 아르코 퍼블릭 아트 오픈콜 오디션은 공공미술작가를 발굴, 육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는 기존의 공공미술사업에 참여하고 투입되었던 작가들이 공공성과 만나 부딪히는 한계와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공공미술작가로서 활동할 수 있는 교육과 참여(설치)의 기회를 마련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012년 기타 관련사업으로 진행한 공공미술토크시리즈와 지역협력형사업은 각각 다양한 현장경험을 공유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심포지엄 개최와 지자체 기금지원을 통해 공공미술의 활동을 유도하는 등 공공미술의 저변확대에 기여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표 36]
201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추진 공공미술사업, 기타 관련사업 현황

구분	사업명	대상지	수행단체
공공미술사업	도시공원 예술로	부산 외 3곳	와이즈 건축 외
	공공미술 전문가교육 프로그램	한국문화 예술위원회	마로니에 다방, 오프닝
기타 관련사업	공공미술 토크시리즈	한국문화 예술위원회	한국문화 예술위원회
	지역협력형사업	전국	광역자치단체 및 산하재단

5장 국내 공공미술사업 사례조사·분석 (2012)

1. 국내 공공미술사업 사례조사·분석 개요
2. 국내 공공미술사업
3. 국내 공공미술사업 사례조사·분석의 종합

1. 국내 공공미술사업 사례조사·분석 개요

조사설계 및 자료 분석방법

[표 37] 국내 공공미술사업 사례조사·분석의 개요

구분	조사 개요
조사지역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 (17개 시/도 및 227개 시/군/구)
조사대상	공공미술 관련사업
조사방법	해당부처 및 지자체, 수행단체(민간업체 및 단체, 작가 등) 협조를 통한 정보수집

[표 38] 국내 공공미술사업 사례조사·분석의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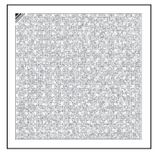
구분	주요 내용
프로젝트 개요	프로젝트 명 / 장소 / 사업년도 / 규모 / 주최 및 주관 / 예산 등
프로젝트 내용	프로젝트의 주제 / 실행유형 / 프로젝트의 특징 등
기타 자료	프로젝트 세부실행과정 / 실행결과물 (보고서, 이미지 등)

사례조사·분석의 구분

국내 공공미술 사례 조사는 시행주체별로 정리하였고 시행주체는 정부추진 공공미술사업, 지자체 추진 공공미술사업, 민간 및 기타 추진 공공미술사업으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그리고 시행주체별로 공공미술을 목적으로 한 사업과 공공미술의 매체나 방법들을 이용한 관련 사업들을 기타 관련사업으로 나누어 현재 공공미술사업의 전체적인 경향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또한 최근 3년간 시행주체별 공공미술사업 진행현황 및 성격 등을 제시하였다. 구체적 설치이미지 및 사례제시를 통한 프로젝트의 특징, 종합적 내용 분석 등은 2012년에 진행된 공공미술 관련 프로젝트로 제한하여 구성하였다.

사례분석에 있어서는 요즘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시설정비 및 조성, 교육, 문화예술 프로그램 등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휴먼웨어를 어우르는 다양한 분야적 접근이 시도되고 있어 보고서 작성을 위한 사례분석 범위는 시각예술 위주의 작업으로 제한하였다.



사례조사·분석의 방법

국내 공공미술사업 추진사례를 조사하기 위해 우선 부처별 홈페이지, 간행물, 보도자료 및 담당자 전화인터뷰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여 2012년도에 추진된 공공미술사업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파악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부처 및 지자체, 실행단체(민간업체) 등에 협조를 요청하여 추진된 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자료를 수집하고 해당 사업의 단장 및 담당자, 부처 및 기관 담당자 전화인터뷰를 통해 사업별 우수사례를 추천받아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였다.

2. 국내 공공미술사업 사례조사·분석 결과

본 보고서는 공공미술의 다양한 가치를 모색하고 공공미술의 저변을 확대하는 등 공공미술 자체가 사업의 목적 및 방향이 되거나, 공공미술을 통해 사회·문화적인 다양한 가치를 드러내고 긍정적 효과를 창출하는 사업을 위주로 하여 조사·분석하였다. 또한 시장 및 지역경제, 관광 활성화, 생활 및 교육환경 개선 등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다양한 사업의 수단으로 공공미술을 활용하는 경우들도 많은 바, 이러한 사업들을 기타 관련 사업으로 분류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먼저 주체별로 공공미술사업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공공미술사업과 기타 관련사업으로 구분하고 2012년도 사업을 중심으로 세부분석을 진행하였다.

(1) 공공미술사업

1) 정부추진 공공미술 관련사업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공공미술 관련사업은 마을미술프로젝트와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이 있다.

[표 39] 2012년도 정부추진 공공미술 사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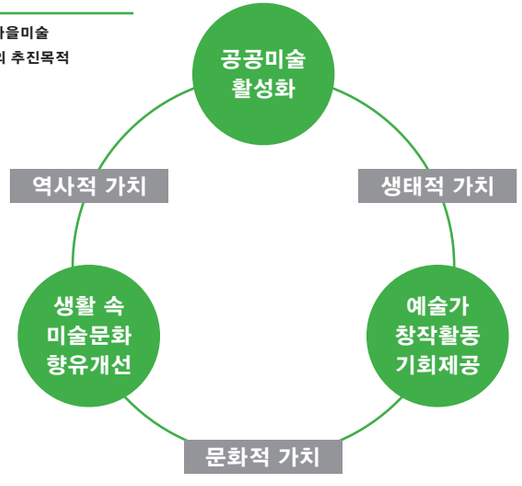
시행기관	사업명	시행부서	추진주체(산하기관)
문화체육관광부	마을미술 프로젝트	예술정책과	마을미술추진위원회
	생활문화 공동체만들기	지역민족문화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① 마을미술프로젝트

마을미술프로젝트는 생활공간 공공미술로 가꾸기 사업이다. 미술문화의 대중화를 통한 공공미술 활성화를 목표로

지역미술가들에게 창작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건조한 생활환경을 공공미술로서 환기시킨다. 또한 다양한 참여 주체들 간의 소통을 바탕으로 역사·생태·문화적 가치가 잠재되어 있는 마을과 거점시설을 공공미술을 통해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시작되었다. 마을공동체 참여를 통한 문화 공간 조성으로의 접근을 위해 회화, 디자인, 조각, 평론, 언론, 기업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마을미술프로젝트 추진위원회와 사업진행을 위한 사무국을 조직하여 공공미술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마을미술프로젝트는 대규모 미술마을 조성과 일상공간의 예술적 재구성을 통해 지역의 문화예술 공간을 창출하고 주민의 생활 속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제공하며 공공미술 지역작가 육성, 그리고 미술을 통한 마을재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장소성과 필요성, 작품성, 협업성과 참여성, 실현가능성, 공공성을 중심으로 공모와 심사를 통해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여 학제간(분야간) 협력과 지역과 주민이 주체가 되어 프로젝트를 실행함으로써 예술을 통한 자생적 공공미술 사례와 지역재생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도표 1] 마을미술 프로젝트의 추진목적



마을미술프로젝트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 지자체가 행정적 지원주체로서 각각 국비 및 지방비를 지원한다. 마을미술 프로젝트추진위원회와 사무국이 내용적 지원주체로서 사업대상지 공모, 심사, 선정, 자문 등의 역할을 한다. 지역단체와 주민이 사업실행의 주체로서 지역의 역사적 가치와 생태적 가치, 문화적 가치 실현을 위한 자발적 참여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2009년부터 시작된 마을미술프로젝트는 2012년까지 총 57개가 진행되었으며, 2011~2012년 기 진행사업지역에서 진행된 기쁨 두 배 프로젝트(8개 프로젝트)를 제외하면 총 49개 지역에 이른다. 2009년부터 진행된 마을미술프로젝트의 기본적 실행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 40] 마을미술 프로젝트 진행현황

사업실행년도	공모유형		사업지역	
2009 (사업비: 총20억 원)	우리동네미술공간만들기		서울3곳 포함 8개 지역	전국 21개 지역
	길섶 미술로(路) 꾸미기		경기(양평) 포함 9개 지역	
	공공미술의 꽃 피우기	공공의 예술담장 만들기	경기(남양주) 포함 2개 지역	
		테마가 있는 공공미술	경기(김포)포함 2개 지역	
2010 (사업비: 총24억9천8백만 원)	우리동네 문화소동		서울시(마포구) 포함 10개 지역	전국 15개 지역
	테마이야기	주제1	충북(보은군) 포함 2개 지역	
		주제2	강원도(영월군) 포함 3개 지역	
2011 (사업비: 총18억 원)	행복프로젝트 (규모 있는 미술마을 조성)		경북(영천시)	전국 10개 지역
	기쁨 두 배 프로젝트 (기 진행사업 중 가능성 있는 프로젝트 추가지원)		강원도(인제시) 포함 4개 지역	
	테마이야기 (소규모 대상지 거점지역)		강원도(철원군) 포함 5개 지역	
2012 (사업비: 총20억 원)	행복프로젝트 (규모 있는 미술마을 조성)		제주도(서귀포시)	전국 11개 지역
	기쁨 두 배 프로젝트 (기 진행사업지 중 추가지원의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프로젝트)		강원도(철원군) 포함 4개 지역	
	예술의 정원	마을이야기 프로젝트	서울(강서구) 포함 4개 지역	
		예술적 외관조성 프로젝트	—	
		생태미술 프로젝트	서울(성북구) 포함 2개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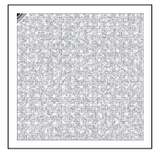
※ 위에 제시된 사업비는 국비지원만이 제시된 금액임

마을미술프로젝트의 기본적인 사업목표는 동일하나, 마을미술 프로젝트와 유사한 다양한 사업이 지속적으로 개발된다. 전국에 공공미술사업이 진행된 곳이 점차 많아져 마을미술프로젝트 사업 진행의 목표는 매년 조금씩 변화되고 있다.

2012년 마을미술프로젝트는 지역의 정체성과 특성을 기반으로 한 공공미술사업을 진행하여 지역민의 예술향유 및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 역사, 문화, 생태, 정서적으로 분명한 특색을 드러냄을 통해 지역의 거점과 공간을 문화 예술 공간으로 재창조하고자 하였다. 또한 2009년 마을미술 프로젝트 중 우수한 곳을 연계하여 예술지도(Art map)화 하고, 지역의 타 문화예술자원과 연계하여 예술여행(Art Tour)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프로젝트의 확장성과 발전가능성을 확보하고, 지역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동시에 국제적인 공공미술 명소로 부각되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1]

2012년 마을미술프로젝트는 제주도를 비롯한 전국 11개 지역에서 진행되었으며, 행복프로젝트(규모 있는 미술마을조성), 기쁨 두 배 프로젝트(기 진행사업지 중 추가지원의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프로젝트), 예술의 정원(마을 이야기, 생태미술 프로젝트)의 3가지 형태로 구분되어 시행되었다.

2012년 진행된 마을미술프로젝트 중 마을미술프로젝트 사무국의 우수사례를 추천받아 행복프로젝트, 기쁨 두 배 프로젝트, 예술의정원 (마을이야기 프로젝트, 생태미술 프로젝트)에 대한 구체적 진행내용 및 특징을 파악하였다.



1. 마을미술 프로젝트 http://maeulmisul.org/new/gnuboard4/index.php

[표 41] 2012 마을미술 프로젝트 추진현황

사업구분	내용	프로젝트 (대상지)	사업비
행복 프로젝트	규모 있는 미술마을 조성	유토피아로 yoUtopia-ro 遊土彼我路 (제주도 서귀포시 송산동, 정방동, 천지동 일원)	총15억 원 (국비5억+지방비 10억)
기쁨 두 배 프로젝트	기 진행 사업지 중 추가지원의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프로젝트	Forever River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쉬리마을 내 화강교 (구김화교))	총2억1천만 원 (국비5천만 원 + 지방비1억6천만 원)
		피어라! 매화낙지(梅花落地) (전북 남원시 사매면 노봉리	총1억 원 (국비5천만 원 + 지방비5천만 원)
		감천문화마을 '마추픽추 골목길 프로젝트'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2동 감내2로 177-11)	총1억2천만 원 (국비5천만 원 + 지방비7천만 원)
		화순, 시장과 남산이야기 길 (전남 화순군 화순읍 삼천리 621번지 일원)	총1억2천7백만 원 (국비5천만 원 + 지방비 8천7백만 원)
예술의 정원	주제1. 마을이야기 프로젝트	강서 역사와 문화의 향기를 따라 걷다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47길 일대)	총1억5천만 원 (국비5천만 원 + 지방비1억 원)
		뚝딱뚝딱 "고추 먹고 맴맴" (충북 음성군 생극면 생리 570 (동요학교 및 동요마을))	총2억 원 (국비5천만 원 + 지방비1억5천만 원)
		그리움과 꿈의 시간 — 백로의 여행 (강원도 횡성군 읍상리 295-32일원)	총1억5천만 원 (국비5천만 원 + 지방비1억 원)
		예술정원이 있는 축제장 마을 (안동시 축제장 1길9)	총1억 원 (국비5천만 원 + 지방비5천만 원)
	주제3. 생태미술 프로젝트	하늘과 마음이 닿는 물길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 130-2번지 일대 성북천)	총1억 원 (국비5천만 원 + 지방비5천만 원)
		맛있는 도심정원(Edible Urban Garden) (수원시 팔달구 행궁동 (화성행궁광장 일원))	총1억 원 (국비5천만 원 + 지방비5천만 원)

·행복프로젝트

『유토피아로 yoUtopia-ro 遊土彼我路』

제주도는 기원전 3세기 불로장생을 꿈꾸던 진시황, 15세기 장수를 소원하던 세종대왕, 20세기 이중섭에게 각각 불로초가 있고, 남극노인성을 볼 수 있으며,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유토피아였다는 것에 주목하였다. 『유토피아로 yoUtopia-ro 遊土彼我路』프로젝트는 판타지의 기운이 서려있는 서귀포에 예술길을 만들어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이 땅을 찾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유토피아를 찾아주고자 하였다. 지역의 숲과 바다, 길과 집은 유토피아의 4개의 테마를 구성하고, 그 중심에는 사람이 있다. 유토피아는 사람에 의해 만들어지고 사람에 의해 실현되며, 예술로서 표현되고, 문화로서 재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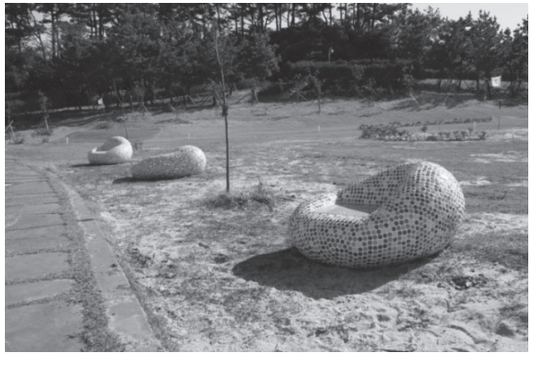
















[표 42]
2012 마을미술프로젝트 —
『유토피아로 yoUtopia-ro
遊土彼我路』
공공미술사업 세부분석

출처: 마을미술프로젝트
홈페이지(www.maeulmisul.org)

프로젝트명	**마을미술프로젝트 — 행복프로젝트** **『유토피아로 yoUtopia-ro 遊土彼我路』**
프로젝트 목적	1. 마을미술프로젝트 - 지역의 역사적, 문화적 정체성을 문화콘텐츠화 하는 공공미술 사업 [행복프로젝트] : 종합적 기획을 통한 대규모 미술마을 조성 2, 신비의 섬 제주 - 서귀포시의 신비로움을 예술을 통해 부각 3. 거대한 미술마을 조성 - 예술콘텐츠로 이어진 4.9km의 길을 '유토피아로'로 보고 이 길을 따라 '너와 내가 만나 문화를 이야기하며 즐길 수 있는'거대한 미술마을 조성
설치장소	제주도 서귀포시 송산동, 정방동, 천지동 일원
사업년도	2012. 3. – 2013. 2.
예산	15억
주최/주관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12마을미술프로젝트 추진위원회
협력기관 참여작가/단체	(참여작가) 최미경 포함 34명(팀)
주요매체	벽화, 조각, 사진, 미디어, 커뮤니티아트 등
프로젝트의 특징	장소마케팅, 환경개선, 문화접근성 증대, 다양한 가능성의 실험
내용종합	제주도에서 진행된 2012 마을미술프로젝트는 행복프로젝트의 사업유형으로 '유토피아로(yoUtopia-ro, 遊土彼我路)'라는 주제아래 숲, 집, 바다, 길이라는 4개의 테마로 나뉘어 추진되었다. '유토피아로'는 판타지의 기운이 서려있는 서귀포에 예술 길을 만들어 지역의 정체성을 콘텐츠로 발굴하여 예술로 나타난 결과물로 지역의 활성화를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서귀포는 신비로운 섬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나 제주도의 다른 지역에 비해 관광객의 수요가 적다. 이에 '유토피아로'라는 예술 산책로를 조성하여 관광수요를 증가시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루려는 거대한 문화마을 조성의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지역의 폐가를 전시공간으로 조성하고 마을 곳곳에 벽화나 조형물 등의 공공미술을 설치하여 쇠락했던 지역의 외관을 변화시키는 환경개선의 모습이 나타났다. 이를 통해 문화 콘텐츠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던 이 지역에 다양한 콘텐츠적 요소를 제공하여 그간 문화적 혜택과 거리가 멀었던 지역민들에게 문화 접근성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였다. 마지막으로 서귀포를 대상으로 하는 장소 특정적 경험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고 과거 사진을 수집하고 이를 기록하여 만든 전시<행복한 사진관, 정방DP사>, 국내 작가들의 재능기부를 받아 제작한 작품설치 <Natural Wave> 등을 통해 작품제작에 대한 다양한 시도를 보여주었다.

·기쁨 두 배 프로젝트

『감천문화마을 '마추픽추 골목길 프로젝트'』

2009년 마을미술프로젝트를 시행했던 부산시 사하구 감천2동에 추가사업을 진행하여 도시재생과 마을 만들기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이미 전국적인 명소로 알려져 많은 관람객들이 찾는 '감천 문화마을'에 문화예술 요소를 더하여 관광자원으로서 입지를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2012년의 마을미술프로젝트는 감천동 프로젝트 대상지 마을 내부로 침투함으로써 주민과 소통하고 협업하는 커뮤니티아트 취지에 충실하며 마을의 문화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표 43]
2012 마을미술프로젝트 —
기쁨 두 배 프로젝트 부산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마추픽추 골목길 프로젝트』
공공미술사업 세부분석

출처: 마을미술프로젝트
홈페이지(www.maeulmisul.org)

프로젝트명	**마을미술프로젝트 —** **기쁨두배 프로젝트『마추픽추 골목길 프로젝트』**
프로젝트 목적	- 2009년 마을미술프로젝트(꿈꾸는 부산의 마추픽추)를 시행했던 부산시 사하구 감천 2동 일원에 추가적인 마을미술프로젝트를 실행, 도시재생과 마을 만들기 효과 극대화 - 공공미술프로젝트의 지속적인 적용을 통해 마을에 활기를 불어 넣고 대상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 이미 전국적인 명소로 알려져 많은 방문객들이 찾는 '감천 문화마을'에 문화예술요소를 보태 관광자원으로서의 입지 강화
설치장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2동 감내2로 177-11
사업년도	2012. 5. 1. – 2012. 12. 31
예산	총 1억 2천만 원 (국비 5천만 원, 지방비 7천만 원)
주최/주관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12마을미술프로젝트 추진위원회
협력기관 **참여작가/단체**	(참여단체) 아트팩토리 인 다대포
주요매체	벽화, 조각, 영상, 미디어, 커뮤니티아트
프로젝트의 **주요특징**	장소마케팅, 공동체 문화형성
내용종합	부산광역시 사하구의 감천 문화마을은 2009년에 이어 마을미술프로젝트의 기쁨 두 배 프로젝트 추가 사업지로 선정되어 사업이 진행되었다. 이번 사업은 이미 전국적으로 알려져 많은 방문객들이 찾는 감천 문화마을에 예술적 관광자원을 추가하여 문화마을이라는 입지를 굳히고, 공공미술 프로젝트의 운영을 통해 낙후지역이었던 마을에 활기를 불어넣어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자부심을 고취시키고자 하였다. 특히 이번 사업은 그동안의 작품들에 흥미와 재미를 유발하는 작업들을 더하여 관광객들의 관심을 증가시키고 유도하였는데 그것은 많은 포토존과 골목길 투어코스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09년의 사업내용이 마을의 외관을 정비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면 2012년 사업은 커뮤니티아트의 성격을 강화하여 주민들과 소통하고 협업하는 형태의 작업들을 많이 진행하였다. 이미 2009년부터 주민들의 참여율과 관심이 높아 '감천문화마을협의회'가 만들어져 지속적으로 마을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특히 이번 사업에서는 작가들과 지역민 100여명이 참여하여 함께 <골목을 누비는 물고기>를 제작하는 등 커뮤니티 작업을 강화하여 공동체 문화형성에 기여하였다.

·기쁨 두 배 프로젝트
강원도 철원『Forever River』

강원도 철원의『Forever River』는 2010년부터 2012까지 3년 연속으로 진행된 사업으로 2010년 쉬리 조형물, 2011년에 다슬기 조형물이 화강교(구 김화교) 다리위에 설치되었으나, 주민들과의 소통의 공간으로는 발전하지 못하는 아쉬운 점을 남겼다. 이에 2012년에는 쉬리와 다슬기 연계 사업으로 다리를 휴식과 사색의 공간으로 구성하여 사계절동안 낮과 밤에 관계없이 걷고 싶은 다리, 명상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다리를 만들어 쉬리를 마을의 상징물로 만들고자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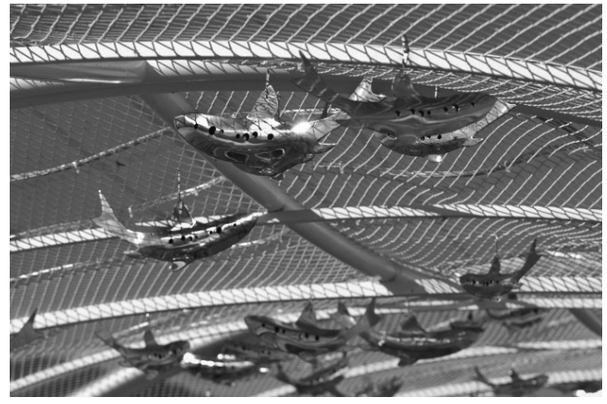


[표 44]
2012 마을미술프로젝트 — 강원도 철원「Forever River」공공미술사업 세부분석

출처: 마을미술프로젝트 홈페이지(www.maeulmisul.org)

프로젝트명	**마을미술프로젝트 — 기쁨 두 배 프로젝트 강원도 철원「Forever River」**
프로젝트 목적	- 지역의 특성상 문화적 접촉이 부족했던 철원 주민들의 미술에 대한 의식 확산 - 철원 주민들의 예술적 체험과 지역에 대한 자긍심의 고취
설치장소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쉬리마을 내 화강교(구 김화교)
사업년도	2012. 5. – 2012. 9. 30
예산	총 2억 1천만 원 (국비 5천만 원, 지방비 1억6천만 원)
주최/주관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12마을미술프로젝트 추진위원회
협력기관 참여작가/단체	(참여작가) JSA 조형 연구소
주요매체	조형물 설치, 커뮤니티아트
프로젝트의 주요특징	문화 접근성 증대 , 장소마케팅, 환경개선
내용종합	강원도 철원군의 기쁨 두 배 프로젝트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 연속으로 진행되었다. 지속적인 사업을 통해 그동안 지역의 특성상 문화 접촉의 기회가 적었던 철원에 다양한 문화향유의 기회가 제공되었다. 3년 연속으로 사업이 진행된 것은 이 지역을 철원의 랜드마크로 만들고자 함이다. 사용하지 않는 다리 위에 조형물을 설치하면서 시작된 사업이 지속사업으로 추진되며 한 해 한 해 문화적 공간으로 변화를 추구하고 이를 통해 많은 관광객들의 방문을 유도하고 있다. 2010 – 2011년의 사업으로 화강교 다리 위에 조형물을 설치하여 예술적 공간을 만들어냈지만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한 점을 보완하였다. 2012년에는 주민들이 작품 활동 <강의 노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고 다슬기 축제와 얼음마당 축제를 진행하며 문화적 볼거리를 제공하여 주민들이 직, 간접적으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였다. 또한 사용하지 않는 다리를 예술작품으로 만들고 이에 더하여 휴식공간과 사색 공간을 만들어 문화예술적 공간으로 환경을 개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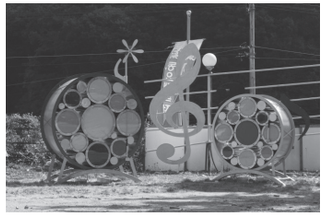
·예술의 정원: 테마이야기 –

충북 음성군『뚝딱뚝딱 고추 먹고 맴맴』

충북 음성군의『뚝딱뚝딱 고추 먹고 맴맴』은 동요 발상지로 마을 일대를 동요의 역사적 리듬과 함께 창의적 활동의 '뚝딱거림'이 있도록 공공미술을 통해 문화공간을 조성하며 방문객들에게는 호기심과 흥미를 주고자하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이 사업은 동요 문화를 예술적으로 계승함으로 지역민들의 자긍심을 고취 시키고 생활 속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공공미술을 통하여 동요마을에 대한 홍보와 문화 사업을 육성코자 하였다. 또한 동요의 청각적 요소와 미술의 시각적인 효과를 이용하여 동요 에듀케어 프로젝트의 기초 공간을 조성하려 하였다.









[표 45]
2012 마을미술프로젝트 —
충북 음성군
「뚝딱뚝딱 고추 먹고 맴맴」
공공미술사업 세부분석

출처: 마을미술프로젝트 홈페이지(www.maeulmisul.org)

프로젝트명	**마을미술프로젝트 — 예술의 정원 :** **충북 음성군「뚝딱뚝딱 고추 먹고 맴맴」**
프로젝트 목적	- 전래동요 발상지의 잠재된 문화를 공공미술로 승화시켜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어른들에게는 추억과 향수를 지역주민에게는 지역 경제 활성화 공간을 조성 - 동요를 테마로 하여 창의, 인성교육의 공간을 확보, 나아가 글로벌 명소화를 이룸 - 동요문화를 예술적으로 계승함으로 지역주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생활 속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 충족 - 공공미술을 통한 동요마을 홍보와 문화 사업 육성 - 동요의 청각적 요소와 미술의 시각적 효과를 이용한 동요 에듀케어 프로젝트 기초공간 조성
설치장소	충북 음성군 생극면 생리 570(동요학교 및 동요마을)
사업년도	2012. 4. – 2012. 10
예산	총 2억(국비 5천만 원, 지방비 1억5천만 원)
주최/주관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12마을미술프로젝트 추진위원회
협력기관 참여작가/단체	(참여작가) 뚝딱뚝딱 조형 연구소
주요매체	조각, 벽화, 미디어, 커뮤니티아트
프로젝트의 주요특징	장소마케팅, 다양한 가능성의 실험
내용종합	충북 음성군의 □뚝딱뚝딱 고추 먹고 맴맴□ 사업은 마을미술프로젝트 예술의 정원 사업 중 테마이야기에 속하는 사업이다. 이 지역은 동요발상지라는 잠재된 문화를 공공미술을 통해 승화시켜 문화공간으로 발전시키고 많은 방문객이 찾도록 홍보하여 지속적인 문화 사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의 목적을 갖는다. 또한 동요라는 청각적인 요소와 미술이라는 시각적인 요소를 결합한 프로그램과 작품들을 제작하여 호기심과 흥미를 유발시키고, 기존의 동요학교 주변으로 다양한 공공미술 작품들을 제작함으로서 많은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문화 공간을 조성하여 관광객들의 방문을 유도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 지역은 2010년 대통령 직속기관 지역발전 위원회 창조지역 사업으로 선정되어 현재까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동요 에듀케어 프로젝트'와 공공미술을 연계하여 프로젝트를 활성화 하려는 다양한 가능성의 실험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요를 살리고 확산하고자 예술로 승화시켜 색다른 문화콘텐츠를 제공하려 시도한 것도 이러한 특징을 잘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동요문화라는 지역의 정체성을 예술적으로 계승하여 지역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주민들로 하여금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생활 속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자 하였다.

·예술의 정원: 생태 미술프로젝트
경기 수원시『맛있는 도심정원(Edible Urban Garden)』

예술의 정원 생태 미술이야기 사업 중 경기 수원시의『맛있는 도심정원』은 도심의 유휴공간을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예술 생태 정원으로 바꾸고자 하는 계획으로 진행되었다. 이는 예술가와 지역 주민과의 공동 워크숍을 통한 작품들을 구축함으로서 시민들이 주도하는 공공미술로 만들고 그 결과에 대해 주인의식을 갖게 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

사업의 전체적인 콘셉트는 인스턴트 음식과 패스트푸드에 익숙해진 식문화를 날 것의 먹거리, 자연의 생명력을 화두로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과정을 체험하도록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다.

[표 46]
2012 마을미술프로젝트 — 경기 수원시『맛있는 도심정원(Edible Urban Garden)』 공공미술사업 세부분석

출처: 마을미술프로젝트 홈페이지(www.maeulmisul.org)

프로젝트명	**마을미술프로젝트 — 예술의 정원 : 경기 수원시『맛있는 도심정원(Edible Urban Garden)』**
프로젝트 목적	- 도심의 버려진 유휴지를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예술생태공원으로 변화시켜 일상의 중요한 부분인 먹을거리로 대표되는 자연을 접할 수 있는 문화공간 조성
설치장소	수원시 팔달구 행궁동(화성 행궁광장 일원)
사업년도	2012. 4. — 2012. 9. 30
예산	총 1억 원(국비 5천만 원, 지방비 5천만 원)
주최/주관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12마을미술프로젝트 추진위원회
협력기관 참여작가/단체	(참여작가) 에이브(ABE), 종합선물세트
주요매체	조각, 생태미술, 커뮤니티아트
프로젝트의 주요특징	환경개선, 공동체 문화 형성, 장소 마케팅
내용종합	예술의 정원 사업 중 생태미술프로젝트로 당선된 경기도 수원시 '맛있는 도심정원'은 도심의 버려진 공간을 이용하여 생태 미술을 실현하고자 기획되었다. 이 사업은 버려진 유휴공간에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주도하여 프로젝트의 전 과정(심고, 키우고, 열매 맺고, 먹는 행위)을 통해 문화적 공간을 조성하고자 기획하였다. 또한 과수원과 휴게 공간을 결합한 복합 휴식 공간을 만들고 생태 연못을 구성하는 등의 유휴공간을 변화시키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역 주민들과 예술가가 프로젝트의 전 과정에 함께 참여하고 공동의 워크숍을 진행, 결과물로 만들어지는 작품들을 통해 주인의식을 갖도록 만들고, 도시에서는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온실, 텃밭에서 작품을 경작하는 생태 체험에 참여하여 공동체 의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계기를 제공 (초보 도시 농부) 하였다. 마지막으로 유휴공간으로 인식되었던 지역에 '생태미술'이라는 특정 주제를 통해서 장소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적극적인 참여로 변화 될 수 있도록 하여 많은 지역민들과 방문객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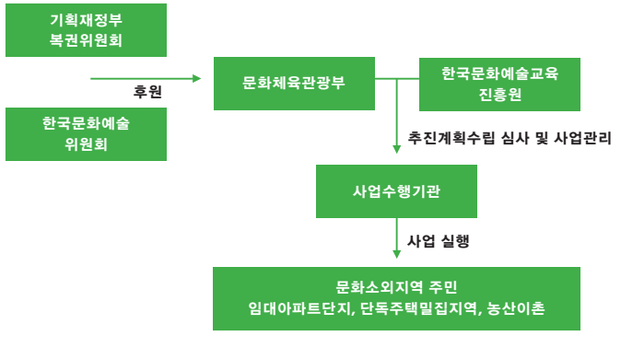


②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사업은 시민들이 자발적인 참여자로 문화예술활동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민들의 문화향수권을 보다 구체적으로 신장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지역주민이 문화예술의 '관람'이 아닌 '창작'으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문화적·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고, 이를 통해 공동체의 변화를 도모하고자 시작되었다. 2008년 시작된 이 사업은 '생활문화공동체' 즉, 문화예술활동을 매개로 한 생활공동체라는 의미의 공동체를 만들고, 지역의 역사·사회·문화적 자원을 활용하여 예술단을 만들거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등의 문화예술활동을 진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 대상은 문화소외지역을 우선으로 하여 지원되며, 사업대상지와 해당지역에서 활동하거나 활동가능한 문화예술단체를 매칭하여 진행된다.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사업은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의 일환으로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후원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최하고 있다.[2]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사업은 문화소외지역을 대상으로 하나 새로운 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내에 있는 문화공간을 활용하거나 지역의 여러 공간들을 문화공간화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업을 통해 지역민들이 주체적으로 지속적인 문화 활동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공간 활용을 위한 사업대상지 지자체와 협력이 중요하다.



[도표 2]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사업의 추진체계



2. 기존의 선행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재구성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2, 건축물미술작품제도 개선현황 및 출연기금 분배방안연구

2010년 사업부터 연속/신규지원을 시작하였고, 2011년에는 1년차, 2년차, 3년차로 지원 대상에 대한 사업 추진단계를 나누어 진행하였다. 2012년부터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오는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사업 추진과정 전반에 걸친 사업의 목표와 개념을 이해하고, 실제 현장에서의 문제들을 돕는 컨설팅 프로그램을 진행, 연차별로 차별화된 컨설팅을 수차례 진행하였다.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사업은 2009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체로서 진행하다가 2011년 사업이 이관되어 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 진행하였다. 2012년에 다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체가 되어 진행하게 되는데 이러한 사업 주체의 변경으로 사업 전체의 현황파악은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2012년에 진행된 사업 현황만을 다루었다.

2012년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사업의 사업세부분석은 사업 추진주체 담당자의 공공미술 관련사업을 추천받아 신규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총 3곳의 분석을 진행하였다.

2012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지원 사업 실행 현황

구분			지역		사업명	지원금액
1	연속지원	3년차	부산	북구	구포장 선창가에 춤추는 갈매기	40,000,000
2			경남	진주시	365일 모두의 축제마을 진주 강남	35,000,000
3			전남	영광군	우평 마을굿 축전	30,000,000
4			인천	부평구	열 우물, 오래된 미래를 꿈꾸다.	30,000,000
5		2년차	울산	울주군	마을주민이 만들고 가꾸는 문화 사랑방 '소호마을 문화학교'	45,000,000
6			전남	보성군	가마실 사람들 삶의 이야기	40,000,000
7			광주	서 구	The 소중한 문화 두드림(Do Dream)	30,000,000
8			충북	제천시	한밭들 까마귀 물곶 마을 이야기	40,000,000
9			전북	완주군	씽씽쌩쌩, 신바람 부는 삼기리	40,000,000
10	신규지원	1년차	울산	북구	농사와 예술이 만나는 홈골 커뮤니티 텃밭가든	55,000,000
11			서울	성북구	성북 커뮤니티 스쿨 만들기	40,000,000
12			경기	안산시	바벨디스코스(Babel Discours)	50,000,000
13			강원	원주시	호맷골 생활문화공동체 상상 프로젝트 '마을에서 세상을 보다'	20,000,000
14			인천	남구	어제는 앉은뱅이 내일은 기둥	55,000,000
15			충남	아산시	전통문화와 옛이야기가 흐르는 종곡리 느티장승마을	33,000,000
16			부산	금정구	장전 — 남산 커넥션	45,000,000
17			강원	춘천시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낭만골목'	50,000,000
18			경기	성남시	행복 봇들 '어울리니 기쁘지 아니한가'	47,000,000
19			강원	철원군	황이장과 박중사의 DMZ방송국	50,000,000
20			서울	마포구	마켓결합형 마을축제를 통한 공감마을 만들기	50,000,000
21			경기	광주시	생활문화축제로 풀어가는 세대공감	40,000,000
22			대구	중구	상화와 함께 하는 골목주민 다다(多多)프로젝트	45,000,000
23			경남	통영시	서포루 골목 마을 만들기	40,000,000
24			경남	창원시	진해 중앙동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프로젝트 '꽃비 내리는 동네'	35,000,000
합계						985,000,000

· 우각로 문화마을 –
『어제는 앉은뱅이 내일은 기둥』

우각로 문화마을은 2012년 신규 사업으로 선정되어 '어제는 앉은뱅이 내일은 기둥' 이라는 주제로 인천시 남구 숭의동 109번지 일대에서 지역민들과 거주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사업이 이루어 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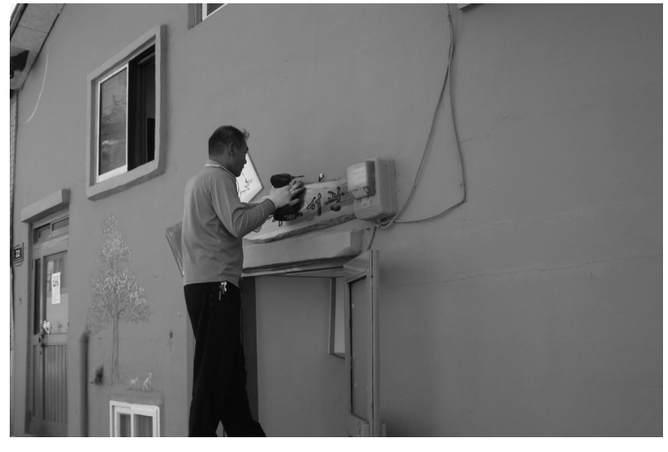
[표 48]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
우각로 문화마을
『어제는 앉은뱅이 내일은 기둥』
공공미술사업 세부분석

출처: 2012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 결과보고서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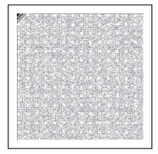
프로젝트명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 우각로 문화마을 『어제는 앉은뱅이 내일은 기둥』**
프로젝트 목적	- 재개발 지역 빈집에 예술가가 입주하여 마을 안에서 지역주민들과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을 하며 문화마을 조성
설치장소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동 109번지 일대
사업년도	2012. 6 — 2012. 12
예산	5천5백만 원
주최/주관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협력기관 참여작가/단체	(단체)우각로 문화마을
주요매체	벽화, 커뮤니티아트
프로젝트의 주요특징	레지던스를 통한 문화예술 확대, 마을 환경 정비
내용종합	인천광역시 남구 우각로 109번지 일대는 1900년대 중후반의 오래된 건축물들이 존재하는 곳으로 지역의 연령층도 노인인구가 전체의 20%이상을 넘는다. 또한 이 지역은 2003년부터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빈 집이 증가하였고 이러한 현상 때문에 범죄와 방화가 발생하는 등 지역이 활기를 잃어가는 곳이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술가들이 지역의 빈집에 들어가 작업실을 꾸미기 시작하면서 지역의 변화가 시작되었다. 예술가들의 작업실로부터 시작하여 지역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벽화작업과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었고, 이러한 환경개선을 위해 봉사자들을 모집하면서 지역민들이 모여 여러 가지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연극프로그램'을 통해 동네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토대로 연극을 만들어 공연하면서 다양한 계층이 직, 간접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마을축제'를 통해서 주민들 스스로가 축제를 구성하고 준비하여 타지역민들을 초대하여 마을의 활동을 소개하는 등 주민들이 지역에 대한 애정과 문화를 통한 삶의 질을 향상 시켰다. 그리고 문화에 대한 경험이 전무 하였던 이 지역에 예술을 통한 여러 활동들을 진행하면서 지역민들이 마을을 변화시키고 프로그램을 스스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왔다.







· 농소1동 주민자치위원회
『농사와 예술이 만나는 홈골 커뮤니티 텃밭가든』



우각로 문화마을은 2012년 신규 사업으로 선정되어 '어제는 앉은뱅이 내일은 기둥' 이라는 주제로 인천시 남구 숭의동 109번지 일대에서 지역민들과 거주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사업이 이루어 졌다.

[표 49]
2012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 농소1동 주민자치위원회 『농사와 예술이 만나는 홈골 커뮤니티 텃밭가든』 공공미술사업 세부분석

출처: 2012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 결과보고서 참고

프로젝트명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 농소1동 주민자치위원회 『농사와 예술이 만나는 커뮤니티 텃밭가든』**
프로젝트 목적	홈골 커뮤니티 텃밭가든을 문화예술 교류, 소통의 장으로 조성하여, 지역·계층·세대간 단절을 극복하고 지역의 건강한 커뮤니티를 조성
설치장소	울산광역시 북구 농소1동(호계동, 매곡동)
사업년도	2012. 6 – 2012. 12
예산	5천5백만 원
주최/주관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협력기관 참여작가/단체	(단체)농소1동 주민자치위원회
주요매체	벽화, 커뮤니티아트
프로젝트의 주요특징	주민참여를 통한 문화예술 확대
내용종합	농소 1동 주민자치위원회는 2012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의 신규 사업으로 농사를 예술과 연결하여 다양한 문화활동을 진행하였다. 먼저 주민들을 대상으로 마을 공동체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을 통해 마을에 대한 자긍심을 길러내도록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홈골 텃밭을 활용하여 홈골 허수아비 축제, 텃밭도서관 운영, 텃밭 스튜디오 운영, 가든 음악회, 텃밭벽화, 홈골 가족농부, 어린 농부체험, 텃밭 요리교실 운영 등 여러 가지 내용의 농업과 예술 활동의 결합으로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였다. 특히 벽화의 경우 주민들이 직접 구상하고 색을 칠하는 과정을 가지며 문화예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춘천시문화재단
『낭만골목』

사업예정지인 효자 1동은 주변에 문화예술회관과 같은 공공문화 시설과 인접한 서민단독주택 밀집지역이다. 그러나 지역민들이 그동안 문화예술의 직접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에 이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문화예술혜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적극적인 소통의 창구를 마련하고자 기획되었다.

[표 50]
춘천시 문화재단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낭만골목』 공공미술사업 세부분석

출처: 2012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 결과보고서 참고

프로젝트명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 춘천시 문화재단 『낭만골목』**
프로젝트 목적	주민 역량강화 및 조직화(낭만골목추진위원회)를 기초로 한 낭만골목 공동체 활성화
설치장소	강원도 춘천시 효자1동 효자상 일대
사업년도	2012. 6 – 2012. 12
예산	5천만 원
주최/주관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협력기관 참여작가/단체	(단체)춘천시 문화재단, 낭만골목추진위원회
주요매체	벽화, 퍼포먼스, 조각, 커뮤니티아트
프로젝트의 주요특징	환경개선, 공동체 활성화, 관광 활성화
내용종합	춘천시 문화재단의 '낭만골목' 사업은 2012년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의 신규 사업으로 낙후하고 오래된 마을의 공간인 골목길을 예술을 통해 변화시키고 공동체를 활성화하고자 추진된 사업이다. 주민사업설명회와 한마음 기원제, 낭만콘서트 등 시민들에게 사업에 대한 홍보를 시작으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었다. 낙후된 마을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벽화와 조형물을 설치한 '낭만골목 숨은 예술찾기'는 골목길을 따라 설치된 예술작품들을 감상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랑방문화센터는 주민들의 수요에 따라 어울림 음악당, 효자동 골목이야기, 효자손 생활자기 예술자기 만들기, 리폼 공작소 등 다양한 활동과 교육이 이루어져 다양한 공동체 활동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였다. 또한 춘천 시민들 외에서 춘천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을 위해 마을 투어 코스를 만들고 마을지도를 만들어 투어가이드를 시범 운영하는 '낭만 골목 투어'를 진행하였다.



2) 지자체추진 공공미술 관련사업

가) 지자체추진 공공미술 사업: 다양한 시도

2012년 현재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공공미술관련 프로젝트는 25개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 중 서울특별시 서울디자인재단에서 운영하는 도시갤러리프로젝트와 안양시의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APAP), 인천시 지역공동체 문화만들기 사업이 대표적이다. 이렇게 공공미술 자체를 사업의 목적으로 하는 사업 외에도 마을 만들기, 마을 가꾸기, 관광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사업에 있어 공공미술적 요소를 도입하여 진행하는 경우도 다수 존재한다.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공공미술 사업은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첫 번째는 지자체가 사업비를 부담하고 자체 내 담당과를 마련하여 직접 사업을 추진하며, 읍, 면, 동, 마을단위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우수마을을 선정, 예산을 지원하는 형태의 사업이다. 두 번째는 사업비주체와 운영형태는 위와 같으나 디자인재단, 문화재단 등 지자체 산하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을 관리·운영하는 형태이다. 세 번째는 관광활성화, 투자효율 극대화 등을 목적으로 특정마을에 사업비를 집중 투자하여 공공미술적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이며,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형태이다. 네 번째는 위와 같은 형태이나 산하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이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유형은 지속성을 가지고 매년 추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세 번째와 네 번째 유형은 단발성인 경우가 많다.

본 보고서에서는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공공미술 사업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였으며, 대표적인 공공미술사업이지만 2012년도의 사업이 축소되거나 격년제로 운영되는 사업들의 경우에는 사업의 소개와 함께 현재까지 진행된 현황을 간략하게 정리하는 것으로 하였다.

[표 51] 다양한 시도의 지자체추진 공공미술 사업 현황

2012실행유무	시행기관	사업명	시행부서	산하기관
실행	인천광역시	지역공동체문화만들기	문화환경국	인천문화재단
부분실행	광주광역시	광주폴리프로젝트	도시디자인과	광주비엔날레 재단
미실행	서울특별시	도시갤러리프로젝트	디자인정책과	서울디자인재단
미실행	경기도 안양시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문화예술과	안양문화예술 재단

① 인천시 - 지역공동체 문화만들기 사업

인천시 지역공동체 문화만들기 사업은 2012년 처음 시작되었다. 인천시는 2006년 공공미술 세미나 <인천공공미술의 방향>(2006)을 통해 공공미술에 관한 관심 및 사업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이후 '아름다운 교문 만들기'(2008~2010)와 '섬 공공예술프로젝트'(2009~현재) 등 지역밀착형 사업으로 나누어 진행하였고, 이는 2011년에 들어와 '문화도시 공동체 지원사업'이라는 타이틀로 일원화되었다. 기존의 사업이 시각예술 작가 혹은 기획자 중심의 프로젝트였다면, 이 과정에서 프로젝트의 비중이 마을, 주민, 공동체로 이동하였다. 이는 2012년 '지역공동체 문화만들기'사업이 만들어지는 결과를 낳았다. 지역공동체 문화만들기 사업은 도심형 프로젝트인 '내가 사는 도시'와 도서형 프로젝트인 '내가 사는 섬'으로 하위체계를 구분하여 각각 2건, 5건 총 7건의 프로젝트가 추진되었다.

[표 52] 인천시 공공미술 관련사업의 변화과정

사업실행년도	실행 프로젝트
2008	아름다운 교문 만들기
2009	아름다운 교문 만들기 / 섬 공공예술 프로젝트
2010	아름다운 교문 만들기 / 섬 공공예술 프로젝트
2011	문화도시 공동체 지원사업 / 섬 공공예술 프로젝트
2012	지역공동체 문 만들기 사업 (도심형 프로젝트 '내가 사는 도시' / 도서형 프로젝트 '내가 사는 섬')

인천시 2012 지역공동체 문화만들기 사업은 내가 사는 도시 2곳, 내가 사는 섬 5곳, 총 7곳이 공모와 컨설팅, 개방형 프레젠테이션 심사를 거쳐 선정되고 추진되었다. 2012년 지역공동체 문화만들기 결과자료집의 내용을 살펴보면 '내가 사는 도시' 파트에서는 '커뮤니티 페어-아트페어(문화수리공)'가 지역 내외에서 반향을 얻었으며, 해당 지역 관할 자치단체인 남구청의 협력으로 대상지 부지에 쌓여 있던 건축폐기물들이 말끔히 처리되는 피드백이 있었다. 또한 '부평은 대학'이나 '섬의 노래', '야곡문화예술학교' 등에서는 지역 커뮤니티의 자발적 호응이 미래를 기대할 만큼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는 바,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되는 4곳의 사례 중 시각예술 위주의 작업으로 전개된 '커뮤니티 페어-아트페어'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표 53]
인천시 2012
지역공동체
문화만들기
사업 추진현황

프로젝트 성격 (대상지)	사업명	내용
내가 사는 도시	부평은 대학	아파트형 공동체 활성화 모델 개발 및 지역기반 청년 문화예술 기획자 양성 프로젝트
	커뮤니티페어 — 아트페어 (문화수리공)	폐허가 된 쇠락한 공간에 문화심기를 통한 기능을 재활성화 하는 작업
내가 사는 섬	섬의 노래	섬 주민 개개인의 생활을 담아내고 그 소리들을 음반으로 제작, 그 모습들을 시각화, 섬 주민 자신들의 이야기를 라디오를 통해 소개
	야곡문화예술 마을학교, 학교 가는 길	노인공동체와 복지로써의 예술 - 농사만 짓던 노인들이 흙으로 도자기를 만들고 붓으로 난과 꽃들을 그려가며 어린 날 가난에 지쳐 농촌에서 배우지 못한 꿈을 이룸
	우물 안 가득	돌담, 돌을 하나씩 쌓으면서 세어도의 역사를 쓰고, 섬의 가치를 빛내고 세어도만의 역사를 기록하는 작업
	작은 무의도 그림수필2 '생각하는 섬'	2011년 1차 완료된 '그림수필집'의 보완으로서 '생각하는 섬'이라는 두 번째 그림수필집 제작, 블록벽화, 글 제작
	장봉1리 문화예술마을 만들기 — 섬이 간직한 이야기	2011년 미술프로그램, 마을색채계획에 따른 도장, 벽화, 솟대 등 제작 2012년 글쓰기 프로그램의 결과물로 마을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섬에서 생기는 폐어구, 채집물을 통한 설치작업, 부조식 벽화, 타일작업 등을 통한 장봉도 섬과 섬사람이 간직한 이야기들을 '시와 그림이 있는 풍경'으로 만듦



·내가 사는 도시파트
『커뮤니티페어-아트페어』(문화수리공)

커뮤니티페어 - 아트페허 (Community fair_Art Fehur)
주요 프로젝트 및 행사일정

1. 폐허 클린 프로젝트
- 사업을 전개하기 위한 장소지의 환경 개선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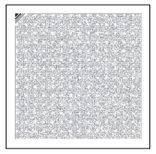
2. 제물포 아트 폐허
- 지역 커뮤니티 HALL 구축
- 지역기반 공동체 형성을 위한 레지던스 공간 구축

3. 미디어 커뮤니티
- 폐허 웹툰
- 폐허 송

4. 커뮤니티 페어
- 폐허 페스티벌
- 개/폐막 퍼포먼스
- 나도 할 수 있어요
- 제물포 시장 일대 지도를 활용한 인터뷰, 리서치, 개념작업, 설치작업, 힐링 워크숍
- 아트 폐허 심포지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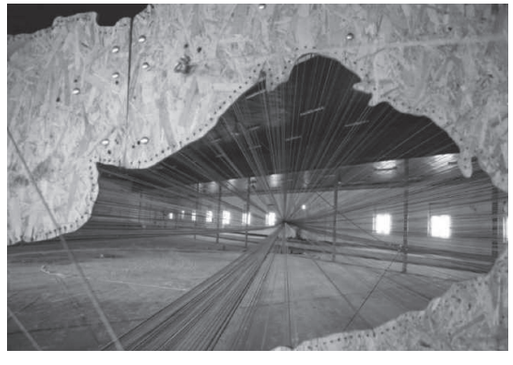












[표 54]
인천시 2012
'지역공동체 문화만들기 사업' —
내가 사는 도시파트
『커뮤니티 페어 — 아트페허』
공공미술사업 세부분석

출처: 인천문화재단, 2012
지역문화공동체 문화 만들기
결과자료집 참고

프로젝트명	**인천시 '지역공동체 문화만들기 사업' —** **내가 사는 도시 파트『커뮤니티페어 — 아트페어』(문화수리공)**
프로젝트 목적	- 예술을 통한 도시재생 - 지역민 소통을 통한 문화예술 거점공간과 콘텐츠형 랜드마크 구축 - 지역 공동체의 교류 확대 - 협력시스템의 공공예술프로젝트 실천 - 지역 내 폐건물을 활용한 지속적인 커뮤니티아트 콘텐츠 개발
설치장소	인천 남구 숭의3, 4동 제물포시장 및 전도관 일대
사업년도	2012. 8 – 2012. 12
예산	6천만 원
주최/주관	(주최) 인천시 (주관) 문화수리공
협력기관 **참여작가/단체**	(협력기관) 인천광역시 남구청, 유네스코 인천광역시협회, 글로벌 메이킹아트 네트워크, 국제상상대학, 판아시아, TSC커뮤니테이션즈(참여작가) 강하진외 15명
주요매체	주민참여
프로젝트의 **주요특징**	도시재생, 환경개선, 공동체 형성 및 강화
내용종합	인천시 2012'지역공동체 문화만들기' 사업은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전제로 하는 미술행위로서 커뮤니티아트적 성격이 강한 프로젝트이다. 이 커뮤니티 페어-아트페어프로젝트는 지역주민 및 상인을 비롯하여 예술가, 문화 기획자, 지역 행정가, 미술이론가, 일반관객 등 다양한 분야별 사람들이 대상지에 모여 세미나 형태의 열린 토론을 거쳐 '소통'의 과정을 통해 프로젝트를 진행하려는 시도를 함과 동시에 인천의 제물포 재래시장과 전도관을 중심으로 재개발의 문제를 예술적 상상력으로 풀어가려는 학술적 논의의 출발이었다. 인천남구 숭의3,4동 일대에서 벌어진 '커뮤니티페어-아트페어' 프로젝트는 크게 4가지로 구성되어 진행되었다. 첫째는, '페허 클린 프로젝트'로서 사업을 전개하기 위한 장소지의 환경개선 프로젝트, 둘째, 지역 커뮤니티 홀과 지역기반 공동체 형성을 위한 레지던스 공간을 구축하는 '제물포 아트페어', 셋째는, 페허웹툰과 송을 제작하고, 넷째는 '커뮤니티 페어'로서 페허 페스티벌과 개/폐막 퍼포먼스, 아트페어 심포지엄 등의 개최이다. 대상지는 영화 <써니>(2011)의 촬영지로 재개발 공사 중단으로 몇 년째 방치되어 건축폐기물과 생활쓰레기만이 가득 차 있는 제물포 재래시장 옛 상가건물터, 이 '아트 페허'의 장소를 '커뮤니티 페어'라는 예술적 개입을 통해 창조적 활력이 넘치는 공공문화 예술공간이 되도록 탈바꿈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커뮤니티 페어-아트페어]는 폐허가 된 장소를 사람이 살 수 있는 정감 있고 따뜻한 곳으로 만들려는 노력과 더불어 특정지역 재개발을 둘러싸고 파생되는 사적이익과 공적이익 간의 갈등을 극복하고, 창의적인 예술적 실천을 통해 인천이라는 도시 유기체에 생명을 불어넣는 새로운 전기가 되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② 광주시 - 광주폴리프로젝트

광주 폴리프로젝트는 원도심 공동화에 따른 활성화 방안으로 도시재생 수단 및 접목의 필요성과 도심 내 브랜드 가치가 있는 도심거점 구축의 필요성으로 등장하였다.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하여 광주의 역사·문화적 배경을 담은 폴리를 설치함으로써 시민들이 이를 일상생활의 일부로 활용하고, 디자인 도시기반을 구축하여 브랜드 가치를 높혀 문화적 자산을 창조하기 위해 2011년부터 추진되어온 사업이다. 공식명칭은 '광주폴리(Ⅰ,Ⅱ)'로 표기하고 있다.

광주폴리Ⅰ은 2011년 광주디자인비엔날레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광주 옛 읍성터 복원, 역사와 현재를 잇는 광주폴리'라는 주제로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광주 구도심 일원(동구 장동, 궁동, 금남로, 충장로 등)에서 '소통의 오두막', '푸른 길 문화샘터' 등 총 11개의 작품이 설치되었다. 광주폴리Ⅱ는 (재)광주비엔날레가 추진하는 독자적인 도시재생 프로젝트로 거듭났다. '인권과 공공공간 (Human Rights & Public Space)'이라는 콘셉트로 2012년 2월부터 광주천변, 광주공원, 지하철 객차 등에서 '광주천 독서실'과 '혁명의 교차로'등 8개 작품설치가 시작되었고, 2013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광주폴리는 사업추진에 있어서 시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시민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폴리주제 및 장소 선정에 대한 의견 제시와 폴리의 유지·관리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하고, 시민참여 방안과 폴리발전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광주폴리는 프로젝트활성화를 위해 공식 웹사이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블로그 등 디지털 환경을 구축하였다. 또한, 폴리투어 길과 투어 해설사 운용 등 투어프로그램 개발과 폴리데이와 폴리페스티벌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시민참여프로그램을 진행하여 폴리를 통한 시민의 자율적 소통과 자생적 커뮤니티의 교류를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공공폴리Ⅱ의 8가지 작품은 2011년 말부터 작품설치를 시작하여 2013년 9월에 개막 할 예정이다. 공공폴리Ⅱ는 모든 작품이 시민들이 이용하고 참여해야만 기능할 수 있다. 작품을 완성해나가는데 있어서의 참여를 포함하여 시설적인 측면에서도 공공의 이용을 통해 장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2012년은 폴리를 설치하는 기간으로 1차적으로 운영된 2개의 작업을 제외하고 진행 중에 있다. 1차적으로 운영된 작업은 서도호의 '틈새 호텔(In-between Hotel)'과 렘 쿨하스 & 잉고 니어만(Rem Koolhaas& Ingo Niermann)의 '투표(Vote)'이고 세부 분석틀을 적용하여 분석하기에는 자료 확보의 어려움이 있어 각 사업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다.

[표 55] 2011~2012 공공폴리 작품리스트

년도		작품명	건축가 및 작가명	장소
2011	1	소통의 오두막 Communication Hut	후안 헤레로스 Juan Herreros	장동로터리
	2	서원문 제등 Seowonmoon Lantern	플로리안 베이겔 Florian Beigel	김재규 경찰학원 앞
	3	광주사람들 Gwangju Swarms	나데르 테라니 Nader Tehrani	대한생명사거리
	4	유동성조절 Flow Control	알레한드로 자에로 폴로 Alejandro Zaera-Polo	금남로공원
	5	99칸 99Kan	피터 아이젠만 Peter Eisenman	충장치안센터 앞
	6	열린장벽 Open Wall	정세훈 & 김세진 S.H Jung&S.J Kim	광주세무서 앞
	7	기억의 현재화 Threshold for Intimate Recollections	조성룡 Sung-Yong Joh	황금로 사거리
	8	열린공간 Opened Box	도미니크 페로 Dominique Perrault	구시청사거리
	9	광주사랑방 Public Room	프란시스코 산인 Francisco Sanin	아시아문화전당 버스정류소 옆
	10	잠망경과 정자 Periscope & Pergola	요시하루 츠카모토 Yoshiharu Tsukamoto	대성학원 앞
	11	푸른길문화샘터 Ruined Steps & May Flower	승효상 H-Sang Seung	푸른길 농장다리
2012	1	틈새호텔 In-between Hotel	서도호 Do Ho Suh	이동식
	2	투표 Vote	렘 쿨하스 & 잉고 니어만 Rem Koolhaas & Ingo Niermann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회관 옆 도로
	3	광주천 독서실 Gwangju River Reading Room	데이비드 아자예 & 타이에 셀라시 David Adjaye & Taiye Selasi	광주천변
	4	유네스코 화장실 Power Toilets/UNESCO	수퍼플렉스 Superflex	광주공원 입구
	5	탐구자의 전철 Autodidact's Transport	락스 미디어 콜렉티브 Raqs Media Collective	광주지하철(이동식)
	6	혁명의 교차로 Roundabout Revolution	에얄 와이즈만 Eyal Weizman	광주역 앞 교통섬
	7	기억의 상자 Memory Box	고석홍 & 김미희 Seok Hong Go & Mihee Kim	금남지하상가 만남의 광장 인근
	8	포장마차 Cubic Meter Food Cart	아이 웨이웨이 Ai Weiwei	이동식

· **틈새 호텔(In-between Hotel)**

『농사와 예술이 만나는 홈골 커뮤니티 텃밭가든』

서도호의 '틈새 호텔'은 광주의 역사와 공간의 틈새를 이동하는 미니호텔이라는 콘셉트를 가지고 한 지역에 정착하고 있는 호텔이 아닌 도시의 틈새 곳곳으로 이동하면서 도시민들의 생활과 삶을 직접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작품이다. 곳곳의 틈새에 위치하면서 주민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작품을 완성할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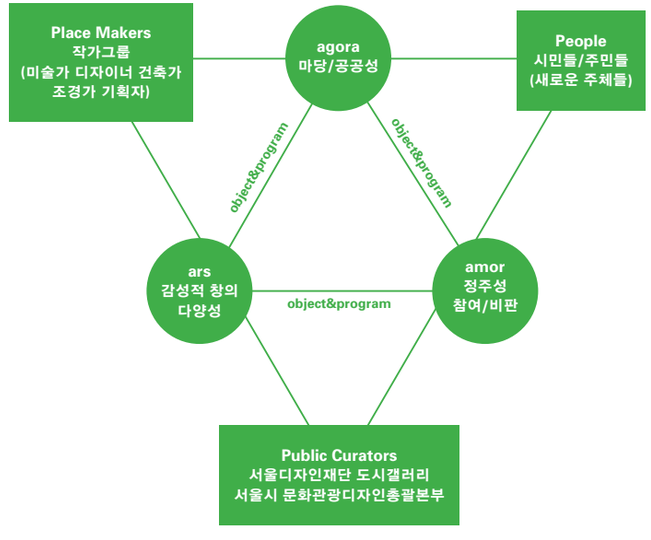


· **투표(Vote)**

렘 쿨하스와 잉고 니어만의 '투표'는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옆 도로에서 사람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길거리 여론조사를 콘셉트로 하였다. 이들의 작업은 공공의 공간에서 개인의 생각을 표현하는 시위형태인 투표에 주목하여 광주학생독립운동회관 뒷골목에 배너 형식으로 자리 잡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크고 작은 이슈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사람들은 자신의 보행 방향을 조절해 가면서 "예, 아니오, 중립" 중 한 가지를 투표하여 자연스러운 여론 형성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③ 서울시 – 도시갤러리프로젝트

서울시 도시갤러리프로젝트는 2007년부터 시작된 프로젝트로 '도시가 작품이다(city as oe uvre)'를 슬로건으로 도시자체가 작품이 되는 창의도시, 문화도시를 꿈꾸고 그리는 서울시 공공예술 정책 프로젝트다. 서울시 도시갤러리프로젝트는 당초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개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어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도시갤러리는 도시, 공간, 예술의 관계를 중요시하며 이를 프로젝트의 재료요소로 설정하였다. 창작집단으로는 작품을 만드는 예술가와 예술을 향유하고 비평하는 사용자로서의 시민 그리고 매개하는 역할과 연출하는 공공큐레이터로서 서울시 문화관광디자인총괄본부와의 관계를 설정하여 진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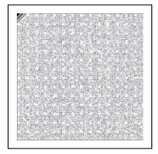
[도표 3] 도시갤러리의 재료요소와의 관계설정

도시갤러리프로젝트는 공공예술작품을 공공장소에 설치해 시민들에게는 문화적 향유와 자긍심을 제공하고, 국내외 관광객에게는 서울다운 체험을 선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프로젝트의 추진 방법은 크게 일반공모와 지명경쟁 방식으로 구성된다. 일반공모의 경우 참여기회의 개방과 공개경쟁의 취지로, 지명경쟁은 장소적 특성과 창의성 부분에 중점을 두어 창작 및 기획의

경험이 있는 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공모에 참여하는 작가들은 미술의 영역 뿐 아니라 건축가, 디자이너, 일반대중들로 구성되어 다양성과 협력, 융합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기존의 미술의 조형성만을 강조하던 심사에 공공성(25%), 장소성(25%), 조형성(25%), 예술성(25%) 등을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예술을 평가하는 새로운 틀을 만들었다.

프로젝트의 추진절차는 작품 제안서의 모집 공고 후, 프로젝트 설명회를 거쳐 1차 제안에 따른 작품심사를 진행하며, 집중검토회의(퍼블릿 샤렛)를 통해 전문가, 이해관계자, 작가, 시민들 간의 의견을 교환하고 논의할 수 있는 과정을 거쳐 작품에 대한 수정과 보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다. 최종 프로젝트 제안의 심사에 따라 사업재료와 공법, 투입인력, 인건비 등을 관련 전문가가 가격의 적절성을 판단하여 협약을 체결한 후 작품설치 및 검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2007년에는 공공미술의 의미와 필요를 일상생활 속에서 시민들과 함께 살피고 즐기는 프로그램으로 광화문을 포함해 30곳에서 작품설치 및 참여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었다. 2008년에는 서울다운 장소를 만드는 공공미술의 도입을 위해 상암 월드컵공원을 포함한 28개 지역에서 진행하고, 2009년에는 서울의 정체성을 갖는 장소지원(place capital)의 개발을 위해 서울광장을 포함한 20곳에서 진행하였다. 2010년에는 공공미술의 의미와 필요를 일상생활 속에서 시민들과 함께 살피고 즐기는 프로그램으로 4곳에서 설치하고, 2010년과 같은 취지로 2011년에 5곳에, 2012년에는 1곳의 버스정류장을 중심으로 작품이 설치되었다.



[표 56] 서울시 도시갤러리 프로젝트 추진현황

년도	실행 프로젝트	년도
2007	멋진 신세계, 꽃이피다 / 세상의 모든 의류부자재 동화에서 찾다 / 옥수역 프로젝트 / 예술로 일촌맺기 / 불광천 프로젝트 / 공동체 미술을 가꾸다 / 인왕산에서 굴러온 바위 / 나의 섬, 너의 섬 여의도 / 수화, 세상에서 가장 조용하고 아름다운 말 / 보이지 않는 문 / 부드러운 벽 / Transparence(투명함) / 예술의 길 사색의 자리 / 먼 곳에서 오는 바람 / 일획을 긋다 / 무제 / 퍼블릭 포토 1, 2, 3 / Transparency Modulator / 색동 벽 사이로 / 지하도 / S-peed Back! 그곳 / 착시화 1, 2 / 해머링맨 이전 / Flow / 시간은 강처럼 흐른다	33억
2008	Inside Outside / Deplace Replace / 어어어 마을대회 / 동대문의 지역성과 역사성에 관련된 11가지 추억 / 바다, 나비 그리고 배 / 자연과 더불어, 전통과 함께 / 꿈꾸는 피아노 / 네개의 문 / 황금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 청계천 무쇠구름 / 2008 동네예술가 / oo시장과 움직이는 oo가게 / 느티나무 형제, 마루공원 / Living Light / 자연현상 / 러브하트 프로젝트 / 점자, 만지는 글 아름다운 기억 / 북아현동에서 잃어버린 마르티스 여아를 찾습니다 / MOMA 겸손한 미술관 / 꽃피는 화양리 / 여행 / 따스한 오후의 산책 / 물방울 속의 도시 / 무제 / 유쾌한 발자국 / 뒷모습이 예쁜 그녀 / 희망을 쏘다 / 2008 상상이상 분필아트 페스티벌	44억
2009	서울, 황금알을 품다 / 해치 서울 도심을 나들이하다 / 하늘 아래 첫동네 / 서울숲이 들려주는 이야기 Love Letter / 하늘을 담는 그릇 / 물과 바람과 소리의 정원 원터 약수터 / 희망쑥쑥 콩나무 / 천개의 꿈 / Wonderland 꿈꾸는 원더랜드 / 바람의 길 / 희망을 보다	30억
2010	산-하늘문 / 풍류+류 / 생명의 벽	13억
2011	회화적 몽타주 / 휴식 / 쉼표, 또 다른 여정 / 남산의 생태 / 마뫼부해	4억6천
2012	쉘터 오브 메모리즈(2011 – 2012)	

2012년 도시갤러리 사업은 2012년도 사업으로 기획, 설치, 운영된 프로그램은 없고, 이전 사업들을 유지·관리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2012년에 설치가 완료된『쉘터 오브 메모리즈』는 2011년 사업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2011년 사업에 해당되어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④ 안양시 -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안양시는 2000년도에 과거 수도권 휴양지로 인기 있었던 안양 유원지를 새롭게 정비하고 다시 명소화하고자 안양유원지를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로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비산조각 공원 조성 사업을 계획하였다.

이 사업은 근대 조각공원들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안양 유원지 개발 과정 속에 예술을 어떻게 개입시킬 것인가를 고민하여 새로운 조각 공원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세웠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2004년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의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는 문화예술을 도시개발과 발전의 중심으로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구성원들의 창조적인 삶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였다. 공공장소에 어울리지 않아 지역민들로부터 외면 받았던 야외 조각물 설치와 차별화된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민들과의 소통을 이루고자 하였고 지역의 문화, 역사 등을 환기시킬 수 있는 새로운 공공예술의 개념을 도시 전체로 확대시켜나가고자 하였다.

현재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추진주체는 안양문화예술재단이다. 1회 사업은 안양공공예술위원회와 안양시 문화예술과에서 진행하였으나,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가 지속적인 사업이 되면서 보다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2007년 안양공공예술재단이 출범하였다. 안양공공예술재단은 체계적이고 성공적인 공공미술사업을 위해 만들어진 조직으로 독립된 규정에 의해서 운영되는 민간기구이다.[3] 안양공공예술재단이 2,3회의 사업을 진행하였고 2011년 행정안전부의 유사기관 통합 권고사항을 받아 안양문화예술재단에 흡수, 통합되어 현재 안양문화예술재단의 공공예술감독실에서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는 2005년 1회, 2007년 2회, 2010년 3회에 걸쳐 진행되었고 2013년 4회를 준비 중에 있다. 회를 거듭할수록 설치위주의 작품제작은 감소하고, 지역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프로그램들을 확대하면서 내용과 공간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3. 정소익, 류태희, 2012, 공공미술의 효과적 실행을 위한 표준정관안에 관한 연구: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와 정관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는 예술감독을 선임하여 예술감독의 권한으로 사업의 주제와 내용, 작가선정이 이루어진다. 예술감독의 작가선정은 재단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최종 결정 되지만, 예술감독이 기획하는 사업 내용에 적합한 작가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의 작가공모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1,2회의 경우 지역작가의 참여를 위해 전체 작가의 10%를 지역에서 공모하였다. 1,2회 사업은 추진위원회나 재단 이사회가 추천하는 방식으로 예술감독이 선정되었다면, 3회부터는 예술감독을 공모하여 선발하는 형태로 변경되었다.

[표 57] 안양공공예술 프로젝트 추진현황

	주제	설치장소	예술감독	참여작가	작품수	기간	예산
1회(2005)	역동적 균형	안양예술공원	이영철	73명 (해외 38, 국내35)	97점 (영구작 52)	2005. 11.5 – 12.15 (40일)	70억
2회(2007)	전유, 재생, 전환	평촌 신도시 일대	김성원	45명 (해외 24, 국내21)	45점 (영구작 36)	2007. 10. 20 – 11. 18(30일)	37억
3회(2010)	새동네 — 열린 도시 안에서	학운 공원 등	박 경	31팀 (개인 및 그룹)	22점 (영구작 4)	2010년 연간 진행	31억

나) 지자체 추진 공공미술 관련사업: 벽화조성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사업 중에서 공공미술의 다양한 매체 중의 하나인 벽화를 이용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것들을 찾아 볼 수 있다. 지자체에 소속된 재단을 통해 다양한 내용의 공공미술을 기획하는 것 외에 지자체에서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그 규모는 지자체의 재단이 진행하는 공공미술 사업보다 작다.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 해당 부서의 성격에 맞게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또는 주민들과의 다양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벽화 사업을 진행 하고 있다.

시행기관		사업명	장소	시행부서	추진주체	수행단체	예산	주요내용
경기도	김포시	김포 감정동 농수로 수변환경 조성사업	김포 일대	문화 예술과	한국도자 재단	김순식, 김재규,등	1억 7천 5백만 원	군사벙커에 도자아트웍 진행
	고양시	주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벽화마을	성사1동 등	행정 지원과	—	공공미술 프리즘, 시민참여	1억 4천 1백 50만 원	주거환경 개선과 걷고 싶은 문화거리
	시흥시	이야기가 있는 골목길	신천동 일대	주민 자치과	신천동 주민자치 위원회		8백만 원	신천동 ART ROAD 사업
강원도	원주시	군과 함께하는 디자인 원주	원주시 단구동 11급양대 담장	도시 디자인과	—	원주시 관내 군부대 장병	2천 6백만 원	군부대 담장 벽화그리기
충청북도	제천시	서울고개 행복 만들기 사업	제천시 남현동 일대		민예총 제천 단양지부	남현동 주민센터		골목길 대상으로 벽화, 정원 가꾸기 등 진행
충청남도	천안시	추억의 미나릿길 골목 벽화마을	영성동 17,18통 지역 미나릿길 골목일대		중앙동 주민센터	중앙동 주민센터, 지역단체 등	2천 2백만 원	골목길 환경개선
	당진시	벽화 예술길 조성사업	서문동 일대	사회 복지과	당진시 자원 봉사센터	(유)조형 연구소엠, 자원 봉사자	5천3백 80만 원	4구간으로 나누어 벽화 길 조성
	아산시	우리 동네 가꾸기 사업	도고면 금산리 일대	건축과	—	지역주민	1억 6천 7백만 원	옹벽, 담장 등 벽화로 장식
전라북도	정읍시	꽃두레 권역 벽화마을 조성사업	신천리 부안마을 주변	지역 공동체 지원관	중부동 주민센터	중부동 주민센터	1천 3백만 원	꽃두레권역특색 반영한 주민참여벽화
경상남도	통영시	땡큐 동피랑	통영시 동피랑 일원	환경과	푸른통영 21추진 협의회	공모 당선자	5백만 원	동피랑 벽화공모전

[표 58] 2012년도 지자체추진 공공미술 사업 현황: 단순 벽화조성











3) 민간추진 공공미술 관련사업

2000년대 초반, 젊은 공공미술 기획자 집단(공공미술 프리즘, 플라잉 시티, 공화국리라, 야투, 반지하, 믹스라이스 등)의 자생적 공공미술의 가능성 실험에 따라 민간주체의 크고 작은 움직임이 있어왔다. 그러나 공공미술 정책 및 제도의 개선과 더불어 정부 및 지자체 등에서 공공미술적 성격을 지닌 다양한 사업이 전개됨에 따라 현재에는 민간이 전체의 사업비를 제공하고, 실행하는 형태의 사업은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2012년에 위와 같은 형태로 추진된 공공미술 관련사업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59] 2012년도 민간추진 공공미술사업 현황

추진단체	사업명
라오미작가	블루 스퀘어 아트월 프로젝트
공공미술프리즘	2012 옴니버스프로젝트
	상탄초등학교 '우리가 만드는 우리학교'
가그隣(린)	학교 가는 길, 걷고 싶은 길 만들기'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 '집수리 로드' 벽화그리기 봉사

① 라오미 – 블루 스퀘어 아트월 프로젝트 (BLUE SQUARE Art Wall project)

블루 스퀘어 아트월 프로젝트는 인터파크의 도심 문화프로젝트 사업인 '컬쳐파크' 프로젝트의 첫 번째 사업으로 한남동의 블루 스퀘어 개관을 기념하여 시작된 사업이다. 가로48m 세로 7.9m의 블루 스퀘어 북측 외벽을 이용하여 페인팅, 대형설치 작품들을 전시 및 설치하여 문화적 랜드마크로 조명하고 공연장의 예술적 가치를 높이고자 하였다.

예술가와 전문 기획자, 일반인(학생)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였고, 미술, 디자인, 건축, 공예, 미디어 아트 등 장르 구분 없이 작품의 총 제작, 설치를 포함하여 사천만원 이내로 기획하도록 하였다.

[표 60] 블루 스퀘어 아트월 프로젝트 — 『십장생도 — 밤보다 긴 꿈』 공공미술사업 세부분석

출처: 인천문화재단, 2012 지역문화공동체 문화 만들기 결과자료집 참고

프로젝트명	블루스퀘어 아트월 프로젝트 — '십장생도 밤보다 긴 꿈'
프로젝트 목적	블루 스퀘어 북측 외벽을 서울의 대표적 공공미술의 장으로 제공하고 대표적인 상징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신진 예술가 작품 공모전을 통하여 문화예술 콘텐츠의 상징으로 활용하고자 함
설치장소	블루스퀘어 건축물 외벽(북측방향)
사업년도	2012.
예산	4천만 원
주최/주관	(주)인터파크, (주)인터파크씨어터
협력기관 참여작가/단체	(협력) 서울시, 엔자임커뮤니케이션즈 (작가)라오미
주요매체	벽화
프로젝트의 주요특징	장소마케팅
내용종합	블루스퀘어 아트월 프로젝트는 한남동에 위치한 블루스퀘어 건물 외벽에 대형 설치 및 전시를 진행하는 프로젝트로서 예술가들을 비롯하여 일반 시민들도 공모에 참여 할 수 있는 프로젝트이다. 첫 번째 프로젝트의 당선작은 라오미 작가의 '십장생도 — 밤보다 긴 꿈'이라는 작품으로 유토피아를 원하는 인간의 욕망을 민화형식으로 나타낸 것이다. 작품 안에는 블루 스퀘어라는 장소적 특징이 나타나도록 이곳에서 공연했던 '조로', '엘리자벳', '위키드' 등을 상징하는 아이콘들을 곳곳에 배치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공연장이라는 건물의 성격과 남산 1호 터널 입구에 위치한 지리적 특징으로 인하여 시민들에게 노출되는 빈도수가 높다. 때문에 이곳을 아트월 프로젝트를 통해 대형 벽화, 그래피티와 같은 공공미술이 실현됨으로서 서울의 상징적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② 공공미술프리즘 - 2012 옴니버스프로젝트,
우리가 만드는 우리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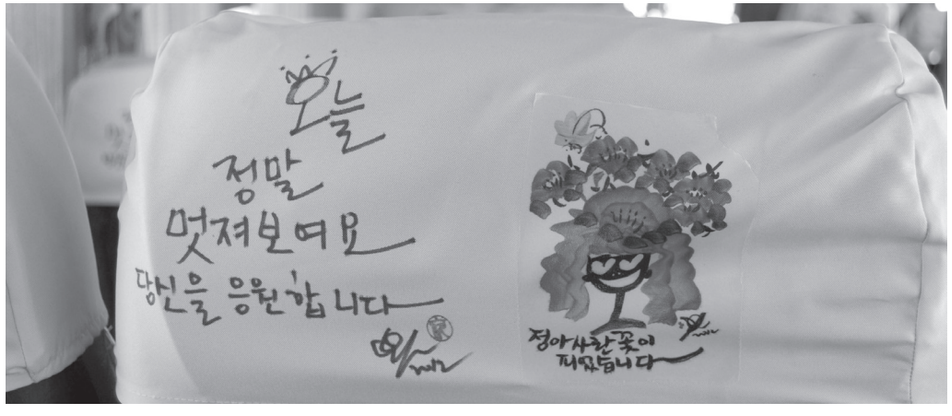
· 2012 옴니버스프로젝트

공공미술프리즘의 버스프로젝트는 2006년 경기문화재단과 신성교통의 후원을 받아 시작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갤러리나 미술관이 아닌 버스라는 공간에 작가들이 작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출퇴근 하는 시민들이 문화예술에 대한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2008년부터는 신성교통의 단독후원으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해마다 다른 주제를 가지고 신진작가와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표 61] 2006 – 2011년 버스프로젝트 현황

년도	사업명	사업현황	사업기간	예산출처	참여작가
2006	부르릉! 작가와 함께 출퇴근 버스를	10대 버스 설치	2006. 3 – 12	경기문화재단 신성교통	12명
2008	도심 속에 떠나는 여행. 그 곳 BUS	439대 버스 설치	2008. 4 – 12	신성교통	11명
2009	파이팅 버스	24대 버스 설치	2009. 3 – 9	신성교통	8명
2010	Busdayz: To you	13대 버스 설치	2010. 3 – 12	신성교통	7명
2011	기억을 달리는 버스	13대 버스 설치	2011	신성교통	13명



[표 62] 공공미술프리즘 — 『2012 옴니버스 (omnibus project)프로젝트』 공공미술사업 세부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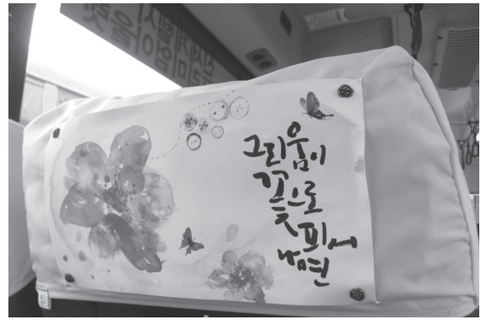
출처 : 공공미술프리즘 버스프로젝트 결과보고서 (공공미술프리즘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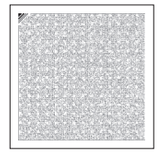
프로젝트명	**공공미술프리즘 — 2012 옴니버스프로젝트(omnibus**
프로젝트 목적	버스를 위한 예술 공간을 만듦으로써 이용객과의 공감에 집중한 버스 프로젝트 진행
설치장소	합정-파주 행 2200번 버스 13대 / 경기도 미술관/ 금천예술공장
사업년도	2012. 4. 1 – 2012. 12
예산	2천5백52만 원
주최/주관	(주관)공공미술프리즘
협력기관 참여작가/단체	(협력기관)신성교통 /경기도미술관/금천예술공장 (참여작가)늘봄, 야은, 김동희 등
주요매체	회화, 일러스트, 커뮤니티아트
프로젝트의 주요특징	대중교통의 예술적 활용(새로운 가능성의 시도), 시민참여
내용종합	2012년 옴니버스프로젝트는 현재 활동하고 있는 숨은 젊은 예술가들이 그들의 작품을 버스 안에서 전시하고, 예술가들이 공공미술을 통해 '관람자'와 '공공성'에 관한 고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을 마련하였다. 승객들은 버스의 내부에 설치된 수첩을 통해 예술가들의 작품에 대한 의견과 감상, 그리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다. 이는 예술가와 이용객의 간극을 좁히고자 한 시도로 볼 수 있다. 기존의 버스프로젝트가 작가들을 지원하고자 했던 목적이었다면, 2012년은 버스 공간에 이용객의 공감에 집중하고자 하였다. 2012년의 옴니버스프로젝트는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것 외에도 그동안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모아왔던 수첩의 기록들을 전시하고,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버스에 전시될 작품들을 수집하여 전시 하였다. 버스를 타는 승객들의 반응도 지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점차 긍정적인 반응과 적극적인 참여의 의지를 보여주었다. 특히 지역 미술학원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참여를 유도하였고, 친구들의 작품이 버스에 전시된 것을 보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원하는 아이들이 늘어났다고 한다. 작가와 시민들의 작품 전시는 주제에 따라 총 3회에 걸쳐 진행되어 승객들이 지루하지 않도록 신선한 반응을 주었다. 2012년 12월에는 그동안의 버스프로젝트를 정리하며 금천예술공장과 경기도 미술관에서 전시와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 상탄초등학교 '우리가 만드는 우리학교'

'우리가 만드는 우리학교'는 학교 구성원들이 직접 기획, 디자인, 설치에 참여한 공공미술프로젝트이다. 참여자가 학교를 문화 공간과 쉼터로 개선하는 여러 과정을 통해 학교의 역할과 의미를 생각하게 하였다.

[표 63] 공공미술프리즘 — 상탄초등학교 '우리가 만드는 우리학교' 공공미술사업 세부분석

출처: 공공미술프리즘 제공

프로젝트명	**공공미술프리즘 — 상탄초등학교 '우리가 만드는 우리학교'**
프로젝트 목적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학교의 역할과 의미에 대해 고민하고 그 과정을 통해 공간을 만들어감(교육과 환경개선)
설치장소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1483번지 상탄초등학교
사업년도	2012.
예산	8백만 원
주최/주관	(주관)상탄초등학교
협력기관 참여작가/단체	(협력기관)신성교통, 아트니어링, 공공미술프리즘
주요매체	벽화, 디자인, 커뮤니티아트
프로젝트의 주요특징	환경개선
내용종합	'우리가 만드는 우리학교'는 '학교'라는 공간에서 문화예술에 대한 교육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직접 자신들이 사용하고 있는 공간을 변화시킨 프로그램이다. 출입구와 계단, 자주 쓰이지 않는 서측의 공간을 학교 어린이들이 휴식을 취하고 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다. 권위적이고 닫힌 이미지를 가지고 있던 교장실을 학부모와 선생님들의 공간으로 변화시켜 스스로 학교의 환경을 개선하였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서 학생들과 선생님, 학부모들은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이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은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기획하는 시간을 가졌고 스스로 작품을 만들고 공간을 꾸미면서 학교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보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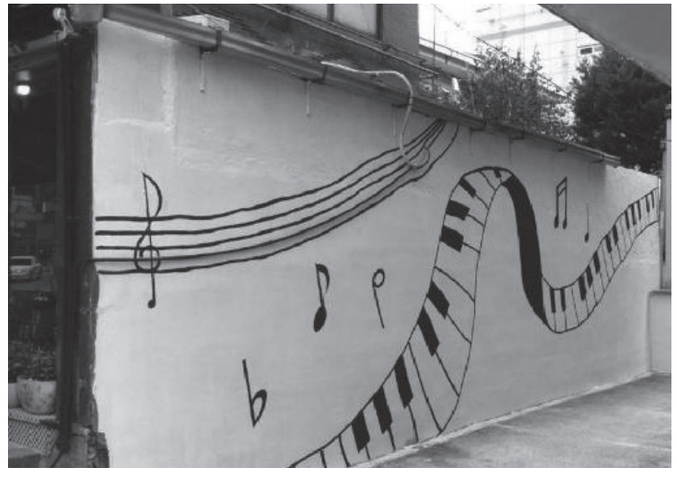


③ 가그隣(린) - 학교 가는 길, 걷고 싶은 길 만들기

가그린은 지역과의 소통을 원하는 가톨릭대 학생들이 만든 그룹이다. 『학교 가는 길, 걷고 싶은 길 만들기』는 '가톨릭대학교 대학로 조성에서의 문화·환경적 요소 개선'이라는 멘토링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이 멘토링 프로젝트는 제3차년도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 사업으로 가톨릭대에서 예산을 지원하여 진행한 사업이다.

· 학교 가는 길, 걷고 싶은 길 만들기

가그린의 이번 프로젝트는 벽화를 중심으로 가톨릭대 가는 길목을 벽화를 통해 변화를 주고자 계획하여 총 4개 장소에 작업을 진행하였다. 내부워크숍을 실시하고 여러 벽화마을을 답사하여 비교·분석을 진행한 후 벽화 내용에 대한 방향을 잡고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러한 가그린 학생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지역의 주민자치 위원회와 부천시의 협력, 예산지원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얻게 된다.



[표 64] 가그린 —「학교 가는 길, 걷고 싶은 길 만들기」 공공미술사업 세부분석

출처: 가톨릭대학교 가그린 팀 제공

프로젝트명	**가그린 —「학교 가는 길, 걷고 싶은 길 만들기」**
프로젝트 목적	예술을 통해 학교 가는 길을 변화시키고 걷고 싶은 거리 만들기
설치장소	가톨릭대 대학로 거리
사업년도	2012. 7. 7 – 7. 8
예산	2백만 원
주최/주관	가톨릭대학교 가그隣(린) 팀
협력기관 참여작가/단체	김혜원, 김윤식, 박성훈, 변세희, 이한솔
주요매체	벽화
프로젝트의 주요특징	환경개선, 문화접근성 증대
내용종합	가그린은 '가톨릭대 학생들이 그려가는 이웃 공동체'라는 뜻으로 지역과의 소통을 원하는 국제학부 학생 5명이 활동한다. 이 프로젝트는 2012년 가톨릭 대학교 프로젝트 기반 교수.학생 멘토링의 일환으로 진행되어 가톨릭대 학생들이 직접 계획하고 실행하였다. 프로그램의 내용은 가톨릭대 학생들이 매일 걸어 다니는 길은 주택가를 가로지르는 길로 이 지역의 환경을 예술로 개선하여 모든 사람들이 만족하고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해 가그린은 벽화라는 소재를 택하였고 무분별한 공공미술의 접목으로 주변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공공미술벽화 사업이 진행된 곳들을 답사하며 지역에 맞는 콘셉트를 연구하였다. 내부워크숍과 역곡2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상지 5곳을 선정하였고 총 4개의 장소에 벽화작업을 진행하였다. 전체 프로그램 중 3개 '가대 나온 남자', '컨셉 있는 거리-팝 아트 작품을 중심으로', '학교 가는 길'은 가톨릭대 멘토링 지원 예산으로 진행하였고 '함께 바꾸기 : 가톨릭대학교 정문 옆 담벼락'은 역곡2동 주민자치위원회와 부천시의 지원으로 진행되었다. '가대 나온 남자'는 가장 첫 번째 활동으로 가톨릭대 학생들이 지나치는 '가대 나온 남자' 카페를 대상으로 하였다. 카페 담벼락을 카페의 분위기에 맞게 피아노 도안을 적용하여 작업을 진행하였다. '컨셉 있는 거리-팝아트 작품을 중심으로'는 좁고 긴 골목길에 벽화를 통해 변화를 주어 마치 그림이 전시된 갤러리를 걸어가는 듯한 느낌을 주도록 하였다. 가톨릭대 앞 대표 맛 집으로 알려진 가게 상호와 작품명이 같은 '학교 가는 길'은 기존의 회색시멘트 벽에 밝은 색채를 채색하여 발랄한 분위기와 볼거리를 연출하였다.



④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 제2회 집수리 로드

희망브리지 재해구호협회는 재해지역을 찾아가 피해지역이 재건되기까지 피해지역을 도우며 여러 가지 활동을 진행한다.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되는 희망브리지 봉사단은 집수리 봉사팀, 인형극 봉사팀, 벽화 봉사팀으로 구분하여 활동하고 있다. 특히 벽화 봉사팀은 매월 마을 벽화 그리기를 통해 재해지역 환경개선 봉사에 힘쓰고 있다. 재해지역마다 지역과 장소에 맞는 주제와 내용을 선정하여 벽화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경북 청도, 충북 영동, 전북 정읍을 중심으로 벽화 봉사가 이루어졌다.

· 제2회 집수리 로드

[표 65]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제 2회 집수리 로드」— 경북 청도, 충북 영동,전북 정읍 공공미술사업 세부분석

출처: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제공

프로젝트명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제2회 집수리 로드」— 경북 청도, 충북 영동, 전북 정읍**
프로젝트 목적	재해지역에 벽화를 통한 환경개선
설치장소	경상북도 청도군 자전거길,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 제1교 뚝방길, 전라북도 정읍시 영원면 신영리
사업년도	2012. 7
예산	1억 3백만 원
주최/주관	전국재해구호협회
협력기관 참여작가/단체	희망브리지봉사단
주요매체	벽화
프로젝트의 주요특징	환경개선, 지역자원 활용(모티브)
내용종합	2012년 진행된 희망브리지 봉사단의 벽화 봉사는 경북 청도, 충북 영동, 전북 정읍 3곳에서 이루어졌다. 약 12명으로 구성된 2012년 희망브리지 봉사단이 7월 한 달간 세 지역을 돌며 벽화봉사를 진행하였다. 제2회 집수리 로드의 예산은 현대자동차그룹과 현대건설에서 55% 정도의 금액을 후원하고 협회의 예산이 더해져 진행되었다. 먼저 경북 청도군 자전거 길은 '청도군의 자랑거리'라는 주제로 소싸움과 감으로 유명한 지역의 특성을 나타내는 벽화 내용을 구성하였다. 충청북도 영동군은 긴 벽면에 시간의 흐름을 표현하며 영동군의 특산물인 감, 포도 등을 그려 넣는 등 뚝방길에 재미를 더해 주었다. 마지막으로 전라북도 정읍시 신영마을에는 신영마을의 사계절을 그렸다. 주로 어르신들이 거주하는 농촌마을의 버스정류장을 대상으로 하여 수묵화와 한국화를 콘셉트로 하여 작업을 진행 하였다.









(2) 기타 관련사업

본 보고서에서 다루고자 하는 기타 관련사업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시장 및 지역경제, 관광의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사업 들 중 공공미술의 기능, 방법, 매체 등을 활용하는 것들을 말한다. 공공미술 실현을 목적으로 사업을 진행한 것은 아니지만 벽화나 커뮤니티아트 등의 방법을 사업의 프로그램, 내용 등에 활용하여 공공미술의 성격을 나타낸 많은 사업들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기타 관련사업에 대한 조사를 통해 공공미술의 다양한 활용과 쓰임에 대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1) 정부추진 기타 관련사업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관련 사업들은 문화복지와 문화관광, 문화교육, 창조적인 문화 개발 등 여러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타 관련사업들은 그 범위와 영역, 규모가 다양하여 공공미술의 내용들을 포함하여 진행하고 있는 것들을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2012년 정부에서 추진한 기타 관련사업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문전성시 프로젝트'와 중소기업청의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이 있다.

[표 66] 2012년도 정부추진 기타 관련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명	시행부서	추진주체(산하기관)
문화체육 관광부	문전성시 프로젝트	지역민족 문화과	문전성시사업단
중소기업청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	시장상권과	시장경영진흥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	시장상권과	시장경영진흥원

①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 –
문전성시(門前成市) 프로젝트



문전성시 프로젝트는 상업적으로 침체된 전통시장에 문화의 숨결을 불어넣어 전통시장을 지역문화공간이자 일상의 관광지로 활성화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08년부터 추진해 온 정책 사업이다. 이는 전통시장 본연의 정취와 소통의 공간으로의 특성을 살리는 활성화 전략을 통해 고객과 주민들로부터 전통시장이 문전성시(門前成市)를 이루게 하는 새로운 전통시장 활성화 모델이다. 2012년까지 총 21곳의 전통시장에서 문전성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문전성시 프로젝트는 이름 그대로 문화를 통해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문화는 예술, 전통, 생활로 구성되며 이를 통한 시장가치와 시장문화, 서민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장여건, 지역조건, 인력자원수준, 상인(회)의 결속력 및 기획력, 상인들의 문화 잠재성, PM의 전문성 등 시장의 다양한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목표달성에 적합한 활성화 유형을 설정한다.

문전성시 프로젝트를 진행한 '시장과문화컨설팅단'은 2011년 추가사업시장 선정이 종료되면서 해체되었고, 2013년도를 마지막으로 사업은 종료 결정되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전성시사업단을 조직하여 2012년과 2013년 문전성시사업을 수행해야하는 시장들을 지원하고 있다.

문전성시 프로젝트는 3차년도 사업으로서 현재까지 총 21곳이 선정되어 2012년에는 2010년에 선정된 10곳의 3차년도 사업과 2011년에 선정된 5곳의 2차년도 사업, 총 15곳에서 사업이 진행되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진행된 문전성시사업에 활용된 공공미술의 내용은 벽화, 간판 · 안내판 만들기, 조형물 제작, 상인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하는 커뮤니티아트 프로그램 등 다양하다. 그러나 2012년에는 문전성시의 시범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공공미술적 성격을 가진 활동들이 축소되거나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67]
문전성시 프로젝트 진행현황

선정시기 (년도)	사업명	추진주체(산하기관)
2008	강원 강릉시 주문진시장	지역관광형
	경기 수원시 못골시장	주민공동체형
2009	서울 강북구 수유마을시장	주민공동체형
	충남 서천군 한산오일장	지역관광형
	전남 목포시 자유시장	문화복지형
	대구 중구 방천시장	문화예술형
2010	서울 중랑구 우림시장	주민공동체형
	전북 진안군 진안시장	주민공동체형 + 지역관광형
	광주 남구 무등시장	문화복지형
	전남 순천시 순천웃장	지역관광형
	강원 춘천시 춘천중앙시장 중소기업청 공동협력시장	문화관광형
	충북 청주시 가경터미널시장	문화예술형
	경북 봉화군 봉화상설시장	문화예술형 + 지역관광형
	부산 부산진구 부전시장	지역관광형
	경남 하동군 화개장터	문화복지형
	전남 여수시 교동시장 중소기업청 공동협력시장	문화관광형
2011	서울 금천구 남문시장	주민공동체형
	충남 홍성군 홍성전통시장	주민공동체형
	전북 전주시 남부시장	지역관광형
	충북 옥천군 옥천오일장	지역공동체형
	경북 경주시 불국장·외동장	지역관광형

2012년 진행사업

문전성시와 같이 시장을 중심으로 지역을 명소화 시키고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은 중소기업청에서 추진하는『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과『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등이 있다.

2) 지자체 추진 기타 관련사업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타 관련사업들은 지자체에서 직접 진행하며 대체로 마을만들기나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커뮤니티의 형성과 강화,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등의 목적에서 공공미술의 방법을 통해 단기간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자하여 사업을 진행하지만 단기사업, 시범사업의 형태로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지속적으로 예산을 지원받아 장기간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2012년 지자체가 추진한 기타 관련사업들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사된 사업들은 해당 지자체와 관련기관의 협조가 가능했던 곳을 위주로 정리하였고 이외에도 많은 지방자치 단체, 시, 군, 구에서 공공미술과 관련한 여러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행기관		사업명		시행부서		수행단체	예산	주요내용
경기도	수원시	마을 르네상스 사업	송죽 9통 일대	마을 만들기 추진단	마을 르네상스 센터	송죽 9통 행복한 달팽이들	4천 2백만 원	시설조성, 공간조성, 공동체프로그램
	고양시	2012 자치 공동체 사업	고양시 일대	주민 자치과	—	공공미술 프리즘 외	3억원	지역공동체가 주체가 되어 사업 진행
강원도	강릉시	공방길 정비사업	강릉시 죽헌동 154-3	정책 기획과	—	오죽헌 공방 마을회	2억 6천 4백만 원	오죽헌과 강릉예술촌 연결하는 공방길 정비사업
충청남도	공주시	주민참여 쌈지공원 만들기 사업	공주대 기숙빌딩 외 3곳	도시 재생과	—	공주대, 충남발전 연구원, 시민단체, 주민	—	지역의 자투리 공간 활용한 쌈지공원 만들기
전라남도	여수시	시민참여 색채개선 사업	여수 정보고 벽면	시민 소통과	국제정원 박람회 조직 위원회	담 - 싸랑	—	여수관광객을 위한 명화공간 조성
경상북도	포항시	걷고 싶은 건강오름 계단 벽화 조성사업	시청사 본관 계단길	보건정책 담당	—		3천만 원	일상 속 계단 걷기 운동 유도
경상남도	창원시	창동 예술촌 조성사업	부림 시장 빈 점포 등	도시 재생과	—	입주 예술가	20억 원	빈 점포 활용한 창동 예술촌 조성

[표 68] 2012년도 지자체추진 기타 관련사업

지자체 추진 기타 관련사업 중 공공미술을 사업에 적극적으로 이용한 사업 중의 하나인 고양시의 사례에 대해 분석을 진행하였다.

① 고양시 – 2012 자치공동체 사업

고양시의 자치공동체 사업은 주민자치를 근간으로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활동과 사업을 말한다. 주민들이 적극적인 주체가 되어 마을의 특성과 자원을 활용하는 것으로 마을의 특성과 여러 자원들을 바탕으로 전개해 나갈 수 있다. 자치공동체 사업은 고양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주민들이 시의 행정적 지원을 받아 추진하거나,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가능하다.

자치 공동체 사업은 '자치 역량의 배양 및 자치 활성화', '지역공동체의 형성과 강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진행된다.

지역공동체 사업의 운영을 위해서는 추진주체와 행정, 전문가의 역할이 필요하다. 사업의 추진주체는 지역의 주민으로, 적극적인 참여가 바탕이 되어야하며 주민은 주민자치회, 입주자대표자회 등 모임이 가능한 공동체로 최소 4~5명 이상의 핵심 일꾼들을 두어 사업의 안정적인 수행과 지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구성된다. 공동체 사업에서 행정의 역할은 공동체 사업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훈련과 교육을 통해 공동체의 리더를 양성하고 관련 공무원들의 자치공동체 교육을 통해 공동체 사업 소양교육을 진행하는 것이다. 전문가는 이론과 실제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지역의 내부자이다. 추진주체를 돕는 사업 수행 보조가로서 민관 거버넌스 역할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주민 역량강화교육, 공동체사업 공모운영, 마을자원 발굴 활용, 연구, 홍보 및 사업 모델 개발 등의 역할을 한다.

2007년부터 시작된 고양시의 자치공동체 사업은 2011년까지 주민센터에 예산을 분배하여 해당지역에 꽃길을 가꾸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2012년부터는 사업추진 주체의 신청 범위를 주민센터를 비롯한 모든 지역 주민들로 확대하여 다양한 참여와 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변화를 주었다. 예산도 기존의 연간 약 4천 8백 만 원이었던 것에서 3억으로 확대하였다. 변화된 자치공동체 사업은 2013년에도 추진 중에 있으며 지속적인 사업의 형태로 운영될 것이라 한다.

2012년 자치공동체 사업은 총 19개로 고양시 전역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그 현황은 다음과 같다.

연번	사업명	사업개요					예산액 (천원)
		사업주체	사업기간	사업장소	사업내용		
1	앗싸! 신나는 토요일	백석2동 주민자치위원회	4 –11월	일미공원 등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		15,616
2	제2회 고양청소년 창의 봉사활동 대회	고양사회창안센터	4 –11월	고양시 전역	창의봉사활동(39개 동아리)		14,153
3	오!해피 썬벌 식구(19)	햇빛 19단지 입주자대표회의	4 –11월	햇빛 19단지 등	공동텃밭, 야외카페, 축제 등		21,703
4	토토즐 꿈동산	주엽1동 주민자치위원회	6 –11월	주엽1동 주엽초교 등	시민교육(초등, 중등, 실버반)		16,966
5	주민고충상담센터	일산3동 주민자치위원회	6 –12월	일산3동 치안센터	상담, 강좌, 쉼터, 건강검진		18,464
6	유휴농경지활용 사랑의 고구마 나눔	대덕동 새마을 협의회	5 –11월	현천동 253	고구마, 야채 체험활동, 나눔		3,995
7	주민들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대덕동 주민자치위원회	4 –11월	현천동 6개소	거리화단 조성(6개소)		9,385
8	마을단위 합창단 만들기	우리동네문화놀이터	6 –11월	탄현, 풍산동 등	동 단위마을 합창단 만들기		39,859
9	행주나루 참게축제	행주동 주민자치위원회	10월 6,7일	행주동 시정 연수원	참게축제(2일)		26,000
10	사랑의 빵 나누기	일산1동 주민자치위원회	6 –11월	일산고 제빵실 등	사랑의 빵나눔		7,698
11	다 같이 놀자 동네 한바퀴	고양동 주민자치위원회	4 –11월	문화재, 박물관 6개소	문화재탐방 사진전시회		7,958
12	입주민이 함께하는 마을 가꾸기	풍동 성원 1,2차 입주자대표회의	4 –11월	풍동성원 아파트 단지내	아파트조경시설정비, 사생대회		22,261
13	대안공동체 협력과 소통의 토대 만들기	이든해움	4 –11월	대장동, 내곡동 일원	마을육아, 축제 청소년공부방		12,370
14	동굴 — 동네를 골려라(동네극장&카페)	재미있는 느티나무 온가족 도서관	6 –11월	행신동 도서관 등	마을카페, 동네극장		66,059
15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강매고가	행신2동 주민자치위원회	4 –11월	행신동 강매고가	벽화그리기 아치동굴		10,842
16	식사동 인문학콘서트	식사동 주민자치위원회	6 –11월	동국대병원, 국제고 등	인문학 강의		6,728
17	중앙로 — 구둣방을 중심으로	공공미술프리즘	5 –11월	중앙로 구둣방 13개소	중앙로 구둣방 공공디자인		57,067
18	송포 자율합동 방역단	송포동 주민자치위원회	6 –11월	송포동 전역	합동방역활동 캠페인운동		5,490
19	생태문화가 살아있는 명품녹색길 만들기	마두2동 주민자치위원회	2 –11월	강촌공원	아생화 가꾸기 및 체험교육		15,842

[출처 : 2012 자치공동체 사업 결과보고

[표 69] 2012년 자치공동체 사업현황

2012년 자치공동체 사업 중에서 공공미술의 성격과 방법을 가지고 진행한『우리가 만드는 우리지역 명소- 중앙로 구둣방을 중심으로』에 대한 세부 분석을 진행하였다.

· 우리가 만드는 우리지역 명소 - 중앙로 구둣방을 중심으로

우리가 만드는 우리지역 명소- 중앙로 구둣방을 중심으로는 경기도 고양시 내의 중앙로 일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선정하여 구둣방 사인물을 정비하며 시민참여를 유도하는 공공미술의 내용을 가진다. 이 사업을 통해 구둣방을 지역의 명소로 만들고 공동체 사업을 통한 자치공동체의 새로운 사례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진행되었으며 그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70] 우리가 만드는 우리지역 명소『중앙로 구둣방을 중심으로』 공공미술사업 세부분석

출처: 2012 자치공동체 사업 결과 보고서 (고양시 주민 자치과 제공)

프로젝트명	우리가 만드는 우리지역 명소 — 『중앙로 구둣방을 중심으로』
프로젝트 목적	지역의 구둣방을 명소로 만들고자 함
설치장소	고양시 대화역 – 백석역 중앙로 일대 구두 수선집 8곳
사업년도	2012. 2 – 2012. 12
예산	5천7백만 원
주최/주관	(주최)고양시, (주관)공공미술프리즘
협력기관 참여작가/단체	(단체)일산기능 미화협회, 고양예고 동아리 '담쟁이', C&C 미술학원, 하얀세상미술학원, (작가)김규식, 박지혜
주요매체	벽화, 디자인, 주민참여
주요특징	환경개선, 공동체 형성
내용종합	'우리가 만드는 우리지역 명소 - 중앙로 구둣방을 중심으로'는 구두 수선집 외부를 공공미술로 변화시키는 작업이다. 이 사업은 일시적 공공미술 작업의 형태가 아닌 연속적으로 진행되며 기획과 실행 모두를 주민이 주체적으로 운영한다는 점에서 자치공동체 사업의 의의를 잘 드러내고 있다. 구둣방은 지역의 생활 필수 이용공간이지만 도시공간 속에서 틀에 박힌 정형화된 모습과 노후되어 지저분한 곳들이 대부분이고, 대체로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다. 이에 구둣방의 외관 개선과 지역의 환경 정비와 함께 그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참여, 실행하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커뮤니티의 활동을 통해 공간의 변화를 시도하였다. 먼저 사업을 위한 공동체 협력 워크숍을 통해 사업기획과 디자인, 프로그램 개발을 진행하였고 실제 현장 프로그램을 진행, 최종적으로 구둣방 이야기에 대한 전시와 축제, 결과 워크숍을 가졌다. 구둣방의 뒷면을 디자인하는 작업은 많은 지역주민들과 지역의 미술학원생, 부모님이 함께 참여하여 그림을 그리는 체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미술학원생들과 사진작가는 직접 구둣방을 다니며 기록하고 작업한 '구둣방 이야기 책'을 제작하였다. 또한 구둣방 축제를 열어 구둣방 뒷면 그리기 체험 프로그램과 공동체 참여기관들이 사업을 진행한 일련의 과정들을 전시하였고, 구둣방 아저씨들의 소아암 돕기 구두수선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었다.









3. 국내 공공미술사업 사례조사·분석의 종합

우리나라의 공공미술은 건축물미술작품과 공공미술사업으로 전개되고 있다. 건축물미술작품은 작품의 직접설치와 함께 선택적 기금제의 도입을 통해 새로운 발전을 시도하고 있다. 2012년 작품의 직접설치는 건축 경기에 영향을 받아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지속적인 설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011년부터 시작된 선택적 기금제의 도입은 공공미술의 새로운 가능성과 다양성이 기대되나 아직 시행의 초기단계이고 홍보가 부족하여 기금제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앞으로 많은 과정과 시간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12년에 진행된 공공미술사업은 시행 주체에 따라 구분하여 공공미술사업과 기타 관련사업들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과거의 공공미술은 공공미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대부분이었으나 공공미술의 영역과 범위가 확장되면서 다양한 사업에 공공미술이 활용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2년 정부가 추진한 공공미술사업으로는 '마을미술프로젝트'와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가 대표적이며 이 사업들은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생활문화공동체사업은 커뮤니티 아트를 중심으로 하여 사업종료 후에도 주민 자체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커뮤니티 활동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마을미술프로젝트는 마을 이야기나 특정 주제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는 유형과 기 진행 사업 중 추가지원의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대상지에 예산을 재 지원하는 유형, 많은 금액의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공공미술로 특성화된 지역을 조성하려는 목적의 사업유형, 이렇게 3가지의 유형으로 나누어 진행되고 있다. 마을미술프로젝트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공공미술사업으로서, 마을별 여러 목적을 위해 다양한 매체들을 활용하는 등 지속적으로 공공미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2012년은 지자체 공공미술사업의 중심이 되는 문화재단 사업이 활발히 운영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비교적 큰 규모로 진행되었던 여러 재단의 공공미술사업들이 예산의 감소, 사업의 축소로 인해 실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대표적 지자체 공공미술사업인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의 경우도 트리엔날레식 운영으로 사업 실행을 위한 준비기간으로 가졌다. 광주폴리프로젝트의 경우도 2012년에는 부분적으로 실행되었지만, 건축가와 디자이너, 작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협력을 통해 디자인과 건축, 예술의 경계를 넘나들며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도가 있었다. 특히 작품을 완성해나가는 과정에서 시민을 참여시킬 뿐 아니라, 완성작품의 이용과 활용을 통해서도 참여를 이끌어내는 등의 시도가 의미 있었다.

공공미술에 있어 벽화는 가장 많이 활용되는 매체이다. 지자체에서 진행되는 벽화사업의 경우, 단년도 사업으로 직접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목적은 지역의 특정장소를 개선하거나 관광객 유도, 지역 홍보를 위해 추진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정부와 지자체의 사업 중 기타 관련사업들은 공공미술의 진흥을 위해서 라기 보다는 지역문화와 마을재생, 환경정비의 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가장 많다. 이러한 기타 관련사업들에서 공공미술의 매체가 자주 활용되는 이유는 공공미술의 영역과 쓰임이 다양해지고 공공미술의 효과, 그 사업의 성과가 지역이미지 제고 등의 긍정적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사업 공모를 통해 진행되는 작업을 제외하면 자체의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는 드물게 나타난다. 공모 외의 방법을 통해 진행된 민간의 사업들은 대부분 기업의 후원을 받아 진행되었다. 특히 공공미술프리즘의 버스프로젝트는 운송수단이라는 움직이는 공간을 활용하여 지역적, 공간적 제약으로부터 벗어난 새로운 시도로서의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공공미술연례보고서는 2012년에 전국적으로 벌어진 공공미술사업과 기타 관련사업의 조사를 통해 작성되었다. 이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에 사업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고 제공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됨에 따라, 조사기간 동안 협조가 가능했던 사업들 위주로 보고서가 작성되었기에 협조가 어려웠던 몇 개의 사업들은 누락되었다. 이로서, 2012 공공미술연례보고서는 전국에서 일어나는 사업 전체의 현황을 파악하는 보고서로서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명시하는 바이다.

구분		사업명		대상지	수행단체	예산
공공 미술 사업	정부	마을미술프로젝트		제주도 외	최미경, 아트팩토리 다대포 외	31억 원 이상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인천 외	우각로 문화마을 외	9억8천5백만 원
	지자체	다양한 시도	인천	지역공동체 문화만들기	인천시내	문화수리공 외	2억 원
			광주	광주폴리프로젝트	광주시내	서도호 등 건축가 및 디자이너 참여	25억 원
		벽화	경기	김포	김포 감정동 농수로 수변환경 조성사업	김포일대	김순식, 김재규 등	1억7천 5백만 원
				고양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벽화마을	성사1동 등	공공미술프리즘, 시민참여	1억 4천 1백 50만 원
				시흥	이야기가 있는 골목길	신천동 일대	—	8백만 원
			강원	원주	군과 함께 하는 디자인 원주	원주시 단구동 11급양대 담장	원주시 관내 군부대 장병	2천 6백만 원
			충북	제천	서울고개 행복만들기 사업	제천시 남현동 일대	남현동 주민센터	—
			충남	천안	추억의 미나릿길 골목 벽화마을	영성동17,18통지역, 미나릿길골목일대	충앙동 주민센터, 지역단체 등	2천 2백만 원
				당진	벽화예술길 조성사업	서문동 일대	(유)조형연구소엠, 자원봉사자	5천3백 80만원
				아산	우리동네 가꾸기 사업	도고면 금산리 일대	지역주민	1억 6천 7백만 원
			전북	정읍	꽃두레권역 벽화마을 조성사업	신천리 부안마을 주변	중부동 주민센터	1천3백만 원
			경남	통영	땡큐 동피랑	통영시 동피랑 일원	공모 당선자	5백만 원
민간		블루스퀘어 아트월 프로젝트			남산1호터널 부근	라오미	4천만 원
		2012 움니버스프로젝트			합정~파주행 버스	공공미술프리즘	2천 5백 52만원
		우리가 만드는 우리학교			고양시 일산	공공미술프리즘	8백 만 원
		학교 가는 길, 걷고 싶은 길 만들기			가톨릭대 주변	가그린	2백 만 원
		집수리 로드			경북 청도군 외 4곳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1억 3백만 원

[표 71] 2012 국내공공미술 사업, 기타 관련사업 전체 현황

구분		사업명			대상지	수행단체	예산
기타 관련	정부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 — 문전성시 프로젝트			서울 외 4개 전통시장 일대	신나는 문화학교 등	
	지자체	경기	수원	마을르네상스사업	송죽 9통 일대	송죽9통 행복한 달팽이들	4천 2백 만 원
			고양	2012 자치공동체 사업	고양시 일대	공공미술프리즘 외 오죽헌 공방 마을회	3억 원
		강원	강릉	공방길 정비사업	강릉시 죽헌동 154-3	공주대, 충남발전 연구원, 시민단체 등	2억 6천 4백만 원
		충남	공주	주민참여 쌈지공원 만들기 사업	공주대 기숙빌딩 외 3곳	담 -싸랑	—
		전남	여수	시민참여 색채개선 사업	여수 정보고 벽면	—	—
		경북	포항	걷고싶은 건강오름 계단 벽화사업	시청사 본관 계단길	입주예술가	3천만 원
		경남	창원	창동예술촌 조성 사업	부림시장 빈 점포 등		20억 원

*지자체 추진(다양한 시도) 공공미술사업 중 서울시와 안양시는 2012년 사업 미실행으로 제외함

6장 맺음말

2012 공공미술 연례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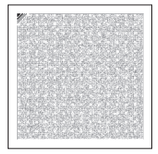
2012년 공공미술연례보고서 발간은 2012년 현재 전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공미술사업과 기타 관련사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의 위치와 역할을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현재 규모 있는 공공미술사업은 정부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그밖에 지자체의 자체사업들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공공미술에 대한 현황과 실행방법 등을 공유하고 현재의 공공미술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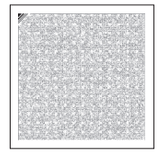
공공미술연례보고서 발간은 공공미술사업을 진행하고 참여하는 주체들(정부·지자체 관련 담당자, 기관, 단체, 작가 등)에게 공공미술에 대한 참고서, 활용서로서의 역할을 하며, 앞으로 공공미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참고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는 큰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본 보고서는 기존의 문화예술분야의 백서와 정책보고서에서와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연례보고서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공공미술 사업의 내용을 전문적이고 세부적으로 분석하기보다 다양한 활동과 시도를 정리함으로서 현재 공공미술의 흐름과 경향을 파악하고자 진행되었다.

2012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공공미술사업으로 '도시공원 예술로'와 '오픈콜 오디션 프로젝트'가 진행되었고, 대부분 기획단계였다. 이 두 프로젝트는 2013년에 실행, 설치되며, '공공미술 2.0' 사업이 2013년부터 진행 될 예정이다. 또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기타 관련사업으로 '공공미술토크시리즈'와 '지역 협력형 사업'이 진행되었으며, 공공미술 사업의 현장 외에도 공공미술의 담론형성과 지역문화 예술지원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다.

2012년 국내 공공미술사업의 현황을 살펴 본 결과, 정부와 지자체의 여러 사업들이 현장중심의 공공미술 실행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현장사업과 더불어 기금조성과 심포지엄 개최 등을 통해 공공미술의 저변확대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특성을 찾을 수 있었다. 특히, 심포지엄의 경우 공공미술의 현장과 학계에서 인정받은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공공미술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과 개선방향 등 다양한 토론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앞으로도 이러한 전문적인 형태의 심포지엄을 통해 공공미술을 직접 실행하는 시행 주체별 담당부서와 수행단체, 작가들이 교류하는 장을 만들고 이들이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두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진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전문교육을 통해 양성된 인력들이 사업의 현장 또는 시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투입되어 공공미술에 대한 성과를 확대하는 매개자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역협력형사업을 통해 진행되는 전국 16개 시·도에서 다양한 문화 활동, 특히 레지던스 프로그램과 시·도 기획지원 사업을 통해 주민참여 등 공공미술 요소들이 투영되도록 장려함으로써 공공미술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로써 2012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공공미술 사업진행과 활동은 현재 공공미술의 전국적 상황과 흐름에 있어 비중 있는 역할을 가지며 공공미술의 확산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앞으로 공공미술연례보고서의 지속적인 발간은 공공미술에 대한 다양한 소개뿐 아니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주체들의 사업 진행에 있어서 방향성과 목적을 설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나 이보다 앞서 필요한 것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발간하는 공공미술연례보고서의 성격을 규정짓는 것이다. 2012 공공미술연례보고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공미술사업을 중심으로 작성되었다. 그러나, 이후 발간될 공공미술 연례보고서의 목적 재확립에 따라 연구범위와 내용의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공공미술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수조사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방법적 측면에 관한 고민이 요구된다.

2012 공공미술 연례 보고서

참고문헌

국내자료

- 강태희 외, 1997, 건축물 미술장식 실태 및 개선방안연구, 한국문화정책개발원
- 강현주, 2006, 공공디자인의 의미와 디자이너의 역할, 한국공공디자인학회
- 권세기, 2002, 공공미술제도: 현황과 과제: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 건축물 미술장식, 국회도서관 입법전자정보실
- 김연금, 이영범, 2012, 커뮤니티디자인의 전개와 논의의 특징, 한국조경학회지, 제40권 3호
- 김주연, 이미림, 권양숙, 2010, 도시공간에서의 인간과 공공미술의 유기적 관계연구 - 시카고 공공미술작품 사례중심으로,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제5권 3호 통권 13호
- 김향미, 2007, 미술교육에서의 공공미술 활용방안 연구, 미술교육 논총 제21권 1호
- 김혜진, 2010, 2000년대 이후 한국의 공공미술프로젝트 유형,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집 10 Vol.10, No.8
- 맬컴마일스, 박삼철, 2000, 미술, 공간, 도시: 공공미술과 도시의 미래, 학고재
- 문화관광부, 2006, 공공미술이 도시를 바꾼다
- 박연선, 2007, 색채용어사전, 도서출판예림
- 부산문화재단, 2012, 2012지역문화 예술기획 지원사업 소개 자료집
- 신영철, 김영걸, 구자훈, 2010, 도시디자인으로서 공공디자인 정책평가체계 개발에 관한 연구/ 서울시 공공디자인 정책평가를 중심으로, 한국도시설계학회지, Vol.11, No.4, 통권 41호
- 아르떼, 2009,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시범사업 결과자료집 우리동네 예술동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양현미 외, 1999, 공공근로사업과 연계한 공공미술프로그램 연구, 한국문화정책개발원
- 양현미, 2009, 공공미술진흥방안연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오승희 외, 2011, 변화와 확장을 통한 공공미술 사례분석,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제6권 제1호 통권15호
- 월간미술, 1999, 세계미술용어사전
- 월간 팝 사인, 2007, 팝 사인 11월호
- 인천문화재단, 2012 지역문화 공동체 문화만들기 결과자료집
- 정소익, 류태희, 2012, 공공미술의 효과적 실행을 위한 표준 정관안에 관한 연구: 안양공공 예술프로젝트와 정관
- 한국도자재단, 2012, 김포 감정동 농수로 수변환경 조성사업 결과보고집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7, 커뮤니티 아트 진흥방안연구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9, 공공미술 진흥사업 운영방안 연구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0, 국제컨퍼런스 새로운 지형을 모색하는 공공미술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2, 건축물미술작품제도 개선현황 및 출연기금 분배방안 연구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1, 도시계획과 연계한 공공미술 추진방안 연구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1, 지역발전과 도시문화환경 향상을 위한 공공미술의 비전과 전략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2, 2012년 지역협력형사업 평가보고서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2, 지역협력형사업 수행과정 및 추천사례
- 한국사전연구사, 1998, 미술대사전(용어편)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1, 창조적 지역발전전략
- 한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 2012, 2012레지던스프로그램 지원사업 성과공유 포럼 자료집

홈페이지

- 경기문화재단 www.ggcf.or.kr
- 공공미술포털 www.publicart.or.kr
- 공공미술프리즘 www.free-zoom.com
- 광주폴리 www.gwangjufolly.org
- 두산백과 www.doopedia.co.kr
- 마을미술프로젝트 www.maeulmisul.org
- 문화체육관광부 www.mcst.go.kr
- 문화체육관광부 공간문화 웹 www.publicdesign.go.kr
- 부산문화재단 www.bscf.or.kr
- 서울디자인재단 www.seouldesign.or.kr
- 서울시 도시갤러리프로젝트 www.citygalleryproject.org
-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apap.ayac.or.kr
- 안양문화예술재단 www.ayac.or.kr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www.arko.or.kr

공공미술포털
publicart.or.kr
한국문화예술위원회